PDF자료집

주체90(2001)년

백전백승

조선노동당



백전백승 조선노동당

6.15주간 편집부



조선노동당건설의 역사적 경험(발췌)

김일성고급당학교 창립 40돌 기념 강의록

주체75(1986)년



1. 당창건을 위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투쟁

우리당은 깊은 역사적 뿌리에서 자라난 당입니다. 우리 당이 창건된 것은 1945년이지만 우리 나라에서 당창건을 위한 투쟁은 오래 전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오랜기간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혁명적 당창건의 튼튼한 기초를 닦았으며 그에 토대하여 우리 당을 창건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러시아 사회주의10월혁명의 영향 밑에 마르크스-레닌주의가 보급되고 노동계급이 투쟁무대에 적극 나서게 됨에 따라... 공산주의운동은 심중한 약점과 제한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기 공산주의운동가들은 인민대중 속에 들어가 그들을 교양하고 묶어세워 혁명투쟁에 불러일으킬 대신 인민대중과 동떨어져 혁명에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말공부나 하고 영도권 쟁탈을 위한 권력싸움만 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대주의에 사로잡혀 자체로 당을 튼튼히 꾸릴 생각은 하지 않고 저마다 자기파가 정통파이며 진짜 마르크스주의파라고 하면서 국제당의 승인이나 받으러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보니 우리 나라 초기 공산주의운동은 순탄한 발전의 길을 걷지 못하고 진통과 우여곡절을 겪었으며 1925년에 창건된 조선공산당은 혁명의 전위조직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일제의 탄압속에서 자기의 존재마저 오래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조선혁명은 새로운 형태의 혁명적 당을 요구하였으며 새 형태의 혁명적 당을 창건할 성스러운 위업은 새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 앞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새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초기 공산주의자들처럼 하여서는 혁명을 할 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찾았으며 그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혁명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우리는 혁명을 하려면 인민대중 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에 의거하여 투쟁하여야 하며 자체의 힘으로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당을 건설하고 혁명을 영도해야 한다는 것, 그렇게 하면 자연히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을 수 있고 존경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었으며 이러한 신념 밑에 투쟁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선택한 새로운 혁명노선이었으며 혁명적 당건설 방침이었습니다.

우리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였으며 자주적으로 혁명의 진로를 개척하고 투쟁을 벌여나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1926년에 조직한 ≪타도제국주의동맹≫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전위조직이었으며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참다운 공산주의 혁명조직이었습니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은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이룩하고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며 나아가서 세계에서 공산주의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을 자기의 강령으로 내세웠습니다.

제국주의동맹이 결성됨으로써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은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조와 결별하고 자주성의 원칙에 따라 전진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조선 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은 정확한 투쟁목표와 전략전술을 가지고 힘차게 전개되게 되었습니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은 우리 나라에서 새 형의 혁명적 당건설의 출발점으로 되었으며 바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계승하여 조직된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은 혁명적 당창건을 위한 투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은 종파사대주의자들의 분열책동을 극복하고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면서 선진적인 조직에 묶어세우고 단련시켜 당창건의 골간으로 키웠으며 광범한 반일 대중단체들을 통일적으로 지도하여 당창건의 공고한 대중적 기반을 꾸려 나갔습니다.

우리는 1930년에 역사적인 카륜회의에서 주체적인 혁명노선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무장투쟁을 전개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면서 기층당조직을 내오기 위한 투쟁을 벌였으며 새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로 첫 당조직을 결성하였습니다. 카륜에서 결성된 당조직은 우리 당의 영광스런 시원으로 되었으며 그 후 연이어 조직된 당조직들의 원형으로 되었습니다.

우리는 첫 당조직을 모태로 하여 당조직들을 급속히 확대해 나갔습니다. 우리는 짧은 기간에 두만강 연안을 비롯한 넓은 지역에 수많은 기층당조직을 내오고 그에 대한 조직지도 체계를 세웠습니다. 당조직들이 모아지고 그 활동이 강화됨으로써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조직적으로 더욱 굳게 결속되었으며 당조직의 지도 밑에 혁명투쟁을 보다 적극적으로 벌여 나가게 되었습니다.

당창건을 위한 투쟁은 항일무장투쟁이 전개되면서부터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항일무장투쟁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성스러운 해방전쟁인 동시에 숭고한 공산주의적 이념의 승리를 위한 가장 적극적인 투쟁이었으며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을 창건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투쟁이었습니다. 항일무장투쟁은 불길속에서 당창건의 조직적 골간을 대대적으로 키워낼 수 있었으며 공산주의대열의 통일, 단결을 확고히 실현하고 당창건의 대중적 기반을 튼튼히 꾸려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일무장 대오와 유격구들에 각급 당조직들을 내오고 그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하는 한편 우리 나라의 북부 국경일대와 중국 동북지방 조선인거주지역들에 반일단체를 광범히 조직하였습니다. 우리는 당조직들이 급속히 확대되고 무장투쟁이 강화됨에 따라 각급 당조직들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당적 영도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를 결성하였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는 부대 안의 각급 당조직들은 물론 국내외 여러 지방들에 조직되어 활동하는 당조직들까지도 통일적으로 지도하였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가 통일적인 영도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각급 당조직들에 대한 지도체계가 정연하고 서고 무장투쟁과 전반적 조선혁명에 대한 당적 영도가 확고히 실현되게 되었습니다. 모든 당조직들이 조직적으로 결속되고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 지도 밑에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 지도 밑에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국내외의 보다 넓은 지역으로 당조직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특히 국내외 산업중심지들과 전략적으로 중요한 농어촌들에 기층당조직들을 많이 내오고 그에 대한 통일적 지도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당조직들이 중요산업부문의 노동자들을 비롯한 광범한 대중 속에 깊이 뿌리박게 되었으며 전국적 범위에서 당창건 준비사업이 더욱 활발히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항일혁명투쟁의 전 기간에 걸쳐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을 창건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였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 나라 초기 공산주의운동이 가지고 있던 본질적인 약점들이 극복되고 혁명적 당을 창건할 수 있는 토대가 튼튼히 축성되었습니다. 간고한 항일투쟁 과정에 당창건의 조직사상적 기초가 마련되었습니다. 당창건의 조직사상적 기초를 마련하는 것은 혁명적 당건설의 근본요구입니다. 노동계급의 당을 건설하는 사업은 당창건의 사상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투쟁으로부터 시작됩니

다. 조직사상적 기초를 마련함이 없이는 혁명적 당을 창건할 수 없으며 설사 당을 창건한다 하더라도 그런 당은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으며 반혁명의 공세앞에서 파멸의 운명을 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 초기 공산주의운동의 역사적 교훈과 국제 공산주의운동의 경험이 이것을 실증하여 줍니다.

당창건의 조직사상적 기초를 마련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당조직들을 내오고 당 지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공산주의핵심들을 키워 당의 조직적 골간을 튼튼히 꾸리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기층당조직들을 비롯한 각급 당조직들을내오고 그에 대한 통일적인 조직지도체계를 세워놓았습니다. 우리는 당중앙을 선포하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충분한 준비밑에 당의 기층조직들을 먼저 내오고 그것을 확대강화하는 방법으로 당을 창건할 데 대한 방침을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였습니다. 물론 핵심적인 공산주의자들을 묶어 세워 당중앙을 선포하고 점차 아랫당조직들을 내오는 방법으로 당을 건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그러한 길을 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우리 나라에서 공산주의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그 대부분이 남을 쳐다보면서 파벌싸움과 말공부만을 일삼아 온 종파사대주의자들이었으며 그들에 의거하여서는 혁명적 당을 창건할 수 없었습니다. 혁명적 당을 창건하려면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대중 속에 깊이 뿌리박은 기층당조직을 내오고 당조직생활과 혁명투쟁을 통하여 종파주의와 사대주의에 오염되지 않은 참신한 새세대 공산주의자들을 키워내야 하였으며 공산주의대열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보장하여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층당조직을 먼저 내오고 점차 해당 단위와 지역의 실정에 맞게 상급 당조직을 내오도록 하였으며 모든 당조직들이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 움직이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공산주의핵심을 많이 키워냈습니다. 공산주의핵심이란 혁명적 세계관이 확고히 서고 그 어떤 난관과 역경에 처하더라도 동요하지 않으며 제기된 혁명과업을 자립적으로 훌륭히 수행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공산주의핵심이 있어야 당의 조직적 골간을 꾸리고 공산주의대열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실현할 수 있으며 당창건의 대중적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핵심을 키우는 가장 빠르고 혁명적인 길은 사람들을 항일무장대오에 받아들여 강고한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단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항일무장대오는 사람들을 견결한 혁명가, 공산주의핵심으로 키워내는 혁명적 단련의 학교였습니다. 우리는 노동자, 농민의 우수한 아들딸들을 항일무장대오에 받아들여 원쑤들과의 피어린 투쟁속에서 끊임없이 단련시킴으로써 그들을 공산주의적 혁명정신을 소유한 백절불굴의 혁명투사로, 정치군사적으로 준비된 공산주의핵심으로 키웠습니다. 혁명적 조직생활은 사람들을 교양하고 단련시키는 유력한 수단입니다. 우리는 계급적 각성이 높고 투쟁속에서 검열된 노동자, 농민들과 진보적 지식인들을 당조직에 받아들이고 조직생활을 통하여 그들을 꾸준히 교양하고 단련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당조직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강한 조직성과 규율성을 가진 우수한 공산주의핵심으로, 당의 조직적 골간으로 키워내었습니다.

공산주의핵심을 키워내는데서 반일대중단체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유격구들과 국내외의 여러 지역들에 여러가지 형태의 반일대중단체를 조직하고 거기에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반일군중을 묶어세워 일제를 반대하는 실천투쟁속에서 혁명적으로 단련시켰으며 그 과정에 많은 사람들을 열렬한 공산주의자로 준비시켰습니다. 우리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키워낸 수많은 공산주의핵심들은 우리 당의 창건을 위한 튼튼한 골간부대로 되었습니다.

당창건의 조직사상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또한 중요한 것은 공산주의대열의 순결성과 사상의지적 통일을 확고히 보장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대열의 순결성과 사상의지적 통일이 보장되는 기초 위에서만 혁명적 당을 창건할 수 있으며 당의 위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대열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은 당의 창건, 강화발전을 위한 근본조건이며 당의 불패의 힘의 원천입니다. 우리는 항일혁명투쟁 시기에 공산주의대열의 순결성을 보장하고 사상의지적 통일을 강화하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 초기 공산주의자들이 종파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하였으며 강철같은 조직규율을 확립하여 혁명대오안에 종파주의의 사소한 요소도 침습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산주의자들과 혁명조직성원들은 조선혁명의 주체적인 노선과 전략전술을 튼튼히 무장시켜 공산주의대열의 사상적 일치성과 행동상 통일을 보장하였습니다.

당창건의 조직사상적 기초를 마련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튼튼한 대중적 기반을 꾸리는 것입니다. 대중적 기반을 꾸리는 것은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 속에서 깊이 뿌리박은 위력한 당을 창건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입니다. 튼튼한 대중적 기반을 가진 당만이 필승불패의 당으로 될 수 있습니다. 당창건의 대중적 기반을 꾸리려면 대중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하여야 합니다. 인민대중은 혁명의 주인이지만 의식화, 조직화하지 못하면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없으며 당의 믿음직한 정치적 기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일혁명투쟁의 전 기간 대중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습니다. 우리는 항일혁명투쟁의 전 시기에 수많은 정치공작원을 각지에 파견하여 군중정치사업을 널리 벌이도록 하였습니다. 정치공작원들은 인민들 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꾸준히 교양하고 혁명화하였으며 대중단체들을 조직하여 광범한 군중을 조직적으로 묶어 세웠습니다. 우리는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을 혁명투쟁에 힘있게 조직동원하였으며 그들을 투쟁을 통하여 단련시켰습니다. 실천투쟁 속에서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이 계급적으로 각성되고 힘있는 정치적 역량으로 자라났습니다.

당창건의 대중적 기반을 꾸리기 위한 투쟁은 반일민족통일의 전선운동과 밀접히 결부되어 진행되었습니다. 1936년 5월 5일 조국광복회가 창건되었는데 이것은 당의 대중적 기반을 강화하는데서 획기적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 사변이었습니다. 조국광복회가 창건됨으로써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조국광복회의 기치밑에 튼튼히 묶어 세울 수 있었습니다. 조국광복회의 조직망은 급속히 확대되었습니다. 압록강과 두만강 연안일대에는 물론 국내깊이까지 조국광복회 하부조직들이 광범히 조직되었습니다. 조국광복회 하부조직은 매개 지방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다기한 명칭으로 조직되었습니다. 조국광복회 조직망이 국내외의 넓은 지역으로 뻗어 나감에 따라 그 주위에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이 굳게 결속되었으며 심지어는 종교인들까지 조국광복회 조직에 뭉치어 반일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섰습니다. 그리하여 각계각층 군중에 대하여 당적 영도를 실현하는데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 당창건을 위한 대중적 기반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당창건을 위한 조직사상적 기초가 튼튼히 마련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유리한 정세가 조성되면 임의의 시각에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을 창건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갖추어지게 되었습니다. 간고한 항일혁명투쟁 과정에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이 창시되었습니다. 항일혁명의 피어린 투쟁속에서 주체의 사상체계가 확립되고 불멸의 혁명 업적과 투쟁경험이 이

룩되었으며 혁명적 사업방법과 인민적 사업작풍이 창조되었습니다. 항일의 혁명전통에는 끝없이 귀중한 사상, 정신적 재보와 혁명의 고귀한 업적과 경험이 풍부히 담겨져 있습니다. 항일의 혁명전통은 해방후 우리 당을 창건하고 강화, 발전시키는데서 튼튼한 밑천으로 되었으며 우리 당과 혁명의 억센 역사적 뿌리로 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일혁명투쟁시에 마련된 당창건의 조직사상적 기초와 빛나는 혁명전통에 토대하여 조국이 해방된 다음 당을 창건하기 위한 사업에 지체없이 달라붙었습니다.

해방후 우리 나라의 정세는 매우 복잡하였습니다. 특히 미제의 남조선 강점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의 부과 남에는 판이한 정세가 조성되었습니다. 북반부에서는 나라의 주인이 된 전체 인민들이 해방의 기쁨을 안고 새 조국 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지만 남반부의 형편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남반부에서는 미군정이 실시되고 공산주의자들과 애국적 인민들의 혁명적 진출이 가혹하게 탄압당하였으며 인민의 창의에 의하여 세워진 인민위원회들이 강제로 해산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남, 북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을 다 망라하는 통일적인 당을 당장 창건하는 것은 곤란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통일적인 당을 창건할 수 있는 조건이 성숙될 때까지 가만히 앉아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의 북과 남에 조성된 판이한 정세는 북과 남에서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혁명을 발전시키며 당창건사업을 추진시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는 유리한 정세가 조성된 북반부에서 지체없이 당을 창건하도록 하였습니다. 북반부에서 당을 빨리 창건하여야 각 지방에서 조직되어 활동하는 공산당조직들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공산주의대열의 조직사상적 통일을 실현할 수 있었으며 광범한 대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 세우고 건국사업을 잘하여 북반부를 조선혁명의 튼튼한 기지로 정렬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랜 기간의 항일혁명투쟁에서 단련되고 훈련된 공산주의자들을 핵심으로 하고 국내외의 여러지방에서 활동하던 공산주의자들을 망라하여 당을 창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때 항일혁명투쟁에 참가한 공산주의자들만으로 당을 창건하자는 의견도 일부 제기되었습니다. 항일혁명투쟁 과정에 자라난 공산주의자들만으로도 얼마든지 창건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름만으로 당을 조직하면 다름 사람들도 저마다 당을 조직하려 하였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우리 나라의 공산주의운동은 분열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을 다 망라하여 당을 창건하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여러지방에서 분산되어 활동하던 일부 공산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단련되어 있지 못하였을 수도 있지만 항일혁명투쟁에서 단련되고 세련된 믿음직한 골간부대가 있는 조건에서 그들을 당에 받아들여 육성된 공산주의핵심들과 각 지방에 파견하여 지방 당조직들을 정비, 확대하고 분산적으로 활동하던 공산주의조직들을 묶어세우도록 하면서 당창건준비사업을 다그쳐 나갔으며 마침내 1945년 10월 10일, 강력한 당중앙지도기관인 북조선 공산당중앙 조직위원회를 창설하고 우리 당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당의 창건을 역사상 처음으로 되는 주체형의 혁명적 당의 탄생이었으며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을 창건하기 위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오랜 기간에 걸친 투쟁의 빛나는 결실이었습니다. 우리 당이 창건됨으로써 조선혁명의 강력한 정치적 참모부를 가지게 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당의 영도 밑에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조선노동당은 주체의 혁명적 당

조선노동당은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 주체형의 마르크스-레닌주의 당입니다. 조선노동당을 한마디로 특징지으며 주체의 혁명적 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선노동당은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당이며 주체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당입니다. 당이란 사상과 이념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뭉친 사람들의 정치적 조직체입이다. 당은 일정한 사회적 집단 또는 사회공동의 요구를 대변하여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합니다. 당의 성격과 사명은 그 사회계급적 기초와 지도사상에 의하여 규정됩니다.

조선노동당은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 근로인민대중의 대중적 당입니다. 우리 당은 노동계급의 전위투사들을 핵심으로 하고 노동계급과 함께 농민과 근로인텔리의 우수한 선진분자들을 자기대오에 널리 망라하고 있으며 노동계급의 혁명적 입장에 튼튼히 서서 노동계급과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의 요구와 이익에 맞게 모든 활동을 진행합니다. 우리 당의 마크는 우리 당의 혁명적이며 대중적 성격을 뚜렷이 상징하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의 지도사상은 주체사상입니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노동계급의 혁명사상이며 우리 혁명과 건설의 가장 올바른 지도적 지침입니다.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혁명적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학설입니다. 주체사상은 우리 나라의 혁명실천에서 그 정당성이 뚜렷이 검증되었으며 장기간의 투쟁과정을 통하여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지도사상으로 되었습니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당의 건설과 모든 당활동을 진행합니다. 주체사상은 우리 당건설과 활동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여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사람을 기본으로 보고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데로 모든 것을 복종시키며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 이방을 확고히 견지합니다.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조직사상적 공고화의 기초입니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당을 조직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전당의 사상적 일색화를 실현함으로써 당의 통일단결을 확고히 보장합니다.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을 영도하는데서 우리 당의 지도적 지침으로 됩니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을 지침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의 노선과 전략전술을 세우며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대중의 창조력을 조직동원하여 당의 노선과 정책을 관철합니다. 우리 당은 언제나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들고 전진하여 왔습니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창건되고 강화, 발전되었으며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영도하여 왔습니다.

조선노동당의 기본사명은 주체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것입니다. 주체위업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개척되고 발전하는 인민대중의 위업이며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입니다. 우리는 당의 창건을 선포할 때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사회의 민주주의적 개혁을 실시하고 우리 나라에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당의 강령으로 내세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항일혁명투쟁 시기부터 목표로 내세웠던 투쟁강령이었습니다. 우리 당은 당의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로 전당과 인민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였으며 그 결과 공화국북반부에서 이미 우리 당의 첫 강령이 빛나게 실현되었습니다.

아직도 전국적 범위에서는 이 강령이 실현되지 못하였습니다. 주체위업을 실현하는데서 우리 당 앞에 나선 당면한 혁명임무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당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 것을 당의 당면임무로 규정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

습니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무계급사회를 실현하는 것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공산주의건설위업을 완수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대한 혁명과업입니다. 사회주의가 완전히 승리하여 적대계급의 준동과 낡은 사상의 부작용이 없어지고 도시와 농촌의 차이, 노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가 없어질 때 사회주의 물질기술적 토대가 튼튼히 마련되고 근로자들이 어렵고 힘든 노동에서 해방될 때 공산주의건설위업을 실현하는데서는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 것은 오늘 우리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입니다. 우리 당은 이미 공화국북반부에서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의 과업을 완수하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추진함으로써 정치와 경제, 사상과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여 놓았습니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온 사회의 혁명화, 노동계급화, 인텔리화를 다그치며 사회주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전략적 과업들을 훌륭히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우리 당 앞에 나선 가장 절박한 투쟁과업입니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여야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실행하고 남조선인민들의 사회정치적 자주성을 실현할 수 있으며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조국의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공화국북반부의 혁명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애국투쟁을 힘있게 지원하며 우리 혁명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체위업을 실현하는데서 우리 당의 최종적인 혁명임무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사회는 낡은 사회유물이 종국적으로 청산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인류의 이상사회입니다. 인류의 이상인 공산주의사회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투쟁을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건설될 수 있습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만들고 사회와 자연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철저히 개조하여야만 공산주의의 사상적 요새와 물질적 요새를 점령할 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공산주의사회에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당의 최고강령으로 내세우고 사람과 사회와 자연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우리 나라 혁명을 잘하는 것과 함께 세계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합니다. 세계혁명은 전세계적 범위에서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청산하고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실현하며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세계혁명은 모든 공산당, 노동당들과 세계의 혁명적 인민들의 공동의 국제적 위업이며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것은 매개나라 노동계급과 인민대중의 국제적 의무입니다. 세계혁명을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전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자주화된 세계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가 완전히 청산된 세계이며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자주권이 완전히 실현된 세계입니다. 온 세계를 자주화하면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여 이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 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 놓게 됩니다. 세계혁명의 승리를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세계 공산주의운동을 힘있게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은 세계적 범위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승리를 이룩하고 인류해방의 과업을 완성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입니다. 공산주의가 전세계적 범위에서 승리하여야 자주성을 위한 노동계급과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이 종국적으로 완성되게 됩니다. 세계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세계 여러 나라 노동계급과 인민들이 국제적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공동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합니다. 우리 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의 기치밑에 형제적 공산당, 노동당들을 비롯한 세계의 진보적 정당들과 굳게 단결하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온갖 침략과 예속을 반대하고 인민들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여나갈 것입니다. 이는 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우리 당의 위업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투쟁을 통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길에서 끝까지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당은 그 성격과 사명으로 보나, 활동방식과 사회역사적 지위로 보나 다른 정당들과 근본적으로 구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계급의 당은 자기의 본성과 특성에 맞는 고유한 원리와 원칙에 기초하여 건설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당이 자기의 영도적 기능과 역사적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노동계급의 당은 언제나 사람과의 사업을 튼튼히 틀어쥐고 온 사회에 대한 정치적 영도를 원만히 실현할 수 있도록 당건설과 당활동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온 사회에 대한 정치적 영도를 실현하는 것은 노동계급의 당건설의 근본원리입니다.

우리 당은 처음부터 당사업의 기본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사람과의 사업을 통하여 풀어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사람과의 사업은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조직적으로 묶어세워 그들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자각적으로 떨쳐나서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당활동에서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나가는 것은 주체사상의 요구입니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여 모든 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로부터 당건설과 당활동에서는 언제나 사람을 중심으로 놓아야 하며 사람과의 사업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사람과의 사업은 노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정치를 실현하는 기본방식입니다. 노동계급의 당의 정치는 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정치이며 그 근본요구는 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와 이익에 맞게 사람들을 교양하고 묶어세워 그들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자각적으로 떨쳐나서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정치적 교양자이며 조직자입니다. 당사업의 대상은 사람이며 당의 임무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고 묶어세워 그들이 높은 열의를 가지고 혁명투쟁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과의 사업은 당사업의 기본내용으로 당의 고유한 활동방식으로 되며 당사업과 당활동은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당은 사회의 영도적 정치조직입니다. 당의 영도 밑에 노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정치활동이 진행되며 혁명과 건설이 전진합니다. 인민대중의 정치활동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영도하는 여기에 사회에서 노동계급의 당이 차지하는 독특한 지위와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당은 온 사회에 대한 정치적 영도를 확고히 실현할 때에만 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와 이익의 참다운 대표자로 될 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에 맞게 이끌어나가는 참다운 영도조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지난 기간 혁명적 당건설의 원리를 구

현하여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온 사회에 대한 정치적 영도를 확고히 보장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자주적 권리와 이익을 참답게 옹호할 수 있었으며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킬 수 있었습니다.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고 위력한 불패의 당으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승리로 이끌어나가는 혁명적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당건설에서 혁명적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이 당건설에서 견지하고 있는 기본원칙은, 첫째로 당 안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것이며, 둘째로 당이 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는 것이며, 세째로 당건설에서 계승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은 당 안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당건설에서 유일사상체계를 세운다는 것은 전당을 하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고 그에 기초하여 영도의 유일성을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동계급의 당은 반드시 하나의 사상에 기초하여 조직되고 지도되어야 합니다. 노동계급의 당은 하나의 중심에 의하여 통일, 단결되어야 하며 유일적인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당 안에 유일사상의 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당 안에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워야만 당이 자기의 혁명적 성격을 고수하고 대오의 조직사상적 단결을 이룩할 수 있으며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계급의 당 안에는 오직 하나의 사상만이 있어야 하며 전당이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되어야 합니다. 사상의 유일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자기의 혁명적 성격을 고수할 수 없으며 전당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전일적인 조직으로 될 수 없습니다. 사상과 행동의 일치성을 보장하지 못한 당은 사실상 하나의 당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당대열의 통일과 단결은 하나의 사상에 기초할 때에만 가장 공고하고 어떤 풍파도 이겨낼 수 있는 위력한 것으로 될 수 있습니다.

당의 사상의지적, 혁명적 단결을 확고히 실현하려면 모든 당원들을 당의 지도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전당을 하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여야 합니다. 당은 사상의 일색화에 기초하여서만 영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실현할 수 있으며 영도의 유일성이 보장되어야 영도적 정치조직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계급의 당은 당의 지도사상에 기초한 사상의 일색화를 실현하여 모든 당원들이 오직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중앙위원회의 유일적 영도 밑에 전당이 한결같이 움직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 데 대한 원칙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를 내포하고 있는 당건설 원칙이며 그것은 당활동에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제를 철저히 구현할 것을 요구합니다. 당의 노선과 정책은 당원들의 지향과 요구를 집대성한 당의 조직적 의사입니다. 당안에서 민주주의를 적극 발양하여야 당노선과 정책에 대중의 의사가 옳게 반영될 수 있으며 그것을 대중자신의 것으로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당원들과 당조직들이 당의 노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관철하며 당원은 당조직에, 하급당조직은 상급당조직에, 전당은 당중앙위원회에 복종하는 중앙집권적 규율을 확립하여야 전당의 유일적인 영도체계를 확고히 세울 수 있습니다.

노동계급의 당은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노동계급의 당은 인민대중 속에 깊이 뿌리박고 광범한 대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움으로써 당과 인민대중이 같이 숨쉬고 움직이며 운명을 같이 하는 혼연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활동하는 노동계급의 당의 본성적 요구입니다. 노동계급의 당은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어야 백전백승하는 불패의 당으로 될 수 있습니다. 인민대중 속에 뿌리박고 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당만이 필승불패의 위력을 가질 수 있으며 끊임없이 강화발전될 수 있습니다. 노동계급의 당은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룸으로써만 지도와 대중을 옳게 결합시켜 인민대중을 역사의 위대한 창조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당과 인민대중이 혼연일체를 이루는 여기에 당의 위력이 있으며 또한 인민대중의 위대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회역사의 주체이며 혁명의 담당자인 인민대중은 당의 영도에 의해서만 자기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혁명의 힘있는 동력으로 될 수 있습니다. 노동계급의 당은 대중과 한덩어리가 되어 대중을 혁명적으로 이끌어줌으로써 인민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대중으로 하여금 높은 혁명적 열의와 창조력을 가지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적극 떨쳐나서게 합니다. 당이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기 위하여서는 당을 근로인민대중의 대중적 당으로 건설하여야 하며 당활동에서 인민대중의 이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여야 합니다.

노동계급의 당은 당건설에서 계승성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당건설에서 계승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당건설의 전 행정에서 당의 혈통을 순결하게 이어나가며 당건설의 중요한 원칙들을 일관하게 견지해 나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당건설에서 계승성을 보장하는 것은 공산주의운동과 당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입니다. 공산주의운동과 당건설위업은 대를 이어 계속되는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노동계급의 혁명위업이 여러 세대에 걸쳐 장기적으로 진행되며 공산주의운동이 발전하는 과정에 세대교체가 끊임없이 진행되는 조건에서 당건설위업도 대를 이어 계속되어야 합니다. 당건설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하는데서 기본은 당의 사상과 영도의 유일성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당건설에서 사상과 영도의 유일성이 계승되지 못하면 혁명의 대가 바뀔 때 당의 혁명적 성격과 투쟁업적을 고수할 수 없고 자기의 혁명적 역할을 보장할 수 없으며 결국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끝까지 수행해 나갈 수 없게됩니다. 당의 사상과 영도의 유일성은 당과 사회가 발전하여 나가는 전 과정에 변함없이 계승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당건설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하는데서 당의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혁명전통은 노동계급의 혁명위업과 당건설위업의 완성을 위한 귀중한 혁명적 재보이며 당과 혁명의 대를 이어주는 명맥입니다. 혁명전통에는 당의 지도사상과 지도이론, 지도방법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어 있으며 혁명투쟁의 전 역사적 기간에 이룩되고 축적된 혁명의 고귀한 업적과 경험이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노동계급의 혁명위업과 당건설위업은 혁명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 과정을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만일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계승하지 못하면 당과 혁명의 명맥을 이어나갈 수 없으며 혁명의 궁극적 승리를 이룩할 수 없습니다. 노동계급의 당은 혁명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당건설의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혁명의 시원이 열린 때로부터 오랜 기간의 혁명투쟁 과정에 이룩되고 발전, 풍부화된 혁명전통의 모든 내용을 전면적으로 계승하여 나가야 합니다.

우리 당은 지난 기간 혁명적인 당건설 원리와 원칙들을 확고히 틀어쥐고 그것을 당건설과 당활동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당건설의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었으며 우리 당을 오늘과 같은 주체의 혁명적 당으로 강화,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 당건설의 역사적 경험은 바로 주체의 당건설의 원리와 원칙들을 당건설과 당활동의 모든 분야에 구현하여 우리 당을 노동계급의 새형의 당, 주체의 혁명적 당으로 강화, 발전시키는 과정에 이룩한 고귀한 경험입니다.



조선노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

조선노동당 정치이론잡지 ≪근로자≫에 발표한 논문

주체79(1990)년 10월 3일

조선혁명의 참모부이며 우리 인민의 향도적 역량인 조선로동당이 창건된 때로부터 45년이 지나갔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멀고도 험난한 길을 걸어오면서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조국의 융성과 번영을 위하여 청사에 빛날 업적을 쌓아올렸다. 우리 당은 중첩되는 난관을 뚫고 심각한 사회적 변혁과 거창한 건설사업을 수행하며 우리 나라를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나라로 전변시켰으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계급적 원쑤들의 파괴책동을 짓부시고 조국과 혁명을 믿음직하게 수호하였다. 우리 당은 인류의 자주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지니고 자기의 국제적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 세계혁명발전에 귀중한 공헌을 하였다.

우리 당은 오랜 기간의 간고하고도 영광스러운 투쟁을 통하여 어떤 풍파와 시련속에서도 인민들을 언제나 승리에로 이끄는 노숙하고 전투적 기백이 넘치는 당으로,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조선혁명의 세련된 참모부로 강화발전되였다.

오늘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이 걸어온 혁명의 길을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돌이켜보고 있으며 당의 기치따라 조국땅우에 사회주의낙원을 건설하고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갈 결의에 가득차있다.

현시기 국제무대에서는 진보와 반동, 혁명과 반혁명사이의 투쟁이 첨예하기 벌어지고 있으며 사회주의위업, 인류의 자주위업은 제국주의자들의 엄중한 도전에 부딪치고 있다.

우리는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 앞에 지닌 우리 당의 임무가 보다 무거워지는 현실적 요구에 맞게 당을 더욱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영도적 역할을 높여 자기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해나가야 한다.

1. 당의 영도는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 담보이다

당의 영도는 사회주의위업의 생명선이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위업은 우리 당의 영도 밑에 전진하고 승리하여 왔으며 그것은 앞으로도 당의 영도 밑에서만 빛나게 완성될 수 있다.

당의 영도는 사회주의위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 결정적 담보이다.

사회주의위업은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인민대중이 자주적 주체로 등장하여 그들 자신이 수행하는 혁명위업이다. 오랜세월 역사의 창조자이면서도 역사밖에 서있던 인민대중을 자기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위력한 주체로 되게 하는 것은 그들을 의식화, 조직화하는 노동계급의 당이다.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의 영도에 의하여 자기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사회와 혁명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가는 자주적인 주체로 되었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에서 언제나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는 데 커다란 힘을 넣었으며 사회주의건설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는데 따라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렸다.

우리 당은 전체 인민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수령의 두리에 조직사상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묶어세워 혁명대오를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결속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조선노동당이 혁명대오의 중심에 확고히 서있으며 오랜 기간의 혁명투쟁과정에 당과 운명을 같이하면서 온갖 시련을 이겨낸 인민대중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있다.

우리 인민은 당의 영도 밑에 사회주의건설에서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발휘하고 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강력한 추동력은 무엇보다도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힘, 자각적 열성과 창조적 적극성이다. 이것은 사회주의위업을 진심으로 자신의 사업으로 받아들이도록 대중을 각성시키는 당의 영도에 원천을 두고 있다. 사회주의건설을 떠밀어나가는 우리 인민의 집단적인 힘, 대중적 영웅주의도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을 통일시키고 단결과 협력의 위력을 강화해나가는 당의 영도에 의하여 높이 발휘되고 있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인민대중의 창조력이 높이 발휘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당의 영도가 사람들의 창발성을 억제한다는 제국주의자들의 비방이 부르죠아자유화를 고취하고 사회주의를 와해시키려는 반혁명적 궤변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우리는 앞으로도 당의 영도를 계속 강화함으로써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혁명적 단결을 끊임없이 공고히 하고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인민대중의 헌신성과 창조적 열의를 남김없이 발양시켜야 한다.

당의 영도는 올바른 투쟁전략과 전술에 의거하여 사회주의위업을 전진시키기 위한 근본조건이다.

사회주의위업은 심각한 계급투쟁을 동반하며 전인미답의 길을 헤쳐나가면서 새것을 창조하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사회주의위업은 올바른 투쟁전략과 전술에 의해서만 뚜렷한 방향과 방도를 가지고 자기의 앞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해나갈 수 있다.

사회주의위업에 대한 전략전술적 영도는 사회와 혁명발전의 앞길을 정확히 밝혀주며 광범한 대중을 조직하고 동원할 줄 아는 노동계급의 당만이 할 수 있다. 사회주의건설의 옳은 전략과 전술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조직지도하는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당의 지위와 역할은 다른 그 어떤 조직이나 단체도 대신할 수 없다. 국가정권을 포함하여 사회주의사회의 모든 조직과 단체들 가운데서 사회와 혁명에 대한 정책적, 전략전술적 영도를 사명으로 하여 출현하고 또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조직은 오직 노동계급의 당이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에서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주체적인 노선과 정책을 제시하고 전체 인민을 조직동원하여 그것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을 곧바른 길을 따라 전진시키고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과 변혁을 창조할 수 있었다.

우리는 앞으로도 혁명의 참모부인 당의 전략전술적 영도를 끊임없이 강화함으로써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확고히 전진시켜나갈 것이다.

당의 영도는 사회주의위업수행의 전과정에서 혁명적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고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다.

사회주의위업은 혁명적 원칙성으로 하여 다른 사회적 운동들과 구별되며 원칙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의거하여 앞길을 개척해나간다. 혁명투쟁의 역사는 혁명적 원칙을 고수하면 사회주의위업이 어떤 어려운 난관과 시련도 이겨내면서 전진하게 되지만 혁명적 원칙을 저버리면 중도에서 변색되고 주저앉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 원칙을 견지한다는 것은 자주성에 대한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근본요구와 이익을 끝까지 고수하고 구현해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건설과정에 투쟁환경과 조건은 달라질 수 있으나 자주성을 실현하려는 인민대중의 근본요구와 입장에는 변함이 있을 수 없다.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구현하는 혁명적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해 나가야 한다.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이익은 노동계급의 당의 영도에 의해서만 확고히 견지되고 실현될 수 있다. 노동계급은 자주성을 가장 높이 체현하고 있는 계급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어느 계급, 계층보다도 견결히 투쟁하는 계급이다. 노동계급과 그 당에 있어서 인민대중의 요구와 이익을 떠난 다른 요구와 이익이란 없으며 노동계급의 당의 계급적 사명은 바로 인민대중의 요구와 이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실현하는 데 있다.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에서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근본요구와 입장을 반영한 혁명적 원칙들이 일관하게 견지되고 있는 것은 우리 당의 혁명적 영도의 결과이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이익에 맞게 사회주의제도를 세우고 공고발전시켜 왔으며 혁명과 건

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의 본성에 맞게 추진시켜 왔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의 자주적 이익을 침해하는 제국주의자들의 반혁명적, 반사회주의적 공세가 강화될수록 혁명적 원칙을 더욱 견결히 고수하고 관철하여 왔다.

사회주의건설에서 노동계급의 당의 혁명적 원칙성은 중요하게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에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데서 표현된다. 사회주의위업을 방해하고 와해말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반혁명적 책동은 오직 노동계급의 당의 원칙적인 투쟁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분쇄될 수 있다. 현실은 당이 혁명적 원칙을 고수하는 데서는 제국주의자들의 반혁명적 공세가 맥을 추지 못하며 당이 원칙을 양보하고 저버리는 곳에서는 사회주의가 병들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인민은 혁명투쟁의 전과정에서 시종일관 혁명적 원칙을 견결히 고수하여온 우리 당의 영도가 있음으로 하여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공세가 집중되는 유례없이 복잡하고 첨예한 환경속에서도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혁명의 한길을 따라 줄기차게 전진할 수 있었다. 우리 당의 원칙적인 투쟁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파괴암해책동이 철저히 분쇄되고 사회주의위업이 굳건히 수호되어 왔으며 공산주의운동안에 예상치 않았던 복잡한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오늘날에도 우리 혁명은 사소한 드팀도 없이 승승장구하고 있다.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의 근본요구와 혁명투쟁의 경험과 교훈으로부터 출발하여 당의 영도 밑에 국가사회생활에서 혁명적 원칙, 사회주의원칙을 견결히 고수하고 관철해나가야 한다.

당을 강화하고 그 영도적 역할을 높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을 완성하려는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당의 혁명적 영도는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하여서뿐 아니라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서도 필요하다. 공산주의사회에 가서도 사람들의 자주적 요구는 계속 높아지며 그것은 당과 같은 향도적 역량의 정치적 영도 밑에 인민대중의 의식적이며 조직적인 투쟁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 요구와 사회주의사회발전의 전망적 요구에 맞게 우리 당을 더욱 강화하며 당의 영도적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

2. 우리 당을 주체형의 혁명적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켜야 한다

우리 당은 혁명의 향도적 역량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서 언제나 당자체를 강화하는데 선차적 힘을 넣어왔다.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 당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확고히 이끌어 나갈 것이다.

우리 당을 강화발전시키는 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체형의 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혁명적 성격을 철저히 고수하는 것이다.

당의 혁명적 성격을 고수하는 것은 당의 존망,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혁명이 전진하는 과정에 당의 임무와 전략전술, 투쟁방법에서는 변화가 있을 수 있으나 당의 혁명적 성격에서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

당의 성격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당은 원래의 면모를 잃게 되고 이색적인 당으로 변질되게 되며 혁명에 대한 영도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데서 사회주의사회의 향도적 역량인 당을 변질시키는데 화살을 돌리고 있는 오늘 우리는 당의 혁명적 성격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주체형의 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혁명적 성격은 당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에 의하여 규정된다.

당의 혁명적 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자면 당의 지도사상을 확고히 수호하고 순결하게 계승하여야 한다. 물론 당의 지도사상은 시대와 혁명이 전진하는데 따라 끊임없이 발전완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혁명의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변하여도 지도사상에 관통되어 있는 혁명적 원칙은 철저히 고수되어야 하며 그와 어긋나는 이색적인 사상조류를 끌어들여서는 안된다. 만일 당의 지도사상이 변화된 환경과 조건에 맞지 않게 되었다고 하여 거기에 관통되어 있는 혁명적 원칙까지 버리고 그와 배치되는 딴 사상조류를 끌어들이면 당은 수정주의의 길로 굴러떨어지게 된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는 노동계급의 새형의 혁명적 당이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여 건설되고 강화발전되어 왔다. 주체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하여 우리 당은 가장 공고한 기초와 독특한 발전역사, 위대한 업적과 고귀한 경험을 가진 백전백승하는 당으로 될 수 있었다. 우리 당이 자주시대 혁명적 당건설의 가장 정확한 길을 개척하고 남들이 풍파와 곡절을 겪을 때에도 추호의 동요없이 혁명의 기치를 꿋꿋이 고수할 수 있은 것은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당건설, 당활동을 진행하여 왔기 때문이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건설된 것으로 하여 당의 계급적 성격도 철저히 보장할 수 있었다. 우리 나라는 지난날 식민지반봉건사회였기 때문에 노동계급이 청소하였으며 당원구성에서도 노동계급성분이 많지 못하였다. 그러나 우리 당은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고 있음으로 하여 처음부터 노동계급의 당으로 창건되고 강화될 수 있었으며 당을 공산주의혁명가의 대오로 급속히 확대발전시킬 수 있었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당건설과 당활동을 벌여왔기 때문에 혁명이 멀리 전진하고 투쟁환경과 임무가 달라지는 조건에서도 자기의 혁명적 본성에 맞게 계급적 성격을 확고히 견지할 수 있었다.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 당의 지도사상, 주체사상의 혁명적 기치를 일관성있게 틀어쥐고 전당의 주체사상화를 힘있게 추진하여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혁명적 당으로 강화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는 간부들과 당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이 주체의 혁명적 세계관을 세우고 주체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주체사상의 순결성을 확고히 고수하고 부르죠아사상, 수정주의사상을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함으로써 우리 당안에 주체사상과 어긋나는 이색적인 사상이 조금도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당의 혁명적 성격을 고수하기 위하여 당의 사회계급적 기초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노동계급의 전위투사들을 핵심으로하고 노동계급과 함께 농민과 근로인테리의 우수한 선진분자들을 자기 대오에 널리 묶어세운 대중적 정당이다. 우리 당의 대중적 성격은 바로 광범한 근로대중이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고 있는 우리시대의 근본요구와 우리 혁명의 구체적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것은 노동계급의 당으로서의 우리 당으로 하여금 광범한 대중 속에 깊이 뿌리박은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으로 더욱 급속히 발전할 수 있게 하였다.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 당의 사회계급적 기초를 공고히 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이 전진하면 할수록 노동계급의 당의 사회계급적지반은 확대강화된다. 일반적으로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주민구성에서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의 수는 줄어들고 기술노동과 정신노동을 하는 사람들, 인테리들이 늘어난다. 그러나 이것은 노동계급의 당의 사회계급적지반이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기술노동과 정신노동을 하는 사람들도 사회경제적 처지에서는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들과 본질적인 공통성을 가진다. 더욱이 사회주의건설이 추진됨에 따라 인테리를 포함한 모든 사회성원들의 사회경제적 처지가 노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되어 나가는 것이 합법칙적이다. 물론 사회주의사회에서도 당이 사상사업을 소홀히 하면 사회성원들속에 부르죠아사상이 퍼지고 당의 사회계급적지반이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노동계급의 당의 사회계급적지반의 공고성은 대중의 높

은 정치사상수준에 의하여 보장되며 따라서 당이 대중과의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따라 좌우된다. 우리 당은 일관하게 노동계급과 농민, 근로인테리를 사회계급적지반으로 보고 그들속에서 정치사상사업을 강화하여 왔으며 사회주의건설이 전진함에 따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왔다. 우리 나라에서는 당의 영도 밑에 온 사회의 혁명화, 노동계급화가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근로자들의 사회경제적 처지는 물론 사상정신적 면모도 노동계급의 모양대로 급속히 개조되고 있으며 우리 당의 사회계급적지반은 더욱 확대강화되고 있다.

당을 계급적으로 꾸리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간부대열과 당대열을 혁명위업에 충실하고 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사람들로 꾸리는 것이다. 우리는 혁명투쟁과 노동과정에서 오래동안 단련되고 검열된 사람들을 비롯하여 혁명적 전개력과 조직적 수완이 있고 인민적 품성을 가진 사람들로 간부대열을 꾸리며 간부대열에 이색분자, 우연분자들이 끼여드는 것을 철저히 경계하여야 한다. 우리는 단련되고 검열된 노동계급의 핵심분자들을 비롯하여 당의 혁명위업에 충실한 사람들을 당에 받아들이고 당대열을 계급적으로 튼튼히 꾸려나가야 한다.

우리 당은 주체의 당건설원칙에 기초하여 당대오의 조직사상적 통일단결을 공고히 하는데 가장 큰 힘을 넣어왔으며 여기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우리는 오늘 우리 당이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 수 없고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 통일단결을 이룩하였다는 것을 확신성있게 말할 수 있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하나의 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당이 수령의 두리에 철석같이 뭉친 일심단결이다.

사상과 영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보장하는 것은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며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이다. 공산주의운동역사는 당안에는 오직 하나의 사상만이 있을 수 있으며 당안에 여러 갈래의 사상이 있으면 당이 하나의 조직을 이루어도 참다운 통일을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상의 공통성과 유일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시적인 이해관계의 공통성이나 실무적 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진 단결은 사상누각과 같은 것이다. 당안에서 여러 갈래의 정치적 견해를 허용하여 제각기 자기의 주의주장을 내세우면 당이 행동의 통일을 보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반혁명분자들이 활개칠 수 있는 틈을 주게 된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사상적 일색화를 실현하기 위한 완강한 투쟁을 통하여 이룩되었다.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발전의 특수성으로 하여 우리 당안에도 한때 종파주의, 사대주의, 교조주의와 같은 반당적 사상요소들이 숨어있으면서 당의 통일을 방해하였다. 우리 당안에 있던 종파분자들은 당이 시련을 겪을 때마다 머리를 쳐들고 반당반혁명적 책동을 감행하였다. 우리 당은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강하게 벌림으로써 역사적으로 내려오던 종파오물들과 새로 나타난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을 철저히 청산하고 당의 통일을 확고히 실현하였다. 우리 당의 통일과 단결은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사상적 일색화에 의하여 이룩된 것으로 하여 가장 공고하고 힘있는 것으로 될 수 있었다.

우리는 우리 당의 일관한 혁명노선대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당대오를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일색화하며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당의 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고수하고 보다 높은 단계에로 강화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는 간부들과 당원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교양을 계속 강화하여 주체의 혁명관, 수령관을 철저히 세우며 그들이 어떤 복잡한 정세하에서도 당의 사상의도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며 당의 통일단결을 좀먹는 자그마한 현상과도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구현하며 그에 기초하여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당의 조직원칙으로서의 민주주의중앙집권제는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사상과 영도의 유일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당안에서 민주주의를 발양시키는 것은 당원대중의 주인다운 자각과 책임성, 그들의 창조적 적극성을 발양시키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어디까지나 당원들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을 확고히 보장하는 기초위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당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당원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성을 높이 발양시켜 당이 내세운 목표를 더 잘 실현해 나가는데 당내민주주의의 참다운 본질이 있다. 당안에서 민주주의가 그 본질적 요구에 맞게 구현되자면 반드시 중앙집권제와 결합되어야 한다. 중앙집권제는 광범한 당원대중의 의사를 하나의 의지로 집대성하여 전당이 한마음 한뜻으로 사고하고 움직이도록 하는 것을 본성적 요구로 한다. 노동계급의 당안에서는 민주주의와 떨어진 중앙집권제를 생각할 수 없듯이 중앙집권제를 떠난 민주주의란 있을 수 없다. 당의 사상과 영도에 배치되는 민주주의, 중앙의 통일적 지도를 떠난 순수 민주주의는 부르죠아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이외의 다른 그 무엇으로도 될 수 없다.

우리는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튼튼히 틀어쥐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그것을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당안에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한 규율을 세우고 당사업, 당활동에서 나서는 중요한 원칙적 문제들을 제때에 보고하고 처리하며 당의 결정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집행하는 혁명적 기풍을 확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당안에 제정된 질서와 규범을 철저히 지키며 당조직관념을 바로 가지고 당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업, 당생활 전반에서 민주주의를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 모든 당원들이 당회의들에서 창발적인 의견을 내도록 적극 조장시키며 자기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각급 당위원회들은 집체적 지도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개인의 주관과 독단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당의 통일단결을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우리 혁명의 통일단결의 전통을 계승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전통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영도 밑에 주체혁명위업이 개척되던 시기 청년공산주의자들과 항일혁명선열들에 의하여 마련되었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혁명적 단결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영도자로, 수령으로 높이 받들고 오직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쳐 싸워나가야만 혁명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고부동한 신념과 어떤 역경속에서도 혁명전사의 본분을 다하려는 숭고한 공산주의적 의리와 뜨거운 동지애에 기초한 사상의지적, 도덕의리적 통일단결이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통일단결의 고귀한 전통은 우리 당의 통일단결을 대를 이어 공고발전시켜나갈 수 있게 하는 만년초석으로 된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특히 새세대일군들과 청년당원들속에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전통이 어떻게 마련되었으며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똑똑히 인식시켜 그들이 단결의 전통을 대를 이어 옹호고수하며 항일혁명선열들처럼 당과 수령을 높이 받들고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워 당과 대중의 혈연적 연계를 반석같이 다져야 한다.

당의 불패성의 담보는 인민대중 속에 깊이 뿌리박고 인민대중과 혼연일체가 되는데 있다. 당이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으며 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면 어떤 원쑤도 두렵지 않고 어떤 어려운 과업도 훌륭히 수행해나갈 수 있다.

우리 당에 있어서 군중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대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는 것은 창건 첫날부터 매우 첨예하고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우리 나라는 매우 오래동안 제국주의식민지로 있은 결과 인민들이 제국주의자들의 반공선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해방후에는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분열파괴암해책동과 반동공세가 악랄하게 감행되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 당은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는 것을 당건설의 중요한

원칙으로 내세우고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들을 비롯한 모든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투쟁하여 왔다. 우리 당은 일제의 식민지통치와 조국의 분렬, 그리고 3년간의 전쟁으로 인하여 주민구성이 매우 복잡하게 된 조건에서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에 특히 큰 힘을 돌렸다. 우리 당은 기본군중과의 사업을 강화하면서 가정주위환경과 사회정치생활경위가 복잡한 군중과의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키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기 위한 투쟁을 꾸준하게 벌렸다. 우리는 당의 영도와 혁명적 군중노선을 결합시키는 것을 당활동의 근본원칙으로 제기하고 당의 영도를 인민대중의 요구와 의사에 맞게 실현하며 인민대중이 당의 영도를 진심으로 받들어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여 왔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이것이 우리 당이 당의 영도를 혁명적 군중노선과 결합시켜 구현하기 위하여 내놓은 구호이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것을 가장 숭고한 임무로 여기는 우리 당은 노선과 정책을 세우고 관철하는 전과정에 언제나 인민의 이익을 철저히 옹호하는 데로부터 출발하고 모든 것을 거기에 철저히 복종시켰다. 우리 당은 일군들이 인민의 충복이라는 관점을 확고히 가지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나가도록 적극 교양하여 왔다. 인민대중에 대한 우리 당의 헌신적 복무정신과 인민적인 시책들, 매개 가정들과 개별적 사람들에게까지 골고루 미치는 우리 당의 뜨거운 관심과 배려는 당에 대한 인민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낳고 당과 인민대중을 하나의 혈맥으로 굳게 이어 놓았다. 우리 당에 대한 인민대중의 높은 신뢰는 당이 내놓은 노선과 정책에 대한 입장과 태도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우리 근로자들속에서 나온 구호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당의 노선과 정책을 자기의 삶의 요구로 받아들이고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관철해나가는 인민대중의 높은 충성심을 보여주고 있다. 당은 인민을 위하여 충실하게 복무하며 인민대중은 당의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는 당과 대중의 이 위대한 통일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은 지난 시기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반혁명적 책동도, 기회주의자들과 당안에 나타났던 반당분자들의 음모도 제때에 철저히 분쇄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고조를 이룩할 수 있었다.

우리는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강화발전시키며 당을 인민대중 속에 더욱 깊이 뿌리박은 위력한 당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상교양을 강화하고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을 꾸준하고 인내성있게 벌이며 당의 영도와 혁명적 군중노선을 밀접히 결부시켜 나감으로써 모든 사회성원들을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묶어세우며 당과 대중이 영원히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혼연일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당을 강화하는데 첫째가는 주목을 돌리고 우리 당을 주체형의 혁명적 당으로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그 전투력과 영도력을 더욱 높이고 당이 자기의 혁명적 본분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당적 영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당적 영도를 강화하는 것은 영도적 정치조직으로서의 당의 사명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근본방도이다.

우리 당은 사람중심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노동계급의 당건설역사상 처음으로 사람과의 사업이 당사업의 기본이라는 새로운 원리를 내놓고 당적 영도를 끊임없이 강화하여 왔다.

당사업발전의 견지에서 볼 때 우리 당건설과 당활동과정은 사람과의 사업을 첫 공정으로 내세우고 사람과의 사업을 통하여 당을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을 영도하여온 과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도 밑에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당창건을 준비하는 첫 시기부터 사람과의 사업을 통하여 혁명의 골간을 꾸리고 당의 조직사상적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광범한 대중을 불러일으켜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이끌고 조국광복의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였다. 해방후 우리 당은 창건과 더불어 집권당으로 활동하면서 일관하게 사람과의 사업을 통하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었으며 당앞에 어려운 정세가 조성되고 무거운 과업이 나설수록 사람과의 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혁명을 힘있게 추동하였다.

우리는 당과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철저히 전환시키고 사람과의 사업을 통하여 우리 당의 위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며 그 영도적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 나가야 한다.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당적 영도를 강화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진 어머니당으로서의 본분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당이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는 어머니로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당이 독창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당활동의 원칙이다.

노동계급의 당은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혁명투쟁의 요구로부터 출현하였으며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는 것을 근본사명으로 한다. 당과 대중사이의 관계는 영도하고 영도를 받는 관계인 동시에 생명을 주고 받으며 운명을 보살피고 의탁하는 관계이다. 당과 인민사이의 관계는 당이 인민대중의 어머니로서 인민대중을 귀중히 여기고 극진히 사랑할 때 가장 공고하고 위력한 것으로 될 수 있다.

우리 당이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으며 자기의 영도적 지위를 끊임없이 강화할 수 있은 것은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진 어머니당으로서의 본분을 훌륭히 수행하여 왔기 때문이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을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내세웠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고귀한 정치적 생명을 안겨주고 그것을 빛내어 나가도록 이끌어 주었으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 주었다. 우리 당은 모든 활동의 중심에 인민대중을 내세우고 당사업 전반이 인민들로 하여금 사회적 인간의 보람찬 삶과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으로 되게 함으로써 말그대로 인민들이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어머니품으로 되게 되었다.

우리는 우리 당의 본성적 요구를 계속 철저히 구현하여 어머니당의 본분을 더 잘 수행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어머니당의 본분에 맞게 당사업을 벌여나가자면 인민대중을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보며 진심으로 믿고 사랑하는 주체적 관점을 구현해나가야 한다.

인민대중에 대한 당의 사랑과 믿음은 중요하게 광범한 대중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노선과 정책을 세우고 대중의 창조력을 발동하여 그것을 관철하는 데서 표현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를 회고하시면서 대중은 혁명의 진리를 가르쳐준 현명한 스승이었다고 교시하시었다. 군중을 선생으로 보고 내세우는 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활동원칙, 사업원칙이다. 우리는 언제나 군중에게서 허심하게 배우고 군중을 존경하며 군중의 힘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우리는 사람과의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 당의 모든 노선과 정책이 인민대중의 지향과 의사를 완벽하게 반영한 철저히 자주적이고 인민적인 노선과 정책으로 되게 하며 광범한 대중의 창조력을 높이 발양시켜 그것을 현실에 더 잘 구현해나가야 한다.

어머니당의 사랑과 믿음은 또한 사람들의 사회정치생활과 물질문화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피는 데서 표현된다. 사회적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생활이며 정치적 생명이다. 우리는 당사업, 사람과의 사업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치적 생명문제에 첫째가는 주목을 돌려야 하며 자식의 생명에 대하는 어머니의 심정

으로 인민들의 정치적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아끼며 그들이 정치적 생명에 자그마한 흠집도 남기지 않고 끝까지 빛내어 나가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 그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인민대중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일군들의 인민적인 기풍과 품성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우리는 모든 일군들이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할 각오를 가지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분투하도록 하며 소박하고 겸손하며 공명정대하고 청렴결백한 인민적 품성을 지니도록 하여야 한다.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당적 영도를 강화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또한 당적, 정치적 방법을 구현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노동계급의 당은 집권당으로서 권력을 쥐고 있지만 권력에 의거하는 방법으로는 인민대중의 의사에 맞는 정치를 실시할 수 없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모든 권력이 인민대중 자신의 권력이며 따라서 권력에 의거하여 관료, 행정식으로 인민대중을 다스리는 것은 사회주의권력의 본성에 배치된다. 관료주의적 사업방법과 행정식 사업방법은 당과 국가가 인민들의 생명과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사회주의사회에서 매우 큰 해독을 끼친다. 당이 이러한 사업방법을 허용하면 인민대중의 지지와 신뢰를 잃게 되며 자기의 존재 자체를 위태롭게 한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늘 인민대중에게 세도를 쓰고 관료주의를 부리는 것은 스스로 독약을 먹는 것과 같다고 강조하고 있다. 물론 사회주의사회에서 관료주의적, 행정식 방법을 반대한다고하여 당이 집권당으로서의 영도권을 포기하거나 국가권력을 약화시키는 길로 나가서는 안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관료주의적, 행정식 방법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당적 지도와 인민정권기관들의 사업을 그 본성에 맞게 하지 않는데 원인이 있다. 당은 자기의 영도적 지위를 계속 강화하면서 당적 지도를 노동계급의 당의 정치방식에 맞게 하며 인민정권기관들도 사회주의정치의 본성에 맞게 사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주체형의 당의 본성에 맞는 당사업방법을 확립하는 것을 당건설과 당활동의 근본문제의 하나로 제기하고 창건 첫날부터 당사업에서 정치적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벌여왔다. 우리 당은 전통적인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을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구현하여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고 그것을 전당에 일반화함으로써 한때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당안에 밀수입하였던 관료주의적, 행정식 사업방법을 극복하고 사람과의 조직정치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혁명적 사업방법, 당적, 정치적 방법을 확립하였다. 우리는 혁명발전의 요구와 간고한 투쟁속에서 세련되지 못한 새세대일군들이 끊임없이 늘어나는 조건에 맞게 당적, 정치적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한다.

당적, 정치적 방법으로 사업한다는 것은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해설과 설복으로 사람들에게 당의 의도를 알려주고 일깨워주어 그들 스스로가 움직이도록 한다는 것이다. 명령하고 지시하는 방법으로는 사람들의 사상을 움직일 수 없다. 우리는 일군들속에서 명령과 지시로 사람들을 움직이려는 경향을 철저히 없애고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의 첫 공정으로 틀어쥐고 나가며 대중이 당의 의도를 진심으로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발동될 때까지 설복과 교양을 꾸준하고 실속있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전당이 군중 속에 들어가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일군들이 늘 군중 속에 들어가 그들과 고락을 같이하면서 대중을 교양하고 동원하며 또 그들 자신이 군중에게서 배우고 수양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당적, 정치적 방법을 확립하자면 낡은 사업방법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낡은 사업방법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일군들의 머리속에 착취사회의 사상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군들을 주체의 영도이론과 영도방법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낡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뿌리빼기 위한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여 당안에 혁명적인 사업방법, 당적, 정치적 방법을 더욱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당적 영도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당사업체계도 더욱 튼튼히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도 당내부사업체계를 더 잘 세워야 한다.

우리 당안에는 이미 간부들과 당원들과 군중과의 사업체계가 정연하게 서있으며 그것은 오랜기간의 실천투쟁속에서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되었다. 우리는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당내부사업체계를 심화발전시켜 당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더욱 철저히 전환시켜야 한다.

전당이 사람과의 사업을 하는 체계는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 천이 만을 교양하고 발동하는 사업체계이다. 당일군이건 행정일군이건, 웃기관에서 일하는 일군이건 아래기관에서 일하는 일군이건 그리고 간부이건 일반당원이건 다 사람과의 사업을 중요한 혁명임무로 여기고 적극 벌여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우의 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가 군중을 교양하는 사업체계를 확고히 세움으로써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이 사람과의 사업의 대상으로 되는 동시에 사람과의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지도를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여 진행할 수 있게 당적 영도체계를 바로세워야 한다.

우리 당은 각급 당위원회가 해당단위의 최고지도기관으로서 모든 사업을 지도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정치적, 통일적 지도를 보장하는 동시에 사람과의 사업을 통하여 대중의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조직동원할 수 있는 사업체계를 세워놓았다. 우리는 앞으로도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밑에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당적 영도체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는 각급 당위원회가 해당단위의 국가기관, 경제기관, 문화기관, 사회단체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정치적 방법으로 지도하며 모든 부문일군들이 당위원회에 튼튼히 의거하여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면서 사업하는 제도와 질서를 확고히 세워야 한다.

특히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 정치적 지도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은 노동계급의 당의 영도 밑에서만 옳게 진행될 수 있다. 우리는 경제건설에 대한 당의 정치적 지도체계를 확고히 고수하고 더욱 강화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가 혁명의 정치적 임무와 사회주의의 본성에 맞게 발전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경제사업에 대한 당의 정치적 영도를 강화하려면 우리 당이 창조한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밑에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는 원칙에서 경제를 관리운영하는 체계이다. 각급 당위원회들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경제사업에 대한 키잡이를 바로하고 모든 일군들이 당위원회에서 토의결정된 방향에 따라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면서 경제관리를 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당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고 사람과의 사업을 통하여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 영도를 실현함으로써 우리 당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해나가야 한다.

오늘 창건 45돐을 맞이하는 우리 당은 그 어느 때보다도 조직사상적으로 굳게 결속되어 있으며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위대한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주체형의 첫 당조직이 결성되던 때로부터 백전백승의 혁명적 당으로 강화발전된 오늘에 이르기까지 60성상 우리 당건설의 전노정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변함없이 당의 수위에서 전당과 전체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조직영도하고 계시며 당을 따르고 당의 영도를 받들어 나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 열의는 어느 때보다도 높다. 우리 인민은 조선노동당의 영도에서 자기들의 광명한 미래를 내다보고 있으며 당의 영도가 있는 한 주체의 혁명위업을 반드시 완성할 수 있다는 필승의 신념을 간직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영도 밑에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속에서 혁명과 건설을 이끌어 나가는 우리 당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뿐이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조선로동당창건 54돐에 즈음하여

백두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력사의 풍랑을 진두에서 헤쳐나가는 영광찬란한 주체의 당,조선로동당이 창건된 때로부터 54년이 되였습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뜻깊은 창당절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삼가 무상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의 혁명전통에 토대하여 창건하신 주체형의 혁명적당,조선로동당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아래 주체위업의 진군로를 자랑찬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으며 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높이 쌓아올렸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유사이래 처음으로 로동자계급의 당은 수령의 당으로 되여야 한다는 독창적인 사상을 천명하시고 전당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조선로동당을 완전무결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습니다.

조선로동당이 온 사회 주체사상화의 기치아래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수령,당,대중의 일심단결을 실현하여 혁명의 주체를 비상히 강화하고 경제,문화 건설에서 눈부신 비약과 혁신을 창조하여 민족번영의 전성기를 펼친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이룩된 경이적인 업적이며 위대한 승리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특히 민족최대의 국상을 당한 이후 지난5년동안 크나큰 상실의 아픔과 중첩되는 난국을 불굴의 완강한 의지로 이겨내시며 전당,전군,전민을 이끄시여 주체의 혈통을 굳건히 수호하시고 로동당시대의 보다 찬란한 개화기를 열어놓는 불멸의 업적과 위훈을 창조하시였습니다.

조선로동당이 위대한 수령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고 자기의 고유한 사상과 혈통을 순결하게 고수하여 시대의 각광을 받고있는것도 수령,당,대중의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으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전례없이 악랄한 반북공세를 짓부시고 적들에게 조선의 맛,조선의 본때를 보여주어 세계를 경탄시킨것도 수령을 결사옹위하고 혁명의 붉은기를 고수할 결사의 의지로 ≪고난의 행군≫,강행군을 락원의 행군으로 전환시켜 강성대국건설의 도약대를마련한 력사의 기적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걸출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입니다.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출중한 정치적수완을 지니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2년전 당의 총비서,최고수위에 높이 모심으로하여 조선로동당은 사상적순결성과 조직적공고성이 최상의 경지에 이른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더욱 강화발전되고 하늘이 무너지고 지구가 깨여진다 해도 끄떡없이 붉은기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로숙하고 세련된 정치적참모부로 명성을 떨치고있습니다.

오늘 강성대국을 향해 힘차게 달리는 이북이 사상강국,군사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과시하며 경제강국건설을 위해 준마를 타고 구보로달려 생산과 건설에서 승리의 개가를 높이 올리고있는 찬란한 현실은 바로 경애하는 장군님을 총비서로 모신 조선로동당의 위대성과불패성을 펼쳐보인 장엄한 화폭입니다.

자주성과 반제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진하는 조선로동당은 국제공산주의운동을 발전시키고 쁠럭불가담운동을 강화하여 인류의 자주위업을 힘차게 추진시키기 위한 숭고한 국제적임무를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와 전반적세계혁명 위업수행에 거대한 공헌을 하고있습니다.

자주시대의 혁명적당건설과 당활동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민중의 자주위업과 사회주의위업을 필승의 한길로 견인하는 가장 존엄있고 권위있는 조선로동당을 가지고있는것은 주체조선의 크나큰 영광이고 우리 민족의 더없는 자랑입니다.

진정 조선로동당을 주체위업완성의 세련된 정치적참모부로 강화발전시키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시대의 가장 걸출한 수령이시며 온겨레와 인류가 우러러 따르는 희세의 위인 21세기의 태양이십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조선로동당이 이룩한 자랑찬승리와 거대한 업적은 우리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민중에게 불퇴전의 용맹과 불굴의 신념을 안겨주고 자주,민주,통일운동을 중단없이 가속화해 나갈수 있게 하는 투쟁의 활력소로 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의 당건설사상과 리론,필승의투쟁방략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한민전≫은 격변하는 정세파동과 가혹한 파쑈폭정속에서도 좌절과 체념을 모르고 대오의 조직사상적결집을 더욱 굳건히 다지고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실현한애국적전위대로 성장강화되였으며 변혁운동은 주체의 궤도를 따라 상승발전하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수 있었습니다.

오늘 남녘에서 민족민주운동의 기본전략좌표인 반미자주화운동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통화기금의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투쟁으로 전례없이 확산고조되고있으며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기운이 각계층 민중속에서 거세게 분출하고있습니다.

특히 지난 8.15통일대축전은 남과 북,해외가 처음으로 3자련대련합을 실현한 민족통일운동사에 특기할 장거로서 우리 남녘민중에게 통일조국의 광명한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날로 고양되는 반미자주통일기운에 질겁한 미제와 그 주구들은 애국민중세력을 거세말살하기 위한 파쑈탄압과 개량화책동에 광분하고있으나 주체의 기치따라 필승의 신념과 의지에 넘쳐 자주,민주,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민중의 거세찬 진출을 결코 가로막을수 없습니다.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민중은 만민이 우러러 칭송하는 백두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령수로 모신 자긍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장군님을 절대적으로 숭앙하고 따르는 길에 조국통일과 민족만대의 번영이 있다는것을 굳게 확신하고있습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대오의 주체사상화에 박차를 가해 ≪한민전≫의 조직성과 전투성을 가일층높이고 막강한 지도력을 발휘함으로써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민족민주운동에서 애국적전위대로서의 책무를 다할것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안녕과 만년장수는 우리 민중의 간절한 소망이며 조국통일의 확고한 담보입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남녘의 모든 전위투사들과 각계 민중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주체88(1999)년 10월 10일
서 울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조선노동당창당 55주년에 즈음하여

찬란한 태양의 빛발아래 조국과 민족의 앞길에 승리와 번영의 새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장엄한 역사적 시기에 맞이하는 조선노동당창당 55주년에 즈음하여 주체의 당의 총비서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은 다함없는 경모와 충성의 한 마음을 담아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조선노동당이 걸어 온 55성상은 위대한 태양을 높이 모시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불굴의 신념과 의지로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연대들을 넘고 넘으며 세기적인 기적과 위훈을 수놓아 온 자랑찬 승리와 영광의 역사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혁명의 초행길을 헤치시며 역사상 처음으로 주체형의 당을 창건하시고 이끄시어 조선노동당을 자주성이 강한 필승불패의 위대한 당으로, 영도의 계승문제를 빛나게 해결한 전도양양한 전투적인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었습니다.

일찍이 ≪ㅌ.ㄷ≫의 결성으로부터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왕성한 투지와 지칠줄 모르는 열정을 다 바치시어 조국과 민족, 시대와 역사 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위대한 수령님은 영광찬란한 조선노동당과 더불어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십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영도하여 오신 주체의 당의 자랑찬 역사를 빛나게 계승해 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유례없이 간고하고 준엄한 혁명의 폭풍우를 진두에서 헤치시며 수십여성상 조선노동당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끄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인 통찰력으로 주체의 당건설노선을 발전풍부화하시고 어버이수령님의 사상과 이론, 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시어 조선노동당을 명실공히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당의 위업을 수령의 영생위업으로 되게 하신 것은 조선노동당역사에서 이룩된 가장 빛나는 위훈이며 국제공산주의운동사에서 특기할 기념비입니다.

위대한 정치가, 희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심으로 하여 조선노동당은 전당에 유일적 영도체계가 확고히 서고 사상적 순결성과 조직적 공고성이 최상의 높이에 이른 필승불패의 당으로, 혁명과 건설을 언제나 승리에로 이끄는 노숙하고 세련된 전투적인 당으로, 민중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 주는 어머니당으로 더욱 강화발전되었습니다.

더욱이 군대는 곧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는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고 무적강군의 위력으로 제국주의연합세력의 압살공세를 쳐물리치시며 세계정치사에 일찍이 있어 본 적 없는 선군혁명의 새 역사, 강성부흥의 새 시대를 펼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가 있어 조선노동당의 권위와 위신은 비상히 높아지고 주체조선은 자주의 강국으로 거연히 솟아 찬란히 빛나고 있습니다.

가장 엄혹하고 간고한 20세기 시련의 시기를 철의 의지와 무비의 담력으로 헤치시며 주체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시고 조선노동당의 역사가 어버이수령님의 영생의 역사로 영원히 흐르게 하신 것은 오직 만고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만이 이룩하실 수 있는 불멸의 대공적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가 있기에 조선노동당은 오늘 전당, 전군, 전민을 불러 일으켜 **김정일**결사옹위정신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 나가며 강성대국건설에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과 변혁을 이룩하고 창당 55돌을 주체사상의 승리로, 20세기를 결속하는 역사적인 대정치축제로 빛내이므로써 21세기에 무궁번영할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휘황한 앞길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애국애족의 숭고한 조국통일관을 지니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통일유훈을 관철할 구상을 펼치시며 온 겨레를 통일위업실현에로 불러 일으키시고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인 비전향장기수들을 어머니당의 품에 뜨겁게 안아 주신 것은 조선노동당의 인덕정치, 광폭정치의 위력과 활력을 과시한 역사적 사변이며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자주시대의 위대한 영수로 높이 모시어 제국주의자들의 ≪사회주의종말론≫은 격파분쇄되고 주체사회주의는 자주와 평화, 진보와 번영을 위한 진보적 인류의 희망의 등대로 되고 있으며 세계사회주의운동과 자주화위업은 조선노동당을 중심으로 주체의 궤도따라 새롭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국제공산주의운동사에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모신 조선노동당처럼 주체사상으로 위대하고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로 위대하며 불멸의 업적으로 위대한 영광스러운 당은 없으며 반만년 민족사에 노동당시대처럼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영예가 온 세상에 떨쳐진 궁지높은 시대는 없었습니다.

참으로 천재적인 예지와 비범한 영도천품, 고매한 인덕과 불멸의 공적으로 위대한 시대를 창조하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곧 조선노동당이시며 21세기의 찬란한 태양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영도아래 조선노동당이 달성한 자랑찬 승리와 성과들은 우리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애국민중에게 불퇴전의 용맹과 필승의 신념을 백배해 주고 있습니다.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의 전위당건설사상과 이론, 백승의 투쟁방략이 있어 우리 ≪한민전≫은 식민지파쑈통치의 가혹한 폭정 속에서도 굴함없이 각계민중의 자주, 민주, 통일투쟁을 선봉에서 이끄는 애국적 전위대로 성장강화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남녘의 민심은 애국애족의 위대한 정치로 민족단합과 조국의 자주적 통일위업실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시어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온 세상에 떨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민족의 구세주로 높이 우러르며 꿈결에도 뵙고 싶은 어버이장군님께로 끝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은 우리의 승리이시고 미래이시라는 것을 가열찬 투쟁을 통해 철의 진리로 새긴 ≪한민전≫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김정일**장군님께 무한이 충직한 신념과 의지의 강자로 더욱 억세게 준비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을 실행하기 위한 반미자주통일대진군을 더욱 힘차게 전개하여 조국통일의 새 아침을 반드시 앞당겨 오고야 말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만년장수는 우리들의 가장 큰 행복이며 염원입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민중의 한결같은 소망을 담아 민족의 태양이시고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주체89(2000)년 10월10일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 울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

주체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체형의 당,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신 4주년과 조선로동당창건 56주년에 즈음하여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의 다함없는 경모와 충성의 마음을 담아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신 것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영도하여 오신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을 강화발전시키며 조국통일과 세계 자주화위업을 이끌어나가는데서 획기적 의의를 가지는 일대 역사적 사변이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민족과 인류의 앞길을 진두에서 개척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심으로써 주체의 전위당인 조선로동당은 어버이수령님의 당건설위업을 승리적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갈수 있게 되었으며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을 힘있게 밀고 나가는 불패의 위력을 더욱 높이 밝히고 주체시대의 향도적 역량으로써 절대적 지위와 권위를 세계 만방에 찬연히 빛내일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선로동당이 걸어온 영광스러운 행로는 위대한 장군님은 곧 조선로동당임을 실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장군님의 사상이자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 지도이론, 지도방법이며 장군님의 영도이자 조선로동당의 승리와 영광이며 장군님의 덕망이자 조선로동당의 인덕정치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모심으로하여 현 시대의 가장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당, 가장 애국적이고 애족애민적인 어머니당 조선로동당의 위상은 최상최고의 경지에 이르고 당의 양양하고 창창한 앞날은 확고히 기약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조선로동당의 창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의 독창적인 당건설사상과 탁월한 영도의 빛나는 결실이였으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주체형의 당의 탄생을 선언한 일대 경사였습니다.

조선로동당의 향도아래 수천년 민족사에 빛마저 잃었던 조선은 세인이 선망하는 ≪**김일성** 조선≫, ≪주체의 조국≫으로 자랑 떨치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주체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며 조선로동당을 영원한 주체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는 만년토대를 굳건히 다지심으로써 당과 혁명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를 완전무결하게 해결하시는 특출한 업적을 이룩하시었습니다. 일찍이 ≪ㅌ.ㄷ≫의 결성으로부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70성상의 장구한 기간 조국과 민족, 시대와 인류앞에 쌓으신 만고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어버이주석님은 조선로동당과 더불어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십니다.

조선로동당은 21세기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총비서로 높이 모심으로써 자기 발전의 새로운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하였으며 그 영광된 노정위에 무비의 위훈을 찬란히 수놓았습니다. 조선로동당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당의 수위에 높이 모심으로하여 전당에 유일적 영도체계가 확고히 서고 사상적 순결성과 조직적 공고성이 최상의 높이에 이른 필승불패의 위대한 당으로 주체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인도해나가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강화발전되었습니다.

오늘 조선로동당이 반석같은 조직사상적 기초와 완벽한 영도방법을 겸비한 노숙하고 전투적인 주체혁명의 참모부로 민중과 혈연적으로 일체화된 어머니당으로, 어버이주석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영원한 주체형의 당으로 강화발전된 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존함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습니다. 어버이주석님의 주체위업을 한치의 편차도 없이 빛나게 완성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영도로 하여 조선로동당은 당의 창건자이시고 만민의 어버이이신 **김일성**주석님의 서거이후 닥쳐든 천겹만겹의 역경과 시련속에서도 변함없이 주체의 기치, 사회주의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20세기를 주체조선의 승리의 세기로 빛내이고 21세기의 첫 진군을 힘차게 다그쳐 나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독창적인 선군사상을 내놓으시고 무적강군의 위력으로 제국주의 고립압살책동을 쳐물리치며 세계정치사상 처음보는 선군시대의 새 역사, 강성부흥의 새 시대를 펼쳐주시였기에 조선로동당의 권위와 위신은 하늘에 닿아 있고 주체조선은 사상강국, 정치강국, 군사강국으로 그 위용을 과시하며 경제강국건설의 북소리 높이 울려가고 있습니다. 가장 엄혹한 시련의 세기를 철의 의지와 무비의 담력으로 헤치시며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시고 조선로동당의 역사가 어버이주석님의 영생사로 무궁토록 흐르게 하신 것은 숭고한 도덕의리의 최고화신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만이 이룩하실수 있는 국제공산주의운동사에 특기할 불멸의 대공적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걸출한 영도가 계심으로하여 오늘 조선로동당은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유기체를 이룬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거창한 위훈과 변혁의 새 역사를 창조하며 새 세기를 위대한 **김정일**세기로 빛나게 장식해 가고 있습니다. 하기에 이북민중은 근로민중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다바쳐온 조선로동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며 그품에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수령결사옹위, 결사관철의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당의 노선과 정책을 적극 옹호관철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애국애족의 광폭정치로 7천만 겨레를 한품에 안아 통일성업에로 이끌어주시는 민족대단결의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류태양의 거룩한 혁명실록을 펴놓으시며 역사적인 러시아연방방문을 비롯한 정력적인 대외활동으로 세계자주위업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고 승리에로 이끄시기에 조선로동당은 세계평화의 수호자, 세계정치발전의 주도자, 인류자주화위업실현의 창조자로 공인되어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노동자계급의 당이 많지만 조선로동당처럼 혁명의 길을 개척한 수령과 그 위업에 무한히 충실한 당, 사상과 영도가 위대하고 활동이 노숙하며 전도가 양양한 당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참말로 천재적 예지와 출중한 영도력, 숭고한 덕망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신 조선로동당은 승리와 영광, 행복과 번영의 상징이며 백전백승의 위대한 기치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도아래 조선로동당이 달성한 자랑찬 성과와 불멸의 업적은 우리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민중에게 불패전의 용맹과 필승의 신념을 백배해주고 있습니다.

어버이주석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의 전위당건설사상과 이론, 투쟁방략이 있음으로하여 우리 한민전은 식민지압제의 어둠속에서도 좌절과 체념을 모르고 대오의 조직사상적 결집을 굳건히 다지고 사상의 일색화와 영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실현한 애국적 전위대로 성장발전할수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마음의 기둥으로, 운명의 구세주로 굳게 믿고 끝없이 숭배하며 따르는 것은 우리 전위투사들과 애국민중의 정치적 신앙이며 불변의 양심입니다. 지금 남녘의 민중은 위대한 장군님을 세계 정치원로로, 21세기 태양으로 모신 우리 민족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존엄높은 민족임을 자부하며 장군님만을 받들고 자주통일의 새날을 앞당기고저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한민전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은 일편단심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충정을 안고 장군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해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통일대행진을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조국통일의 새 아침을 기필코 앞당겨오고야 말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건강과 안녕은 이남민중의 간절한 소원이며 기쁨입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민중의 한결같은 소망을 담아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영원한 청춘으로 젊어 계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주체90 (2001)년 10월 8일 서울



조선로동당

정치사전

조선혁명의 참모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고무자.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1945년 10월 10일에 창건되였다. 일제통치의 가장 암담한 시기에 조선혁명의 진두에 나서신 위대한수령님께서는 혁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기 위하여 옳은 투쟁강령을 가지고 대중에 의거하여 반일민족해방투쟁을 벌려 나가는 혁명의 전위조직을 내올것을 구상하시고 1926년 10월 17일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시였다. 《ㅌ.ㄷ》의 결성은 우리 나라에서 종전의 당과 구별되는 새 형의 당, 주체형의 혁명적당 창건을 위한 투쟁의 출발점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20년대 후반기에 혁명적당 창건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시여 1930년에 있은 력사적인 카륜회의에서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을 제시하시면서 기층당조직을 먼저 내오고 그것을 확대강화하는 방법으로, 자주적으로 당을 창건할데 대한 독창적인 로선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30년 7월 초 카륜에서 몸소 키우신 새 세대청년공산주의자들로 첫 당조직을 무으시였다. 첫 당조직은 우리 당의 시원으로 되는 영광스러운 당조직이였다. 위대한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첫 당조직을 모체로 하여 각지에 당조직들을 확대하고 그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당조직지도체계를 세우시였으며 1934년에는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를 조직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의 조직은 각급 당조직들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체계를 세우고 당조직건설사업을 더욱 활발히 조직전개해 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다. 위대한수령님께서는 1930년대 전반기에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1936년 2월 남호두에서 열린 조선인민혁명군군정간부회의에서 당창건준비사업을 전국적범위에서 힘 있게 벌려 정세가 조성되면 제때에 당창건을 선포할수 있도록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축성할데 대한 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을 령도하시는 과정에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반석같이 다지시였으며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룩하시였다. 위대한 수령**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당건설의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광복후 지체없이 우리 당을 창건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이룩하신 당건설의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광복후 지체없이 각 지방에 당조직들을 내오시고 1945년 10월 10일 북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를 창설하시였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여 온 당창건위업을 완성한 력사적사변이였다.》(《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10페지)

우리 당의 창건은 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는 새 형의 혁명적당의 탄생을 온 세상에 알리는 장엄한 선언이였다. 당창건의 력사적위업이 완성됨으로써 우리 나라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은 백전백승하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을 가지게 되였다. 조선로동당은 우리 나라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의 선봉적, 조직적 부대이며 근로대중의 모든 조직들가운데서 가장 높은 형태의 정치조직이다. 조선로동당은 조선민족과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한다. 조선로동당은 우리 나라 로동자, 농민, 인테리 등 근로자들가운데서 근로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몸 바쳐 싸우는 선진투사들로써 조직되였다. 조선로동당은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체계인 위대한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삼는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그것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발전시킨다.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범위에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조선로동당은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적극 투쟁한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랑찬 투쟁행로를 걸어 왔다. 1946년 8월 다른 근로자당과 합당하여 근로대중의 통일적당으로 강화발전된 우리 당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불패의 당으로 더욱 장성강화되였다.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의 조건에서 소집된 여러차례의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계기로 당이 조직사상적으로 강화되였으며 전후 당 제3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1956년 8월전원회의를 계기로 우리 당 사업에서 주체가 더욱 튼튼히 서고 당의 통일단결이 일층 강화되였다. 1960년대에 당 제4차대회가 당건설분야앞에 제시한 과업을 관철하는 투쟁을 통하여 당의 통일단결이 보다 강화되고 당의 령도적역할이 높아 졌으며 당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하고 대중을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 세우는 사업에서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되였다. 특히 1967년 5월에 있은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를 계기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 왔다. 1970년대에 우리 당은 자기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올라 섰다. 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며 그에 기초하여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할데 대한 당사업의 총적과업을 견결히 관철함으로써 우리 당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며 우리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할수 있는 조직사상적기초가 튼튼히 다져 졌다.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진군속에서 우리 당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 나고 우리 당은 주체형의 당으로서의 혁명적 성격과 면모를 더욱 뚜렷이 하였다. 1980년대에 우리 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실현해 나가는 위대한 당으로서 보다 힘찬 진군을 다그치고 있다. 우리 당은 사상성과 조직성에서, 대중과의 련계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불패의 전투대오로 더욱 장성강화되였다. 참으로 조선로동당은 불멸의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침으로 하여 건설되고 활동하는 자주적인 당이며 전당에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서고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철석같이 통일단결된 위력한 당이며 조직성과 규률성이 강하고 인민대중과의 혈연적련계밑에 그들을 불러 일으켜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불패의 당이다. 조선로동당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였다. 우리 당은 류례 없이 간고하고 복잡한 혁명의 길을 헤치며 두 단계의 사회혁명을 수행하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 뒤떨어 졌던 우리 나라를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와 위력한 자립적민족경제, 발전된 민족문화를 가진 부강한 사회주의 나라로 전변시켰다. 우리 당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을 틀어 쥐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힘 있게 밀고 나감으로써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는 투쟁에서 끊임없는 전진을 이룩하고 나라의 전반적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우리 당은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을 수호하고 갈라 진 조국을 통일하며 국제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불멸의 업적을 쌓아 올렸다. 우리 당은 주체의 기치를 들고 안팎의 계급적원쑤들, 온갖 기회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치렬한 투쟁도 하고 거창한 경제건설사업도 령도하여 공산주의에로의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해 오는 행정에서 더욱 세련되고 로숙해 졌다.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뚫고 꿋꿋이 전진하며 인민들의 모든 투쟁을 곧바른 승리의 길로 능숙하게 이끌어 나가는 우리 당의 위력과 령도력은 날을 따라 더욱 힘 있게 과시되고 있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 앞에 쌓아 올린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전체 조선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 있으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의 발전에 기여한 불멸의 공헌으로 하여 세계혁명적인민들로부터 높은 존경을 받고 있다. 우리 당의 전도는 양양하며 우리의 혁명투쟁은 더욱 보람찬것으로 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싸워 나가는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조선로동당 당기



(평양 10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의 당기에는 붉은색 바탕의 기폭에 마치와 낫, 붓이서로 한곳에 교차되여 있는 당마크가 새겨 져 있다.

주체35(1946)년에 제정된 이 당마크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숭고한 뜻과 불멸의 령도업적이 어리여 있다.

로동계급의 당건설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근로인민의 대중적정당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해 나가시던 주석께서는 주체35년 7월당마크를 제정할데 대한 교시를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그후 일군들이 만들어 올린 여러가지 도안초안을 보아 주시면서 당마크는 로동계급과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단결을 상징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그 방도까지 밝혀 주시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새 조국 건설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당마크 제정을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시고 여러차례에 걸쳐 그 도안들의 초안을 보시고 지도해 주시였다. 주석께서는 로동계급을 마치로, 농민을 낫으로, 지식인을 붓으로 형상하도록 하시고 그것들의 배렬 형식과 순서, 구도상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세세히 가르쳐 주시였다. 또한 누구나 당마크를 보고 마치, 낫, 붓이 놓인 순서를 잘 알수 있도록 그 자루들과 대가 구분되게 계선을 그어야 한다고 하시며 몸소 흰종이우에 도안을 그리시여 일깨워 주시였다.

당기의 붉은색기폭은 주체의 혈통, 혁명선렬들의 선혈로 물든 혁명전통의 순결성을 상징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기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표현한다. 마치와 낫, 붓이 서로 한곳에 교차되여 있는 당마크는 로동계급이 농민, 지식인과 굳게 단결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것으로서 당의 혁명적, 대중적성격을 상징한다.

이 당기는 지난 50여성상 준엄한 혁명의 폭풍우를 헤치며 승리와 영광만을 아로새겨 온 조선로동당의 상징으로 되고 있다.



조선로동당규약

(1980.10.13 6차당대회 개정)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해 창건된 주체형의 혁명적 맑스-레닌주의당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1926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공산주의적 혁명조직으로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했으며 오랜 항일혁명투쟁을 통해 당 창건을 위한 조직적, 사상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에 기초하여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우리나라에서 로동계급과 전체 근로대중의 선봉적, 조직적 부대이며 전체 근로대중조직체 중에서 최고형태의 혁명조직이다. 조선로동당은 조선민족과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한다. 조선로동당은 근로자, 농민, 근로인테리를 망라하는 근로인민들 가운데서 근로대중의 리익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의 승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선봉적 투사들로서 조직한다.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 조선로동당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해 이룩된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 발전시킨다. 조선로동당은 자본주의사상과 마찬가지로 국제공산주의 운동과 로동계급운동에서 나타난 수정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한다.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조선로동당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것을 당건설과 당활동의 기본원칙으로 삼는다.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을 기초한 전당의 사상의지적 통일단결을 단속강화한다.

조선로동당은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실시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총로선으로서 천리마운동과 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추진한다. 조선로동당은 로동계급의 영도적 역할을 높임으로써 로농동맹을 기초로 한 전조선의 각계각층 애국적 민주력량들과의 통일전선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로동당은 인민들의 물질적 및 문화적 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최고의 활동원칙으로 삼는다. 조선로동당은 사람과의 사업을 당사업의 기본으로 삼는다. 조선로동당은 모든 당사업의 기본원칙으로서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관철한다. 조선로동당은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를 촉진하고 사회주의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공고히 하며 나아가서 사회주의제도를 강화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촉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활발히 수행한다.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군대를 몰아내고 식민지통치를 청산하며 그리고 일본 군국주의의 재침기도를 좌절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남조선 인민들의 사회민주화와 생존권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조국을 자주적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통일을 이룩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투쟁한다. 조선로동당은 자주성과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원칙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단결과 국제공산주의 운동과의 연대성을 강화하고 세계의 모든 신흥세력나라 인민들과의 친선, 협조관계를 발전시키며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 운동과 자본주의 나라들의 로동계급과 그밖의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지하고 광범한 연합전선을 실현하여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와 지배주의를 반대하며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 공동위업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1장 당 원

1. 조선로동당 당원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위하여 헌신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투사이다.

2. 조선로동당 당원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확고히 무장된 조선공민으로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옹호, 관철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당규약을 준수하는 근로자들이 될 수 있다.

3. 조선로동당 당원은 규정된 후보기간을 마친 후보당원 가운데서 받아들인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입당청원자를 후보기간을 거치지 않고 직접 당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만 18세부터 입당할 수 있다. 입당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후보당원으로 입당하려는 사람은 입당청원서와 당원 2명의 입당보증서를 당세포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원이 입당할 때에 시(구역)·군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위원회의 입당보증서는 당원 1명의 보증서를 대신할 수 있다. 후보당원이 입당할 때에는 입당청원서와 입당보증서를 당세포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당세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입당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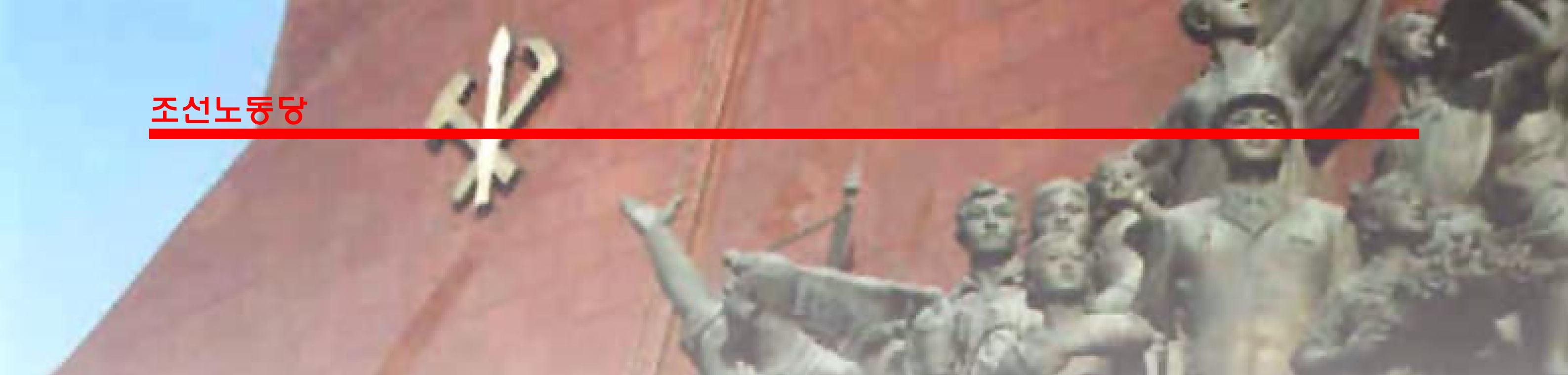
2) 입당보증인은 최소한 2년이상의 당년한을 가져야 한다. 입당보증인은 피보증인의 사회, 정치생활을 잘 알아야 한다. 입당보증인은 보증의 진실성에 대하여 당앞에 책임을 진다.

3) 입당문제는 개별적으로 심사하며, 당세포회에서 입당청원자의 참가밑에 토의 결정하며 그 결정은 시(구역)·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입당보증인은 입당문제를 토의하는 회의에 참가하지 않아도 된다. 시(구역)·군당위원회 입당문제에 대한 당세포 결정을 1개월 내에 심의 해결하여야 한다.

4) 특수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의 입당문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특별히 제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심의한다.

5) 타당에서 출당한 사람이 입당하려면 최소한 3년이상의 당년한을 가진 당원 3명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타당에서 평당원으로 있었던 사람의 입당은 시(구역)·군 당위원회가, 시(구역)·군 급의 위원 및 간부로 있었던 사람의 입당은 관할 도(직할시)당위원회가, 도(직할시) 및 중앙위원회 간부로 있었던 사람의 입당은 당중앙위원회가 각각 최종적으로 비준한다.

6) 후보당원의 후보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당세포 후보당원에게 당원의 자격을 갖추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당세포 후보당원의 후보



기간이 끝남에 따라 당원심사총회에서 그의 입당자격 여부를 심의 결정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후보당원의 후보기간이 끝나지 않아도 그를 당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만일 후보당원의 입당준비 정도가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보기간을 1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후보당원이 후보기간을 마친 후에도 자격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보명부에서 삭제된다. 후보기간을 연기하거나 후보당원을 명부에서 삭제시키는 당세포 결정은 시(구역) ·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7) 후보당원이 후보기간을 거치지 않고 직접 당원이 된 자의 입당일시는 당세포회에서 입당을 결정한 날로 한다.

4. 당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당원은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서 있어야 한다. 당원은 당과 수령에 무한히 충성하고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고히 무장하며 당의 요구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옹호하며 이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당원은 당의 혁명전통을 깊이 연구 체득하고 그것을 옹호하며 로동과 생활에 적용해 나가야 한다. 당원은 당의 유일사상에 어긋나는 자본주의사상, 봉건적 유교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 종파주의, 지방주의 및 가족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고수하여야 한다.

2) 당원은 당성을 부단히 단련하기 위한 높은 조직의식을 가지고 당생활에 자발적으로 참가하여 자신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한다. 당원은 당회의와 당학습을 비롯한 당의 조직 및 사상생활에 충분히 참가하고 당조직의 결정과 자기에게 부여된 임무를 정확히 수행하여 자신의 당생활을 정기적으로 총화하며 비판과 사상투쟁을 통하여 자기를 혁명가로 단련시켜야 한다. 당원은 직위와 공로에 관계없이 전체당원들에게 다같이 적용되는 당규율을 자발적으로 준수하고 규율 위반에 대하여는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3) 당원은 혁명적인 학습기풍을 확립하고 자기의 정치, 사상, 문화 및 기술 수준을 부단히 향상시켜야 한다. 당원은 주체사상, 당의 로선과 정책 및 혁명전통을 깊이 학습하며 경제 및 선진과학기술 지식을 습득하고 현실상황을 료해하며 자신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당원은 혁명적 군중로선을 관철하며 일상적으로 대중과 함께 일하여야 한다. 당원은 대중에게 당의 로선과 정책을 일상적으로 해설하여 주며 그들을 교양 개조하여 당주위에 굳게 결속시키고 혁명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그들을 동원하며, 대중의 의견을 정확히 접수하여 그들의 요구를 제때에 해결하여 주어야 한다.

5) 당원은 로동과 생활에서 대중의 규범이 되며 모든 사업에서 선봉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당원은 집단의 혁명화 투쟁을 지도하며 자신과 가족의 혁명화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 당원은 로동을 사랑하고 로동법률을 자발적으로 지키며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서며 자기가 맡은 사업에 정통하며 맡은바 임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당원은 보수주의와 소극성을 반대하며 기술혁신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로동생산 능률을 부단히 제고하고 기업관리운영에 솔선 참가하며 국가와 사회재산을 애호하여 나라의 경제를 절약해야 한다.

6) 당원은 고상한 공산주의적 도덕성을 소유하고 조직과 집단을 사랑하며 조직과 집단의 리익을 위하여 개인의 리익을 희생할 각오가 있어야 한다. 당원은 높은 혁명적 자립정신을 발휘하고 모든 애로에 대하여 과감히 투쟁해야 한다. 당원은 항상 소박, 솔직, 겸손하여야 하며 사리와 공명을 탐내지 말고 당과 함께 솔직하며, 인간성이 풍부하고 문화적이어야 하며 국법과 사회질서 및 공중도덕 준수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

7) 당원은 사회주의조국을 튼튼히 보위하여야 한다. 당원은 일상적으로 긴장된 동원 태세를 갖추고 군사지식을 배워 적의 침략으로부터 전취물을 튼튼히 보위하며 조국통일의 대사변에 대비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8) 당원은 혁명규율과 질서를 준수하고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안일과 나태함이 없이 혁명적인 경각성을 높이고 당, 국가 및 군사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9) 당원은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하여 당조직에 보고하여야 한다. 당원은 당의 유일사상에 어긋나는 현상뿐만 아니라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나는 모든 결함과 부정적인 경향을 반대하여 투쟁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당중앙위원회에 이르기까지 관계 당위원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10) 당원은 규정된 당비를 매달 납부하여야 한다.

5. 당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당원은 당회의와 당출판물을 통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 수행 및 당사업 발전을 위하여 도움이 되는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2) 당원은 당회의에서의 투표권과 각급 당조직의 지도기관 선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3) 당원은 당회의에서 정당한 리유와 근거가 있는 한 어떤 당원을 막론하고 비판할 수 있으며, 당의 유일사상에 어긋나는 한 어떠한 지시의 준수도 거절할 수 있다.

4) 당원은 자기의 사업과 생활에 대한 문제를 토의 결정하는 당회의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 당원은 당중앙위원회에 이르기까지 각급 당위원회에 어떤 신소나 청원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6) 후보당원의 의무는 당원의 의무와 같다. 후보당원의 권리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결의권이 없는 이외에는 당원의 권리와 같다.

7) 당의 규율을 위반하는 당원은 당의 책벌을 받는다.

① 당의 유일사상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당의 로선과 정책을 반대하여 파벌조성행위를 하나 적과 타협하는 등 당에 엄중한 손실을 끼친 당원은 출당시킨다.

② 당원의 칭호를 박탈하지 않을 정도의 과오를 범한 당원에 대하여는 과오의 경중에 따라 문책, 엄중경고, 또는 권리정지나 후보당원으로 강등하는 책벌을 적용한다.

③ 당책벌의 목적은 과오를 범한 당원을 교양하는데 있다. 당의 책벌은 과오를 범한 동기와 원인 및 과오의 결과를 상세히 규명한 후에 신중하게 과해야 한다.

④ 당책벌은 본인의 참가하에 그가 속한 당세포회에서 토의 결정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본인이 참가하지 않아도 책벌을 토의 결정할 수 있다. 중앙위원회, 도(직할시), 시(구역) · 군 당위원회 당규율을 위반한 당원에게 직접 책벌을 내릴 수 있다. 당원에게 책벌을 적용할데 대한 당세포의 결정은 시(구역) · 군 당위원회 비준을 받아야 하고 당원자격 박탈에 대한 당세포의 결정은 도(직할시)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출당에 대한 당세포의 결정이 비준되기 전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원의 당증을 회수하지 못하며 당생활 참가를 허용해야 한다.



⑤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에 대한 책벌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도(직할시), 시(구역) · 군 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에 대한 책벌은 해당 당위원회의 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당세포는 중앙위원회, 도(직할시), 시(구역) · 군 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이 당규율을 위반한 경우에 위반당원에 대한 책벌을 해당 당위원회에 제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세포는 도(직할시), 시(구역) · 군 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이 범한 과오가 해당위원회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때에는 엄중경고까지의 책벌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결정은 해당 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6. 종파 및 기타 다른 분파에 참가한 당원에 대한 당규율문제의 심의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하여 진행된다. 평당원 또는 시(구역) · 군기관의 간부로 있던 당원의 문제는 도(직할시)당위원회에서, 도(직할시) 또는 중앙당기관의 간부로 있던 당원의 문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심의한다.

7. 당중앙위원회, 도(직할시), 시(구역) · 군 당위원회 당규율문제와 관련된 당원의 청원을 지체없이 심의 해결하여야 한다.

8. 당세포는 항상 책벌을 받은 당원을 방조하여야 하며, 만일 책벌을 받은 당원이 자기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그것을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실제로 행동이 개선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책벌을 해제하는데 대한 문제를 총회에서 토의 결정하여야 한다. 당원이 받은 책벌을 해제하는데 대한 당세포 결정은 해당 시(구역) · 군 당위원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 당중앙위원회, 도(직할시), 시(구역) · 군 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이 받은 책벌의 해제는 그 책벌의 적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해당 당위원회에 의해서 결정된다.

9. 정당한 리유없이 6개월이상 당생활에 참가하지 않는 당원에 대하여 당세포 총회에서 제명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시(구역) · 군 당위원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

10. 당원의 등록과 이동은 당중앙위원회가 제정한 규정과 절차에 의하여 처리된다.

제2장 당의 조직원리와 조직구조

11. 당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조직한다.

1) 각급 당조직의 지도기관은 민주주의적으로 선거하고, 선출된 당 지도기관은 선거한 당조직에 대해 자기의 사업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총화 보고한다.

2) 당원은 당조직에 복종하며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며 하급당조직은 상급 당조직에 복종하며 모든 당조직은 당중앙위원회에 절대 복종한다.

3) 모든 당조직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옹호 관철하며 하급당조직은 상급당조직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상급당조직은 하급당조직의 사업을 계통적으로 지도 검열하며 하급당조직은 상급당조직에게 자기의 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12. 각급 당조직은 지역 또는 생산 및 로동단위에 따라 조직한다. 어느 한 지역을 담당한 당조직은 그 지역의 일부를 담당한 모든 당조직들에 대하여 상급당조직으로 되며, 어느 한 분야의 전체사업을 담당한 당조직은 그 분야의 일부사업을 담당한 모든 당조직들에 대하여 상급당조직으로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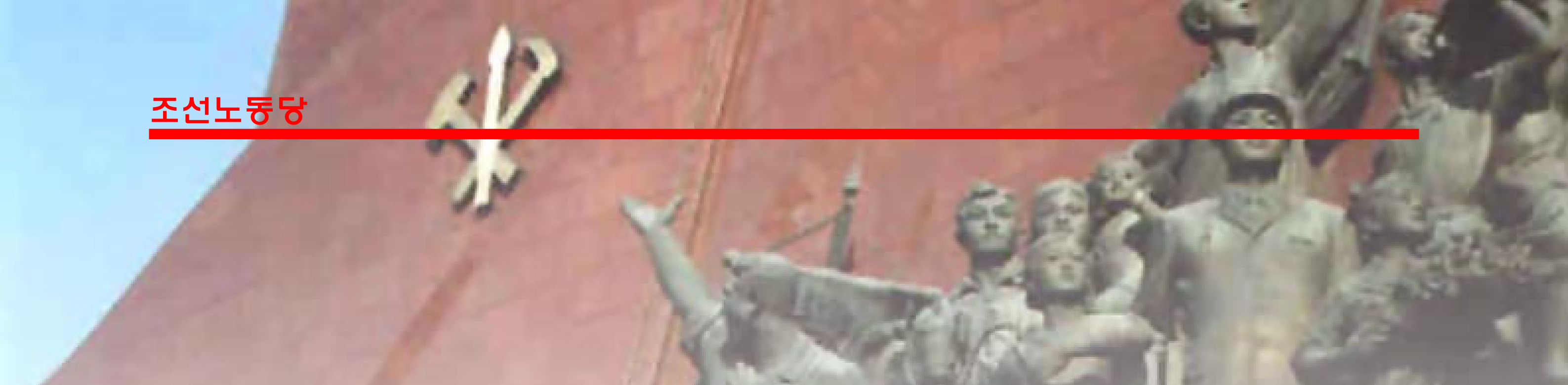
13. 각급 당위원회는 각 해당 단위의 최고지도기관이며 정치적 총참모부이다. 집단적 지도는 모든 당위원회의 기본활동지침이다. 각급 당위원회는 새로운 중요한 문제들을 집단적으로 토의 결정하여 그것을 집행하여야 하며 이에 개인적 책임성과 창발성을 엄밀히 결합시켜야 한다. 각급 당조직은 해당 지역 또는 분야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립적으로 토의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결정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에 어긋나서는 안된다.

14. 각급 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전당의 최고지도기관은 당대회이며 당대회가 없을 때는 당대회가 선출한 당중앙위원회가 최고지도기관이 된다. 도(직할시), 시(구역) · 군 당의 최고지도기관은 해당 당대표회이며, 당대표회가 없을 때는 당대표회가 선출한 해당 당위원회가 최고지도기관이 된다. 초급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당총회(당대표회)이며, 당총회(당대표회)가 없을 때는 당총회(당대표회)가 선거한 해당 당위원회가 최고지도기관이 된다.

2) 당대회 또는 당대표회의 대표자는 차하급 당조직의 당대표회 또는 당총회에서 선거한다. 당대회 대표자의 선출비율은 당중앙위원회가 결정하며, 도(직할시), 시(구역) · 군 당조직의 당대표회 대표자의 선출비율을 당중앙위원회가 작성한 규정에 따라 해당 당위원회가 결정한다.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의 수는 당대회가 결정한다. 도(직할시), 시(구역) · 군 당위원회위원,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수와 초급당위원회의 위원수는 당중앙위원회가 규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해당 당대표회 또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당중앙위원회, 도(직할시),시(구역) · 군 당위원회 준후보위원은 생산로동에 직접 참가하는 핵심당원중에서 선출된다. 각급 당조직의 지도기관 선거는 당중앙위원회가 규정한 선거세칙에 따른다.

15. 당중앙위원회와 도(직할시), 시(구역) · 군 당위원회위원, 후보위원, 준후보위원회 제명 또는 보선은 해당 당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실시된다. 당중앙위원회와 도(직할시), 시(구역) · 군 당위원회원 가운데서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결원된 수만큼 당위원회 보조위원 가운데서 보선한다. 만약 필요시는 당위원회 결원은 위원회의 후보위원이 아닌 다른 당원으로 보선될 수 있다. 초급당조직 집행기관위원의 제명 및 보선은 해당 당총회(당대표회)에서 실행된다. 초급당이 하급당의 규모가 방대하거나 널리 분산되어 있고 또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당총회(당대표회) 소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초급당 위원회가 결원보충을 위한 보선을 실시할 수 있다. 상급 당위원회는 결원된 하급당위원회의 책임비서(비서) 또는 비서(부비서)를 임명할 수 있다. 각급 당기관의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은 해당 당위원회 전원회의에 참가하되 발언권만 가진다.



16. 당회의는 해당 당조직에 소속된 당원(당위원 또는 대표자) 총수의 3분의 2이상이 참가하여야만 성립될 수 있고 제기된 문제의 결정은 해당 당회의 참가자의 과반수 찬성을 요한다.

17. 각급 당위원회내에는 필요한 부서를 설치한다. 부서의 설치 및 폐지의 권한은 당중앙위원회가 가진다.

18. 도(직할시), 시(구역) · 군 당위원회 및 그들과 동등한 기능을 수행하는 당위원회의 조직과 해산은 당중앙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초급당위원회 및 분초급당위원회의 조직과 해산은 도(직할시) 당위원회가 비준하고 소수당원을 가진 초급당위원회 또는 부문당위원회 및 당세포 조직과 해산은 시(구역) · 군 당위원회 비준한다. 도(직할시), 시(구역) · 군 당위원회 당조직의 조직과 해산에 대하여 당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9. 당중앙위원회는 어떤 당조직을 막론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 및 당규약을 엄중하게 위반하거나 실천을 태만히 한 경우에 그 당조직을 해산하고 소속당원을 개별적으로 심의하며 그들을 재등록하여 새로운 당조직을 조직할 수 있다.

20. 당중앙위원회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과 부문 및 특수한 환경에 적합한 당조직의 구성, 당조직의 활동방법과 기타 당건설의 제반문제에 관해 다르게 결정할 수 있다.

제3장 당의 중앙조직

21. 당의 최고지도기관은 당대회이다. 당대회는 5년에 1회 당중앙위원회가 소집한다. 당중앙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당대회를 규정된 기간보다 빨리 또는 늦게 소집할 수 있다. 당중앙위원회는 당대회의 소집기일과 의정을 3개월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22. 당대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당중앙위원회 및 당중앙검사위원회의 사업 총화
2) 당강령과 규약의 채택 또는 수정보완
3) 당로선과 정책 및 전략전술에 관한 기본문제 결정
4) 당중앙위원회 및 당중앙검사위원회 선거

23. 당중앙위원회는 당대회 사이에 모든 당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당중앙위원회는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수립하고 그 수행을 조직 · 지도하며 당과 혁명대열을 공고히 하고 행정 및 경제사업을 지도 조정하며 혁명적 무력을 조직, 그들의 전투능력을 높이고 기타 정당 및 국내외기관의 활동에서 당을 대표하며 당의 재정을 관리한다.

24. 당중앙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6개월에 1회이상 소집한다.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해당시기에 당이 직면한 중요문제 등을 토의 결정하며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선거하며 당중앙위원회 총비서와 비서를 선거하고 당중앙위원회의 비서국과 군사위원회를 조직한다. 당중앙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를 선출한다.

25.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전원회의 사이에 당중앙위원회 명의로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 · 지도한다.

26. 당중앙위원회와 비서국은 필요시 당인사 및 당면문제 등 당내문제를 토의, 결정하며 그 결정의 집행을 조직, 지도한다.

27.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는 당군사정책 대행방법을 토의 결정하며 인민군을 포함한 전무장력 강화와 군수산업발전에 관한 사업을 조직, 지도하며 우리나라의 군대를 지휘한다.

28. 당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는 반당 반혁명적 종파행위 및 기타 당의 유일사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당의 로선과 정책 및 규약을 준수하지 않아 당규율을 위반한 당원에게 책임을 추궁하며 당규율문제와 관련된 도(직할시)당위원에게 책임을 추궁하며 당규율문제와 관련된 도(직할시)당위원회의 제의 및 당원의 신소를 심의 해결한다.

29. 당중앙검사위원회는 당의 재정경리사업을 검사한다.

30. 당중앙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 당대표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당중앙위원회의 대표자 선거절차와 대표자 선출비율은 당중앙위원회가 결정한다. 당중앙위원회는 당의 로선과 정책 및 전략전술에 관한 긴급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며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또는 준후보위원을 제명하고 그 결원을 보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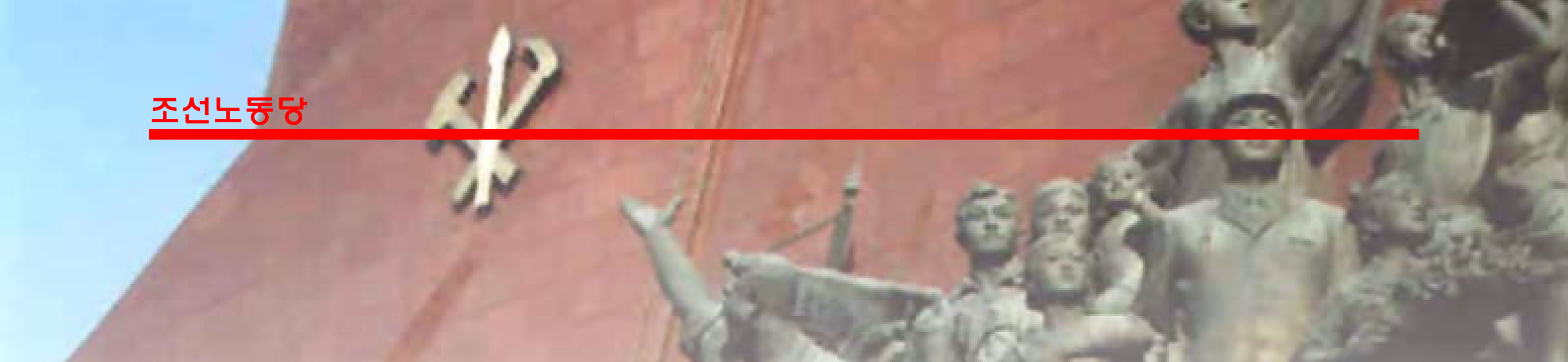
제4장 도(직할시)의 당조직

31. 도(직할시)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도(직할시)당대표회이다. 도(직할시)대표회는 3년에 1회 도(직할시)당위원회가 소집한다. 도(직할시)대표회는 필요에 따라 규정된 기간보다 빨리 또는 늦게 소집할 수 있다. 도(직할시)당위원회는 도(직할시)당대표회의 소집일과 의정을 2개월전에 하급당조직들에 통지하여야 한다.

32. 도(직할시)당대표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도(직할시)당위원회와 도(직할시)당검사위원회의 사업 총화
2) 도(직할시)당위원회 및 도(직할시)당검사위원회 선출
3) 당대회에 파견할 대표자 선출

33. 도(직할시)당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당원들과 근로대중 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는 사업을 조직 · 지도한다. 당원과 근로대중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굳게 무장시키고 그들이 당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옹호 수행하며 당의 유일사상에 어긋나는 자본주의사상, 봉건적 유교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맹종주의, 종파주의 지방주의 및 가족주의에 대해 견결히 투쟁하도록 감독하고 주체사상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계속 강화해야 한다. 간부대열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후비대를 육성하며 당 력량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당생활을 조직, 지도하며 하급당조직을 강화하고 그들의 활동을 감독한다. 당원 및 근로대중에 대한 주체사상 당정책, 혁명전통



교양 및 계급교양이 주내용인 공산주의 교양과 사회주의적 애국교양을 강화해야 하며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통해 그들을 당두리에 결속시켜야 한다. 근로대중의 조직을 강화하고 그들이 자기 기본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지도, 조정하며 행정 및 경제사업을 적절히 지도하여 혁명과업수행을 보장한다. 로농적위대를 강화하고 그 전투력 향상을 조직적으로 지도하며 군사동원사업을 보장한다. 도(직할시)당위원회의 재정을 관리하며 소관 사업에 관해 당중앙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34. 도(직할시)당위원회는 도(직할시)당전원회의를 4개월에 1회이상 소집한다. 도(직할시)당위원회 전원회의는 당의 로선과 정책의 대행방법을 토의 결정하며 도(직할시)당위원회의 책임비서 및 비서를 선거하며, 비서처를 조직하고, 도(직할시)당위원회의 군사위원회와 검열위원회를 선거한다. 도(직할시)당위원회 집행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전원회의 사이에 도(직할시)당위원회 명의로 당내사업을 조직, 집행하며 행정 및 경제사업을 지도한다. 도(직할시)당위원회 회의는 1개월에 2회이상 소집한다. 도(직할시)당위원회 비서는 인사행정 및 당내문제에 대해 필요시마다 토의,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집행한다. 도(직할시)당위원회 군사위원회는 당의 군사정책 대행방법을 토의, 결정하며 그 집행을 조직, 지도한다.

35. 도(직할시)당위원회 검열위원회는 반당 또는 반혁명적 종파행위 등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당로선 및 정책과 규약을 준수하지 않아 당규율을 위반한 당원에게 책임을 추궁하며, 당규율문제와 관련된 시(구역)·군당위원회 제의 및 출당에 대한 결정을 최종적으로 비준하며 당규율문제와 관련된 당원의 신소를 해결한다.

제5장 시(구역)·군의 당조직

36. 시(구역)·군 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시(구역)· 군 당대표회이다. 시(구역)·군 당대표회는 시(구역)·군 당위원회 3년에 1회 소집하고 필요에 따라 시(구역)·군 당대표회는 규정된 기간보다 빨리 또는 늦게 소집할 수 있다. 시(구역)·군당위원회 시(구역)군당회의 소집일자와 의정을 1개월전에 산하 당조직들에 통지하여야 한다.

37. 시(구역)·군 당대표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시(구역)·군 당위원회 시(구역)·군 당검사위원회의 사업총화
2) 시(구역)·군 당위원회 시(구역)·군 당검사위원회 선거
3) 도(직할시)당 대표회에 파견할 대표자 선거

38. 시(구역)·군 당위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당원들과 근로대중 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는 사업을 조직·수행한다. 당원과 근로대중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의 당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옹호 수행하며,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어긋나는 자본주의사상, 봉건적 유교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맹종주의, 종파주의, 지방주의 및 가족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 것을 보장하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계속 강화한다. 간부대열을 강화하고, 그들을 교양하며 간부후비대를 육성하고, 그들을 조직적으로 훈련한다. 당원의 당생활을 조직, 지도하며 당의 핵심을 연구 주지시키고 그 대열을 확대시키며 당원 확대사업을 정기적으로 조직 수행하며 당의 력량을 적절히 배치하고 당원과 후보당원을 등록한다. 당원과 근로대중에 대해 주체사상, 당정책과 혁명전통교양 및 계급교양 주내용인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 애국교양을 강화하며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통해 그들을 당두리에 결속시킨다. 당기층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며 초급당조직의 집행기관을 강화하며 그들의 기능과 역할의 부단한 향상을 위하여 매일같이 지도 방조한다. 근로대중의 조직들을 강화하고 임무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사업방향과 방법을 제시하며 그 리행을 감독한다. 행정 및 경제사업을 정확히 지도하여 혁명과업의 성과적 수행을 보장한다. 로농적위대를 강화하고 그들의 정치사상교양과 군사훈련을 강화하여 전투태세를 완비하며 군사동원 사업을 보장한다. 시(구역)·군 당위원회 재정을 관리하며 자기의 사업에 관해 상급 당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39. 시(구역)·군 당위원회 전원회의를 3개월에 1회이상 소집한다. 시(구역)·군 당위원회전원최의는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방법을 토의·결정하며 시(구역)·군 당위원회의 집행위원회 책임비서 및 비서를 선거하고 비서처를 조직하며, 시(구역)·군 당위원회 군사위원회와 검열위원회를 선거한다. 시(구역)·군 당위원회 집행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전원회의 사이에 시(구역)·군 당위원회 명의로 당내사업을 조직하고 행정 및 경제사업을 지도한다. 시(구역)·군 당위원회집행위원회는 1개월에 2회이상 회의를 소집한다. 시(구역)·군 당위원회비서처는 문제제기시마다 인사행정 등 당내사업에 관한 문제를 결정하며 그 결정을 집행한다. 시(구역)·군 당위원회군사위원회는 당의 군사정책 집행방법을 토의 결정하며 그 집행을 조직 지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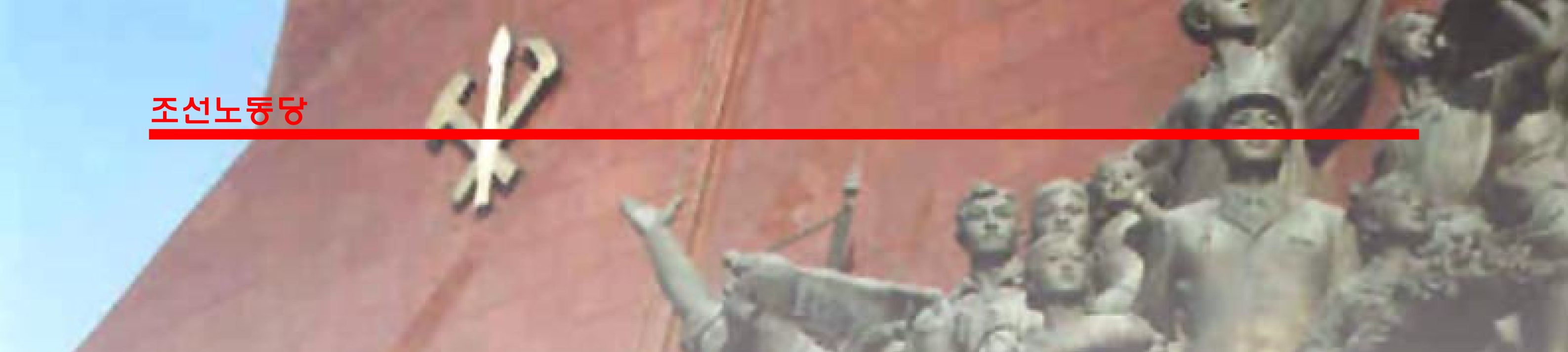
40. 시(구역)·군 당위원회검열위원회는 반당·반혁명적 종파행위 등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당의 로선과 정책 및 규약을 준수하지 않아 당규율을 위반한 당원에게 책임을 추궁하며, 당규율문제와 관련된 당원의 신소를 심의 처리한다.

제6장 당의 기층조직

41. 당의 최하기층조직은 당세포다. 당세포는 당원생활의 거점이며 당주위에 대중을 집결시키고 대중속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직접수행하는 당의 전투단위이다.

42. 당의 기층조직의 조직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당세포는 당원 5명에서 30명까지의 단위에 조직한다. 당원 5명미만의 단위에는 당세포를 두지 않고, 그 단위의 당원 또는 후보당원은 린접 당세포에 소속시키거나 작업성격과 린접관계를 고려하여 2개이상 단위의 당원을 합병하여 1개의 당세포를 조직할 수 있다. 특수한 경우에는 당원 3~4명이 있는 단위 또는 30명 이상의 단위에도 당세포를 조직할 수 있다. 당원 3명미만의 단위에는 시(구역)·군당위원회 추천하는 당원을 책임자로 하는 당소조를 조직할 수 있다.
2) 당원 31명이상이 있는 단위에는 초급당조직을 둔다.
3) 초급당조직과 당세포사이에 당원 31명이상이 있는 생산단위



나 기타 생활단위에는 부문(마을)당조직을 둘 수 있다.

4) 초급당, 부문당 또는 당세포 조직형성만으로 당기층조직 구성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초급당조직과 부문당조직 사이에 있는 생산단위나 기타 활동단위에 분초급당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5) 이상의 모든 당조직형태가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중앙위원회의 비준을 얻어 실정에 맞는 다른 당조직 형성을 취할 수 있다.

43. 당기층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해당조직의 총회(대표회)이다.

1) 당세포회는 1개월에 1회이상 소집한다.

2) 초급당, 분초급당, 부문(마을)당의 총회(대표회)는 3개월에 1회 이상 소집한다. 초급당조직이 500명이상의 당원 또는 후보당원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그 산하 조직들이 널리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초급당조직의 총회를 1년에 1회이상 소집할 수 있다.

44. 당의 기층조직은 1년임기의 해당조직의 집행기관을 선거한다.

1) 당세포 총회에서 비서와 부비서를 선거한다.

2) 초급당위원회, 분초급위원회, 부문(마을)당위원회는 각각 당총회(대표회)에서 선거하며 비서, 부비서는 각각 당위원회 회의에서 선거한다. 초급당 및 분초급당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각 집행위원회를 선거할 수 있다. 초급당위원회는 1개월에 3회이상, 분초급당위원회와 부문(마을)당위원회는 1개월에 2회이상 회의를 소집하며 집행위원회가 조직된 초급당 및 분초급당위원회는 1개월에 1회이상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집행위원회 회의는 1개월에 2회이상 소집한다.

3) 중앙기관의 당조직은 당지도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45. 당기층조직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당원들과 근로대중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며 그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여 끝까지 옹호 관철하도록 하며, 당의 유일사상에 어긋나는 자본주의사상, 봉건적 유교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맹종주의, 종파주의, 지방주의 및 가족주의에 대해 견결히 투쟁하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끊임없이 강화한다.

2) 하급간부대열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을 조직적으로 훈련시키며, 당핵심을 주지, 교양하며 부단히 그 대열을 확대, 강화한다.

3)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고 그들의 당성을 단련한다. 당원들 속에 당규약학습을 정기적으로 조직하며, 그들에게 항상 혁명을 위한 사고와 행동을 하도록 하고, 모든 활동에서 선봉적인 역할을 하도록 당의 임무를 부여하며, 높은 정치사상적 수준에서의 당회의와 당생활 총화를 수행하며 당원의 당생활을 철저히 파악하고, 그들을 교양하며, 당원들을 혁명가로 개조하고 비판을 통한 사상투쟁을 강화한다. 당원이 과오를 범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추궁하고 그 과오를 시정하도록 그를 방조한다.

4) 당원 적임자를 발견 · 등록하며 그들을 조직적으로 교양하여 심사 후 자격자를 입당시키며 후보당원과 새로 입장한 당원들을 교양훈련시킨다.

5) 당원들과 근로대중의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한다. 당원들과 근로대중에 대해 주체사상, 당정책, 혁명전통교양 및 계급교양 주내용인 공산주의 교육과 사회주의적 애국교양을 강화하며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통해 그들을 당두리에 결속시킨다.

6) 근로대중의 요구와 의견을 겸손히 접수하고 그것을 제때에 해결하여 주며 그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며 모든 단위와 직장에서 계통과 질서를 확립하며 반혁명 분자들에 대한 투쟁을 강화한다.

7) 근로대중의 사회조직을 강화하고 그들에게 사업방향과 방법을 제시하며 그들이 자기의 의무를 정확히 수행하도록 감독한다.

8) 모든 사업활동에서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 및 청산리정신과 방법을 적용하고 정치사업을 선행시키며 행정 및 경제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를 통해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대중이 그들의 혁명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고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이 혁신을 일으키며 3대혁명 붉은기쟁취운동과 사회주의 경쟁운동에 적극 참가하여 기술혁신운동을 촉진하며 로동생산능률을 제고하고 로동규율을 강화하며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와 사회재산을 애호 절약하도록 그들을 조직, 고무한다.

9) 로농적위대 강화하고 그들의 정치, 사상, 교양 및 군사훈련을 강화하여 당이 부를 때 항시 동원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10) 당원과 후보당원을 등록하며 당비를 갹출하여 자기 사업에 관해 상급 당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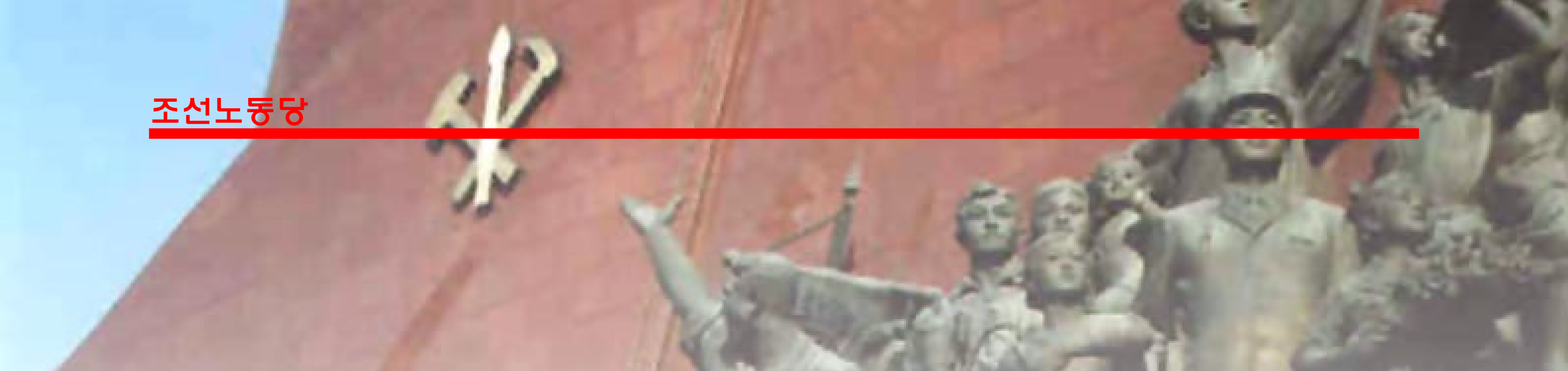
제7장 조선인민군대내 당조직

46.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한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다.

47. 조선인민군대내의 각급 단위에 당조직을 구성하며 조선인민군의 전체 당조직을 망라하는 조선인민군 당위원회를 조직한다. 조선인민군 당위원회는 도(직할시)당위원회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조선인민군 당위원회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직속하며 그 지도밑에 사업하고 자기 사업에 대하여 당중앙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48. 조선인민군대내 각급 당조직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전군을 주체사상으로 교양하기 위해 투쟁한다. 당원들과 군인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공고히 확립하며 그들이 당과 수령, 조직과 인민을 위해 서슴없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진정한 혁명전사가 될 수 있도록 단련한다. 간부대열을 강화하며 간부후비대를 육성하고 그들의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하도록 당원의 당생활을 조직, 지도하며 당대열을 확대, 강화한다. 당원과 군인들에 대해 주체사상, 당정책 및 혁명전통교양과 계급교양 주내용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 애국교양을 강화하며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통해 그들을 당두리에 결속시킨다. 조선인민군대내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조직들을 강화하고 그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도록 지도한다. 당군사로선과 주체적 전략전술을 수행하기 위해 군사사업에 관한 당위원회의 집단적 지도를 강화하며 인민군을 일당백의 혁명적인 무장력으로 강화, 발전시키기 위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붉은기중대운동을 적극 전개한다. 당원과 전사들이 언제나 지체없이 행동할 수 있도록 경계태세를 견지토록 하고 항상 완벽한 전투태세를 갖도록 고무한다. 당원과 전사들에게 높은 혁명적 동지애 및 군관과 전사, 군대와 인민간의 고귀한 전통적 단결정신을 발휘하도록 유도한다.

49. 조선인민군대내 각급 당조직들은 조선로동당의 규약과 당중



앙위원회가 비준한 지시와 규정에 따라 조직되고 사업을 수행한다.

50. 조선인민군대내 각급 당조직들은 지방 당조직들과 긴밀한 연계를 가져야 한다. 조선인민군대의 당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의 비준을 얻어 정치 및 군사간부를 주둔지역의 도(직할시), 시(구역)·군 당위원회 및 공장기업소의 초급당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8장 정치기관

51. 당중앙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정치, 경제 및 군사분야의 중요한 부문에 정치기관들을 조직한다. 중앙기관에 조직된 정치국(정치부) 및 그들에게 소속한 정치기관들은 해당부문에서 당원들과 근로대중에게 정치사상교양 사업을 조직 수행하며, 해당단위내에 조직된 당위원회 집행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과 그 소속정치기관은 해당 당위원회의 집행기구로서 당정치사업을 조직하고 수행한다.

52. 조선인민군 총정치국과 중앙기관내에 조직된 정치국(정치부)은 당중앙위원회 직속이며 그 지도하에 사업을 수행하고 담당사업에 관해 당중앙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53. 중앙기관내에 조직된 정치국(정치부)들은 하급정치기관들을 지도함에 있어서 해당 지방당위원회들과 긴밀한 연계를 가져야 한다.

54. 정치기관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당원들과 근로대중을 동원키 위하여 당열성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55. 정치기관들은 로동당의 규약과 당중앙위원회가 비준한 지시와 규정에 따라 조직되고 사업한다.

제9장 당과 로동대중의 조직

56. 근로대중의 조직들은 광범한 근로대중의 정치조직이며 항일혁명투쟁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계승하는 당의 외곽조직이다. 근로대중의 조직들은 광대한 대중의 사상교양조직이며, 당과 대중을 연결하는 인전대이며 당의 충실한 보조자이다.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우리의 혁명과업을 직접 계승하는 청년들의 혁명적 조직이며 당의 전투적 후비대이다. 근로대중의 조직들은 당의 지도하에 자기의 사업을 진행한다.

57. 근로대중의 조직들은 동맹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꾸리며 동맹대열을 강화하며 조직생활과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고 혁명화를 통해 동맹원들을 당두리에 결속시키며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사회주의경쟁운동을 전개하며 동맹원들을 혁명과 건설에 적극 동원한다.

58. 각급 당조직들은 로동대중의 간부대열들을 강화하고 근로대중조직의 모체를 통하여 대중과의 사업체계를 수립하며 근로대중의 특성에 맞게 사업방향과 방법을 정확히 제시하며 그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제10장 당의 재정

59. 당의 재정은 당원들의 당비, 당이 운영하는 기관들과 기업소들로부터의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된다.

60. 당원 및 후보당원의 당비는 월수입의 2%로 한다.



타도제국주의동맹(ㅌ·ㄷ)

정치사전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26년 10월 17일에 결성하신 우리 나라에서의 첫 혁명적청년조직. 일찌기 조국광복의 위대한 뜻을 품으시고 압록강을 건느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26년 6월 아버님의 친우들의 주선으로 화전현에 있는 화성의숙에 입학하시였다. 화성의숙은 민족주의자들이 조선독립군의 간부양성을 목적으로 세운 학교였다. 민족주의사상으로 일관된 화성의숙의 교육내용은 새것을 지향하시는 그이의 기대를 도저히 만족시킬수 없었다. 이 학교의 교육내용에는 조선의 독립을 실현할데 대한 구체적인 방도가 없었으며 더구나 인민대중을 착취한 억압에서 해방할데 대한 말은 들어볼수조차 없었다. 수령님께서는 당시 독립운동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일제와의 판가리싸움을 벌릴대신 인민들로부터 ≪운동자금≫이나 긁어다가 탕진하며 조선인거주지역들을 차지하기 위하여 패싸움을 벌리는 것이 그들의 운동의 전부라는 것을 아시게 되었을 때 더구나 환멸을 느끼시지 않을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계급적 제한성과 취약성으로 인한 독립운동자들의 수공업적이며 비조직적인 낡은 활동방식으로는 도저히 조선의 해방과 도립을 달성할수 없다고 단정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나라의 독립과 인민이 자유와 해방을 위한 혁명투쟁의 새로운 길을 탐색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아버님께서 말씀하여주시던 로씨야의 사회주의10월혁명과 로동자, 농민의 주권을 세우고 새 나라를 건설하고있는 쏘련에 대하여 동경하시면서 새로운 혁명사상, 맑스-레닌주의선진사상을 연구하기 시작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화전에 있는 아버님의 친우의 집에서 맑스-레닌주의서적들을 구해 읽으시면서부터 더욱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확고한 립장을 가지시게 되었다. 수령님께서는 자신이 과학적공산주의를 깊이 연구하시였을뿐만아니라 화성의숙안의 선진적인 청년학생들에게 비밀리에 맑스-레닌주의를 꾸준히 해설선전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러한 준비에 기초하시여 1926년 10월 17일 화전에서 일제를 타도하고 조선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끝까지 싸울 결의를 다진 선진적인 청년들과 학생들을 망라시켜 진정한 비합법적 혁명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략칭은 ≪ㅌ. ㄷ≫)을 결성하시였다. 이때부터 수령님의 혁명활동이 시작되였으며 그이께서는 혁명적청년학생운동의 지도자로 활동하게 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개시, 이는 조선인민의 진정한 혁명력사의 첫출발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타도제국주의동맹의 투쟁 목적과 과업에 대하여 밝히시면서 ≪ㅌ. ㄷ≫의 목적은 장차 조선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며 당면하게는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이룩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자며 우선 맑스-레닌주의선진사상을 연구하고 조직의 력량을 장성시켜야 한다라고 가르치시였다.

이것은 당시 우리 나라 사회경제형편과 계급관계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조선혁명의 종국적인 목적과 당면한 투쟁과업, 그 투쟁방도를 처음으로 가장 정확하게 규정한 혁명적투쟁강령이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은 일제를 타도하고 조선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할 것을 지향하는 선진적인 청년들과 학생들을 묶어세우고 그들을 통하여 광범한 청년들과 군중들을 반일투쟁에로 조직동원할 명확한 길을 열어놓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이 동맹은 청년들과 학생들을 비롯한 광범한 군중속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을 보급하며 그들을 반일애국사상과 계급의식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정치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렸다. 또한 타도제국주의동맹은 그 조직의 력량을 하루빨리 장성시키고 공산주의 핵심대오를 확대하며 광범한 군중을 반일투쟁에로 조직동원하기 위하여 줄기차게 투쟁하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의 조직은 조선청년운동발전에 있어서뿐만아니라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운동 발전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다. 실로 타도제국주의동맹의 조직은 우리 나라에서 종파주의, 좌우경기회주의 등 온갖 오물들을 쓸어버리고 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의 참신한 발전을 약속하는 시발점이였으며 새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이 투쟁무대에 등장함을 알리는 력사적사변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열다섯살 나시던 때 벌써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타도제국주의동맹과 같은 진정한 혁명조직을 무으심으로써 전세계 혁명가들과 혁명적인 민들에게 위대한 혁명가의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이렇듯 수령님에 의한 타도제국주의 동맹의 결성은 그이의 위대한 혁명력사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며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투쟁 발전에서 그리고 세계혁명가들과 혁명적인민들의 투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27년 여름에 타도제국주의동맹의 명칭을 반제청년동맹으로 고치시고 여기에 보다 광범한 청년학생들을 묶어세우시였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첫 당조직

정치사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무으시고 지도하신 조선로동당의 시원으로 되는 당조직. 1930년 7월 3일 카륜에서 결성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 **《김일성동지께서는 1930년 7월초 카륜에서 새 세대청년공산주의자들로 첫 당조직을 무으시였다. 이것은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는 첫 당조직이였으며 우리 당의 시원으로 되는 영광스러운 당조직이였다.》**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5~6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에 벌써 조선혁명을 향도해 나갈 새 형의 전투적참모부를 내올것을 구상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타도제국주의동맹과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통하여 새 세대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을 수많이 육성하시여 당조직을 결성할수 있는 조직적골간을 튼튼히 준비하시였으며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들을 여러가지 형태의 혁명조직에 결속하시여 혁명의 대중적지반도 꾸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와 함께 새 세대의 청년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적인민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켜 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준비에 기초하시여 력사적인 카륜회의에서 혁명적인 당을 창건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회의가 끝난 다음날에 친히 육성하신 차광수, 김혁, 최창걸, 계영춘을 비롯한 새 세대청년공산주의자들로 첫 당조직을 무으시였다.

첫 당조직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조직이였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해 나가는 조선혁명의 전투적참모부인 우리 당의 시원으로 되는 당조직이였다.

첫 당조직은 선진사상을 연구보급만 하던 종래의 공산주의소조들과는 달리 명확한 지도사상과 투쟁강령, 과학적인 전략전술을 가지고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대중을 혁명투쟁에로 힘 있게 조직동원하는 혁명의 전위조직이였으며 자주성을 지향하는 국제공산주의운동발전의 새로운 단계의 요구에 맞게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자주적인 신념과 의지를 반영하여 나온 새 형의 당조직이였다.

첫 당조직의 결성은 우리 당건설과 혁명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

첫 당조직이 결성됨으로써 우선 우리 나라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시는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조직이 탄생하게 되였으며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대중은 력사상 처음으로 자기의 참다운 당조직의 령도를 받으며 투쟁하는 새로운 길에 들어 서게 되였다. 첫 당조직의 결성을 계기로 하여 또한 주체형의 혁명적당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벌어 지게 되였다.

첫 당조직을 모체로 하여 국내와 만주의 넓은 지역과 유격부대안에 우리 당조직들이 급속히 확대되고 그에 대한 당조직지도체계가 정연하게 서게 되였으며 이 과정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조선공산주의대오의 통일과 단결이 강화되였다.

첫 당조직의 결성은 국제공산주의운동력사에서 자주적인 당건설의 새 길을 열어 놓은 사변이기도 하였다.

첫 당조직- 건설동지사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2권 제4장

지도사상, 령도핵심, 군중지반, 이것은 당조직을 내오는데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었다.

우리는 1930년 7월 3일 카륜의 진명학교 교실에서 차광수, 김혁, 최창걸, 계영춘, 김원우, 최효일 동무들로 첫 당조직을 무었다. 회의에는 참가하지 않았지만 김리갑, 김형권, 박근원, 리제우 동무들도 첫 당조직의 성원으로 되었으며 조선혁명군 대장으로 내정되어있던 리종락과 박차석도 이 조직의 성원으로 되었다.

첫 당조직을 내올 때의 인상 가운데서 잊혀지지 않는 것은 김원우가 회의장을 꾸리면서 연탁앞에 붉은 기를 세우느라고 애쓰던 일이다. 그 깃발의 붉은 색조는 혁명을 위해서 마지막 피한방울이 다할 때까지 싸우려는 우리의 심정을 그대로 대변해주었다.

지금도 첫 당조직하면 진명학교를 생각하게 되고 진명학교를 생각하면 연탁 앞에 비스듬히 서있던 그 잊지못할 깃발을 그려보게 된다. 나는 그날 연설을 길게 하지 않았다. 첫 당조직을 내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카륜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론의를 거듭했기 때문에 구구하게 그 취지를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다만 당조직성원들이 해야할 과업으로 기층당조직을 확대하고 그에 대한 통일적 지도체계를 수립할 데 대한 문제, 대오의 조직사상적 통일과 동지적 단합을 확고히 이룩할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 실천방도로서 당조직이 모든 활동에서 자주적 립장을 확고히 견지할 데 대해서와 당조직 건설사업을 반일투쟁과 밀접히 결부시킬 데 대하여 강조하였을 뿐이다.

우리는 당 강령과 규약을 따로 채택하지 않았다. ≪ㅌ.ㄷ≫의 강령 규약에 우리 공산주의자들의 최종목표와 당면투쟁과업이 명백히 밝혀져 있었고 카륜회의에서 채택된 혁명로선과 전략적 방침들에 우리가 가야할 길과 행동규범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그후 우리는 첫 당조직에 건설동지사라는 소박한 명칭을 붙이었다. 그 명칭은 동지를 얻는 것으로부터 혁명의 첫걸음을 떼었고 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동지들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결속시켜 혁명을 심화발전시키며 종국적인 승리를 달성하려는 우리의 포부와 의지를 그대로 담고 있었다.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

정치사전



항일무장투쟁시기 조선인민혁명군안의 당조직들과 지방당조직들을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한 최고지도기관.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1934년에 결성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카륜회의에서 제시하신 자주적인 당조직건설로선을 구현하시여 첫 당조직을 결성하시고 그를 모체로 하여 당조직건설사업을 정력적으로 조직지도하시였다. 그리하여 온성을 비롯한 두만강연안의 북부국경일대와 동만일대, 무장대오안에 각급 당조직들이 결성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성과에 기초하시여 각급 당조직들에 대한 통일적인 조직지도체계를 세우실 구상밑에 1934년 3월 반일인민유격대가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됨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령도밑에 부대안의 당조직들과 지방당조직들을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하는 최고지도기관이였으며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전반적조선혁명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철저히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통일적으로 조직지도하고 지도하는 조선혁명의 참모부였다.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의 결성은 조선공산주의운동과 우리 당건설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가 나옴으로써 각급 당조직들에 대한 통일적인 조직지도체계가 서게 되였으며 보다 조직화된 주체혁명력량에 의거하여 항일무장투쟁과 당조직건설사업을 더욱 활발히 벌려 나갈수 있게 되였다.》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6~7페지)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가 결성됨으로써 각급 당조직들에 대한 통일적인 조직지도체계를 확립하고 공산주의자들과 유격대원들, 광범한 인민들을 위대한 수령**김일성**동지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결속시켜 항일무장투쟁과 당조직건설사업을 가일층 확대발전시켜 나갈수 있게 되였다.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철저히 보장하는것을 자기 활동의 근본원칙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빛나게 관철하여 나갔다.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는 전체 당원들과 유격대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한편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당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지도하고 당내에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기초한 강력한 지도체계를 세움으로써 각급 당조직들과 모든 당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하나와 같이 사고하고 움직이는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웠다. 이와 함께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항일무장투쟁의 전략전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대책들을 수시로 토의결정하고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과 각급 당조직들, 당원들과 유격대원들을 항일무장투쟁의 승리에로 힘 있게 조직동원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는 또한 위대한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국내당공작위원회와 장백현당위원회, 동만당공작위원회를 통하여 국내와 만주일대의 조선인 거주지역들에 당조직을 확대강화하는 사업을 힘 있게 벌리였다.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는 또한 조국광복회를 비롯한 반일대중단체들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튼튼히 결속하고 우리 당과 무장투쟁의 대중적지반을 강력히 다져 나갔다. 전반적조선혁명에 대한 위대한 수령**김일성**동지의 령도는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움직이는 각급 당조직들에 의하여 철저히 보장되게 되였으며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전반적조선혁명은 더욱 줄기차게 전개될수 있었다.



국내당공작위원회

정치사전



항일무장투쟁시기 국내의 당조직들을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한 당지도기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1936년 12월에 조직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남호두회의방침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부대안의 각급 당조직들을 튼튼히 꾸리는 한편 국내와 만주일대의 조선인 거주지역들에 당조직을 더욱 확대하도록 하시였으며 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당공작위원회와 장백현당위원회, 동만당공작위원회를 내오시였다.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ㄷ≫ 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7페지)

국내당공작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자주적원칙에서 국내의 당조직들을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한 지역적인 당지도기관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내당공작위원회로 하여금 국내에서의 당조직건설사업을 통일적으로 밀고 나가도록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37년 5월 박달동지를 비롯하여 조국광복회하부조직인 조선민족해방동맹의 핵심들로써 당소조를 무어 주시였으며 국내도처에 뿌리 박은 조국광복회조직안에 당조직을 내오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 주시였다. 그리하여 신파와 갑산을 비롯한 우리 나라 북부국경일대의 넓은 지역에 당조직들이 나오게 되였다. 국내당공작위원회는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수많이 조직된 기층당조직들에 대한 정연한 지도체계를 세우고 그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보장하였으며 분산적으로 활동하던 공산주의자들을 개별적인 절차에 따라 당조직에 망라함으로써 국내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조직적통일을 실현하였다. 국내당공작위원회는 1937년 10월 일제가 이른바 ≪혜산사건≫을 벌려 놓았을 때에도 투쟁을 멈추지 않고 계속 활동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시기 마동희동지를 비롯한 정치공작원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국내에 파견하시여 국내당공작위원회의 활동방향과 투쟁과업을 명철하게 밝혀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국내당공작위원회는 혜산지방을 중심으로 파괴된 혁명조직들을 수습하였으며 수많은 정치공작원들을 흥남, 함흥, 원산을 비롯한 국내 각지에 깊이 침투시켜 당조직건설사업과 대중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무산군 삼장면일대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당조직들과 조국광복회조직들이 복구확대되고 많은 공산주의자들이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결속되게 되였다. 국내당공작위원회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국내의 각급 당조직들에 대한 통일적인 조직지도체계가 서게 되였으며 보다 조직화된 주체적혁명력량에 의거하여 당조직건설사업과 대중투쟁을 더욱 활발히 벌려 나갈수 있었다. 국내당공작위원회는 우리 나라에서 정세가 조성되면 제때에 당창건을 선포할수 있도록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축성하기 위한 투쟁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창립대회

정치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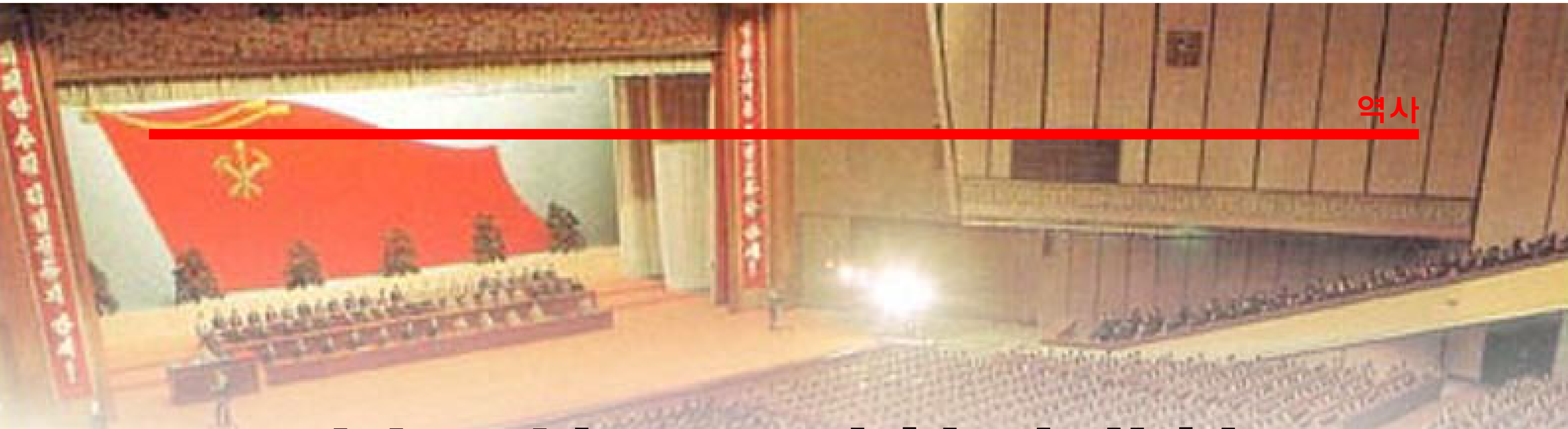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형의 혁명적당,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력사적인 대회. 대회는 1945년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대회는 전반적국내외정세가 우리 인민의 투쟁에 유리하게 전변되여 가고 있으나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조선혁명앞에 새로운 난국이 조성된 조건에서 혁명의 참모부인 혁명적당을 창건하는것이 지체할수 없는 요구로 제기된 시기에 열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광복직후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당건설경험에 기초하시여 가장 정확한 당창건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준비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지방당조직들에 나가시여 당창건준비사업을 지도하시는 한편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육성하신 우수한 공산주의자들을 각 지방에 파견하시여 그들로 하여금 종파주의자들, 지방할거주의자들의 책동을 극복하고 각 지방에서 분산적으로 활동하던 공산주의자들을 결속하며 지방당조직을 꾸리고 군중속에서 정치사상사업을 적극 벌려 그들을 혁명의 편에 전취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45년 10월 5일 당창건을 위한 예비회의를 여시고 통일적인 당창건을 방해하여 나섰던 종파분자들과 지방할거주의자들의 책동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창건을 위한 준비가 충분히 갖추어 진 기초우에서 1945년 10월 10일 력사적인 우리 당 창립대회를 여시였다. 대회에는 항일혁명투사들을 비롯하여 각 도당 책임자들과 열성자들 70여명의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회에서 《우리나라에서의 맑스-레닌주의당건설과 당의 당면과업에 대하여》라는 력사적인 보고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국내외정세를 분석하시면서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창설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다음 당의 조직로선을 명확히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창건하는 공산당은 조선로동계급의 참다운 전위대로 되여야 하며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확고히 령도하는 위력한 정치적참모부로 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1권, 309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당을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항일혁명투자들을 핵심으로 하여 당을 건설함으로써 당의 조직적골간을 튼튼히 꾸리며 로동자, 농민들 속에서 선진분자들을 당대렬에 적극 받아 들여 우리 당을 무산계급의 토대우에 튼튼히 선 대중적정당으로 만들며 우리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고 종파주의, 지방주의, 좌우경기회주의를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며 민주주의중앙집권제에 기초한 당의 혁명적규률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또한 당의 정치로선을 뚜렷이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여 우리 나라를 부강한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로 발전시키는것을 기본정치과업으로 규정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4대당면과업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반부에 조성된 유리한 정세를 리용하여 이 모든 과업을 지체없이 수행함으로써 북반부를 부강한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강력한 혁명기지로 전변시킬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대표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당의 조직로선과 정치로선을 한결같이 지지하면서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창립을 전폭적으로 찬동하였다. 대회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당중앙지도기관으로서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결성은 우리 나라에서 항일의 혁명전통을 계승한 새 형의 당, 주체형의 혁명적당인 **김일성**동지의 당의 탄생을 선포한 위대한 력사적사변이였다. 우리 당이 창건됨으로써 조선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은 혁명투쟁에서 비로소 자기의 힘 있는 전위부대, 참다운 혁명의 참모부를 가지게 되였으며 당의 령도밑에 혁명의 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하여 나갈수 있게 되였다. 또한 전당을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력사적과정이 시작되게 되였으며 광범한 군중을 묶어 세워 주체적인 혁명력량을 튼튼히 마련할수 있게 되였다.





북조선로동당창립대회

정치사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대중적당건설로선에 따라 공산당을 근로대중의 통일적당인 로동당으로 강화발전시킨 력사적인 대회. 대회는 위대한 수령**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1946년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산당은 창건된후 27만여명의 당원들을 자기 대렬에 망라한 대부대로 자라 났으며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단결이 이룩되게 되였다. 그리고 공산당은 혁명과 건설에서 귀중한 경험을 쌓고 투쟁속에서 단련되고 세련되였으며 인민대중속에서 절대적인 권위와 위신을 획득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적지위를 확고히 보장하게 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공산당이 다른 근로자당과 합당하여도 그것을 능히 소화할수 있었으며 강력한 대중적당으로 발전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당과 혁명 발전의 합법칙적요구와 조성된 정세를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1946년 7월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제8차확대집행위원회를 소집하시고 앞으로 창립하게 될 당의 명칭을 로동당으로 할데 대해서와 합당절차 및 당핵심육성 문제를 비롯하여 합당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시였으며 친히 작성하신 당의 강령과 규약 초안을 발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조선공산당 및 조선신민당 중앙위원회확대련석회의를 여시고 두 당을 합당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게 하시였으며 당의 강령과 규약 초안을 전당적토의에 붙이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련석회의후 합당사업을 밑으로부터 올리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세포로부터 도당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합당회의를 진행하게 하시여 지방당조직들의 합당이 이루어 지자 당창립대회를 소집하시였다. 대회에는 공산당 및 신민당 대표 801명이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1. 북조선로동당창립에 대한 보고 2. 당강령에 대한 보고 3. 당규약에 대한 보고 4. 당기관지에 대한 보고 5. 당중앙위원회 및 당중앙검열위원회 선거 등 의정을 토의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회에서 《근로대중의 통일적당의 창건을 위하여》라는 력사적인 보고를 하시였다. 위대한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와 공산당창건후 1년간의 사업을 총화하시고 로동당창립의 필요성, 로동당의 성격과 기본임무를 뚜렷이 밝히시였으며 조선근로대중의 리익을 대표하고 옹호하는 선봉대인 로동당은 조선의 자주적독립과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서 응당 주도적력량으로 되여야 하며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에서 핵심적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당을 강유력한 전투부대로 만들기 위한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먼저 당대렬의 사상의지의 통일과 강철같은 규률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두 당을 방금 합쳐 놓았기때문에 대렬안에 여러가지 서로 같지 않은 경향들이 나타날수 있다고 하시면서 당강령에 기초한 유일한 사상으로 전체 당원들을 무장시키며 그들의 원칙적인 동지적단결을 강화하고 정치적각성을 높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히 력사적으로 우리 나라 혁명운동에 막대한 해독을 끼친 종파주의적잔재를 철저히 청산함으로써 우리 당을 통일적이며 위력 있는 강철의 대오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당이 군중속에 깊이 뿌리 박고 군중과의 련계를 공고히 하며 사회단체들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간부문제에 최대의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대회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방침대로 북조선로동당을 창립하고 당의 강령과 규약을 채택하였으며 당중앙위원회 기관지로서 《로동신문》과 《근로자》를 발간할것을 결정하였다. 대회는 로동당의 창립을 선포함으로써 당이 광범한 군중속에 뿌리 박고 당대렬을 빨리 확대강화하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를 더욱 철저히 실현해 나갈수 있는 전환의 계기를 열어 놓았다. 또한 대회는 근로대중의 분렬을 막고 각계각층의 민주력량을 통일전선의 기치밑에 묶어 세우며 북조선에서 혁명을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키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투쟁을 보다 힘 있게 밀고 나갈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다.





북조선로동당 제2차대회

정치사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 첫 시기 과업과 우리 당을 강화하며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기기 위하여 나서는 과업을 제시하신 력사적인 회의. 대회는 1948년 3월 27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대회는 국내외정세가 우리 혁명발전에 매우 유리하게 전변되여 가고 있던 력사적환경에서, 그리고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 첫 시기 과업수행을 다그치며 미제의 민족분렬책동을 분쇄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서는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였던 시기에 열리였다. 대회에는 70만 8,000여명의 당원들을 대표하여 990명의 결의권을 가진 대표와 96명의 발언권을 가진 대표가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1. 북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2. 북조선로동당규약수정에 관한 보고 3. 당중앙지도기관 선거 등 의정을 토의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회에서 당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와 《모든 힘을 민주기지의 강화와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하여》라는 결론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조성된 국내외정세와 우리 혁명발전의 전망을 심오하게 분석하시고 새로운 투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우선 조국의 자주적통일방침과 그 실현을 위한 당면과업을 제시하시면서 남조선에서 감행하려는 미제의 단독선거와 괴뢰정부조작책동을 단호히 반대배격하시고 우리 당의 조국통일방침을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 **《우리 당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과 비밀투표방법에 의하여 최고립법기관을 전 조선적으로 선거할것을 주장합니다. 이와 같이 선거된 인민의 최고립법기관은 민주주의헌법을 채택하고 우리 인민을 민족적륭성과 행복의 길로 인도할 진정한 민주주의인민정부를 구성하여야 할것입니다. 조선인민자신이 이러한 방법으로 통일정부를 수립하는것은 오직 외국군대가 철거하는 조건하에서만 가능합니다.》** (《**김일성**저작집》 4권, 211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남북조선의 전체 애국적민주력량과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지향하는 량심 있는 모든 인사들과의 단결을 더욱 강화하며 미제의 교활한 식민지노예화정책을 반대하여 끝까지 투쟁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를 위하여서는 당면하게 남북조선의 모든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의 련석회의를 열고 거기에서 통일국가수립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침을 채택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으로 혁명과 건설에서 달성한 선과를 총화하시고 북반부의 혁명적민주기지를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한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적민주기지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경제건설에 대한 각급 당조직들의 령도적역할을 높여 경제건설을 힘 있게 밀고 나가며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구체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다음으로 총결기간 당건설분야에서 거둔 성과와 경험을 총화하시고 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당의 기층조직인 세포를 강화하며 특히 당핵심육성에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리고 하급당조직들에 대한 지도를 실속 있게 진행하고 일군들의 사업작풍을 개선하며 사회단체들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간부 양성사업과 선발배치사업을 옳게 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당사상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당원들과 인민들을 혁명적세계관과 우리 당의 립장,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과거와 현재의 우리 나라 형편과 사회계급관계를 옳게 인식시켜 그들의 계급의식을 높여주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를 위해서는 사상교양사업을 힘 있게 벌리는 한편 사상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와 결론에서 반종파투쟁을 힘 있게 벌려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종파주의의 사상적근원과 수법, 해독성을 명백히 밝히시고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종파주의의 표현에 대하여서는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것이라 할지라도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여 당안에서 종파잔재를 철저히 뿌리 뽑을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대회에서 하신 보고와 결론은 나라에 조성된 복잡한 정세하에서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공화국북반부의 혁명적민주기지를 강화하며 당을 질적으로 공고화하는 사업에서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투쟁강령으로 되였다. 대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결정을 채택하였으며 혁명임무와 당의 발전수준에 맞게 당규약을 일부 개정하였다. 대회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선거하였다. 대회에서는 또한 남조선로동당에 보내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대회는 우리 당과 인민을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 첫 시기 과업수행과 조국통일 위한 거족적인 반미구국투쟁에로 힘 있게 불러 일으켰다. 또한 대회는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당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 당을 결정적으로 공고히 하는데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열어 놓았다. 대회는 세계혁명발전에도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북조선로동당 제2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정치사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48년 3월 26일 북조선로동당 제2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로작은 북반부혁명기지를 튼튼히 다지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힘 있게 다그치게 한 강령적문헌이다. 로작의 첫째 체계 《국제정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후 국제정치세력배치에서의 변화와 국제무대에서의 민주세력과 반동세력간의 투쟁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전후 국제정치세력배치에서의 변화》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국제정치세력의 배치에서는 심각한 변화들이 일어 났다는것을 지적하고 그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변화는 제국주의반동세력이 현저하게 약화된 반면에 국제민주력량이 형성되고 결정적으로 강화된것이라는것을 밝혔다. 《국제무대에서의 민주세력과 반동세력간의 투쟁》에서는 세계의 정치적력량관계에서 발생된 이러한 변화는 민주세력과 반동세력간의 치렬한 투쟁을 통하여 이루어 졌다는것을 지적하고 전후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반동세력에 대처하는 국제민주력량의 장성과정을 밝혔다. 이 부분에서는 특히 세계 사회주의력량이 국제반동세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강력한 힘으로 장성하였으며 서유럽 여러 나라들에서 민주력량이 장성하고 피압박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이 강화되고 있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로작의 둘째 체계 《국내정세》에서는 조선의 정치정세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대해서와 새 형태의 인민정권수립과 민주개혁의 실시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 당의 경제정책과 경제건설에 대하여 밝히였다. 《조선의 정치정세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는 먼저 당시 조성된 정세를 전면적으로 분석하고 조선의 정치정세는 애국적민주세력과 매국적인 반민주세력간의 치렬한 투쟁으로 특징지어 진다는것을 밝혔다. 계속하여 조국에 조성된 긴박한 정세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당은 북조선의 민주주의 정당, 사회단체들과 함께 조선인민이 나아갈 길을 다시 한번 천명하기 위하여 인민들의 요구에 부합되는 림시헌법초안을 작성하여 전 인민적토의에 붙였다는것을 지적하였다. 이 부분에서는 또한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과 비밀투표의 방법에 의하여 최고립법기관을 전 조선적으로 선거할데 대한 조국통일방안을 재천명하였다. 로작에서는 계속하여 전체 조선인민의 요구에 부합되는 우리 당의 이러한 주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북조선의 모든 애국적민주력량과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지향하는 량심적인 인사들과의 단결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강조하고 우리 당이 남조선의 단독정부수립을 반대하는 남북조선의 모든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대표들의 련석회의를 개최할것을 제의한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새 형태의 인민정권 수립과 민주개혁의 실시》에서는 새 형태의 인민정권을 수립하고 제반 민주개혁을 성과적으로 실시한 우리 당의 투쟁에 대하여 개괄하였다. 로작에서는 우선 광복직후에 규정한 당의 정치로선을 다시금 밝힌 다음 광복후 우리는 조선인민의 요구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우리 조국의 민주주의적발전에 가장 적합하며 각계각층 인민들과 특히 광범한 근로대중의 리익을 대표할수 있는 새 형태의 정권기관을 수립하였다는것을 지적하였다. 로작에서는 계속하여 북반부에서 성과적으로 수행된 제반민주개혁에 대하여 총화하였다. 《우리 당의 경제정책과 경제건설》에서는 과도기 첫 시기 우리 당 경제정책과 그것을 실시하는 과정에 부닥쳤던 난관들을 분석하였으며 당의 경제정책을 집행하는데서 달성한 거대한 성과와 나타난 부족점들을 총화하고 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 나섰던 과업들을 밝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 **《…중요한것은 파괴된 경제를 단순히 복구할것이 아니라 공업과 기타 여러 부문들에서 장구한 일제통치의 악독한 결과를 청산하며 국영부문이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도록 하는 방향에서 민족경제를 부흥발전시키는것이였습니다.》** (《**김일성**저작집》 4권, 210~220페지)

로작에서는 당의 경제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부닥친 난관들을 극복하고 1947년도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한데 대하여 총화하고 당조직들이 경제건설에 대한 지도를 잘하며 인민정권기관들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지적하였으며 특히 당이 군중을 조직하며 정치적으로 지도할줄 아는 당으로 될뿐아니라 경제를 건설하고 기업을 관리운영할줄 알며 경제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소유한 건설자의 당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강조하였다. 로작의 셋째 체계 《당》에서는 당의 공고화를 위한 투쟁, 당대렬의 장성과 조직지도사업, 당 선전 및 사상교양 사업에 대하여 밝히였다. 《당의 공고화를 위한 투쟁》에서는 우리 당의 창건과 그 의의를 분석한 다음 당의 공고화를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밝히였다. 이 부분에서는 1945년 12월에 소집되였던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제3차확대집행위원회의 이후부터 우리 당이 진실로 건전하고 강력한 당으로 발전하게 되였다는것을 지적하였으며 1946년 8월에 공산당과 신민당이 합당하여 북조선로동당이 창립되고 강력한 대중적정당으로 발전하게 되였다는것을 강조하였다. 《당대렬의 장성과 조직지도사업》에서의 합당이후 당대렬의 장성과 조직지도사업에서 거둔 성과에 대하여 분석하면서 당이 만일 조국이 비상동원을 요구한다면 임의의 시각에 사소한 혼란도 없이 전당을 동원할수 있는 강유력한 유일적인 당조직체계를 가지게 되였다고 지적하였다. 로작에서는 또한 당건설과 당조직지도사업에서 시급히 고쳐야 할 결함들을 분석하고 당조직지도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에 대하여 밝히였다. 이 부분에서는 당의 기층조직인 당세포를 강화하는것과 함께 당단체들이 당정책과 결정을 정확히 집행하도록 하부지도검열사업을 강화하며 일군들의 사업작풍을 개선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당 선전 및 사상교양 사업》에서는 우리 당이 대중적정당으로 되고 그 대렬이 급격히 장성한 조건에서 당선전사업을 광범히 전개하며 당원들을 로동계급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교양사업을 강화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제기되였다는것을 지적하고 당선전사업과 사상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과업을 밝혔다. 로작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는 북반부에서 혁명을 더욱 발전시키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힘차게 다그치게 한데 있다. 또한 그것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서 제기되는 원칙적문제들에 독창적인 해명을 주고 주체형의 당건설리론과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고귀한 경험을 일반화함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리론과 당건설리론발전에 력사적공헌을 한데 있다.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

정치사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총결기간 우리 당이 걸어 온 영광스러운 투쟁과 빛나는 승리의 로정을 총화하시고 사회주의기초건설의 완성을 위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신 력사적인 대회. 대회는 1956년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대회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전후복구건설사업이 기본적으로 끝나 가고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며 남반부인민들이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과 파쑈적폭압을 반대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고 있었으며 국제적으로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으로 하여 정세가 매우 복잡하고 긴장하였으나 전반적으로는 사회주의와 혁명력량에 유리하게 전변되고 있었던 시기에 소집되였다. 대회에는 116만 4,945명의 당원들을 대표하여 결의권을 가진 대표 914명이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2. 조선로동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결에 관한 보고 3. 조선로동당 규약개정에 대하여 4. 당중앙지도기관선거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회에서 당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와 결론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국제국내정세를 깊이 분석하시고 총결기간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들을 전면적으로 총화하시였으며 우리 당과 인민을 새로운 승리에로 불러 일으키기 위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경제발전 5개년(1957-1961)계획의 새로운 투쟁목표를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다음해부터 시작되는 1차5개년계획기간에는 전후에 거둔 모든 성과들에 기초하여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에서 커다란 전진을 가져 와야 할것입니다.
인민경제 모든 분야에 걸쳐 사회주의적부문들을 더욱 확대발전시키며 공업화의 기초건설을 더욱 힘차게 다그치며 경공업과 농업 생산을 새로운 수준에로 높이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계속 향상시켜야 할것입니다.》 (《**김일성**저작집》 10권, 213페지)

5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끝내고 사회주의공업화의 기초를 튼튼히 닦으며 인민들의 의식주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계속하여 5개년계획기간에 인민경제의 부문별 발전방향과 과업을 뚜렷이 밝히시였다. 위대한수령님께서는 또한 국가사회제도를 강화할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으로 남조선의 사태를 전면적으로 분석하시고 자주적조국통일방침을 다시금 천명하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당을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과업을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안에서 박헌영도당은 적발숙청되였지만 그들의 사상여독은 완전히 가셔 지지 않았으며 엠엘파, 화요파의 잔재가 남아 있는 조건에서 반종파투쟁을 강화하여 당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튼튼히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조직지도사업과 당사상사업앞에 나서는 과업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시면서 당사상사업에서 주체를 세울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대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보고와 결론을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대회에서는 우리 당 발전의 합법칙적요구와 당의 새로운 활동내용에 맞게 새 규약을 채택하였다. 대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주적조국통일방침과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방안을 반영한 선언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하여》를 채택하였다. 대회에서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일치한 념원을 반영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또다시 당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였다.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는 혁명과 건설이 심화될수록 그리고 안팎의 정세가 복잡할수록 전당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제정신을 가지고 우리 식대로 살아 나가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해 나갈것을 온 세상에 힘 있게 선포한 력사적인 대회로서 우리 당을 불패의 혁명대오로 강화발전시키고 혁명과 건설을 촉진하며 당의 국제적지위를 높이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였다.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정치사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56년 4월 23일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로작은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여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기초건설의 력사적과업을 수행하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기고 세계혁명을 촉진하기 위한 가장 옳바른 길을 밝힌 력사적문헌이다. 로작은 크게 세 체계로 구성되여 있다.

로작의 첫째 체계 《국제정세》에서는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의 전반적실태를 분석하였다. 로작은 우선 사회주의나라들과 민주주의나라들의 위력이 강화되고 이 나라 인민들의 통일단결이 공고화되고 있는데 대하여 밝혔다.

다음으로 아시아에서 식민지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는데 대하여 밝히고 자본주의의 전반적위기가 더욱 심각화되고 있는데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 체계의 마지막부분에서 우리 당 대외정책을 천명하면서 우리 당은 사회주의나라들과의 형제적친선단결과 정치, 경제, 문화적 협조를 강화할것이며 자주권의 호상존중과 평등권에 립각하여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국가들과의 정치적련계와 실무적련계를 맺기 위하여 노력하며 특히 아시아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일본군국주의의 재생을 견결히 반대하고 아시아인민들의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할것이라는것을 강조하였다. 로작의 둘째 체계 《국내정세》에서는 공화국북반부에서의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수행과정을 개괄하고 사회주의기초건설을 수행하며 조국통일을 앞당길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로작은 이 체계의 첫 부분에서 조국의 통일독립과 공화국북반부에서 인민민주주의제도의 강화발전을 위한 투쟁을 총화하였다. 여기에서는 광복후 평화적건설시기 우리 당이 민주주의적완전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북반부를 강력한 혁명적민주기지로 전변시키고 남반부에서는 모든 애국력량을 동원하여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을 반대하는데 궐기시키기 위한 투쟁과업을 내세웠다는것을 지적하고 당은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먼저 주권문제를 해결하고 제반민주개혁을 실시하였으며 조국통일과 남조선혁명을 촉진시키기 위한 옳바른 투쟁로선과 전략전술을 제시하고 그 실현에로 남북조선인민들을 조직동원한데 대하여 개괄하였다.

다음으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당이 《모든것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구호를 제시하고 전체 인민을 전쟁승리에 궐기시켰으며 모든 사업을 전시체제로 개편함으로써 전쟁을 승리에로 령도한데 대하여 지적하고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조선인민의 력사적승리는 우리 민주주의제도의 무궁무진한 생활력과 우월성, 민주기지창설과 그 강화를 위한 우리 당의 로선의 정당성을 확증하였으며 미제의 강대성에 대한 신화를 여지없이 분쇄하였다고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우리 당이 중공업의 우선적장성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독창적인 로선을 제시하고 인민경제복구건설을 힘 있게 밀고 나감으로써 공업, 농업, 상품류통, 운수, 체신, 인민생활 등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 인민경제의 사회주의적성격을 확대강화한데 대하여 개괄하였다. 로작은 이 체계의 둘째 부분에서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위하여 나서는 부문별과업을 밝히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다음해부터 시작되는 제1차5개년계획기간에는 전후에 거둔 모든 성과들에 기초하여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에서 커다란 전진을 가져 와야 할것입니다.》 (《**김일성**저작집》 10권, 213페지)

로작은 공업부문에서 중공업 특히 기계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 공업자체의 기술적개건을 보장하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을 새로운 기술로 장비하도록 하여 인민들의 생활필수품생산을 훨씬 늘여야 한다는것을 강조하고 금속공업, 기계공업 및 전력공업, 석탄공업, 화학 및 건재공업, 림업, 경공업, 수산업, 운수 및 체신 부문의 과업을 밝히였다. 로작은 또한 농촌경리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 농업생산 특히 알곡생산을 늘이며 협동조합들을 조직경제적으로 더욱 강화하고 협동화를 완성하는것이라고 밝히고 알곡과 공예작물, 축산업, 과수업, 잠업부문의 과업,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위한 과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로작은 계속하여 기본건설과 기술인재양성사업,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과업을 밝히였다.

이 체계의 셋째 부분에서는 국가사회제도의 강화를 위한 과업에 대하여 밝히였다. 그것은 첫째로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고 로동자와 농민의 동맹을 정치경제적으로 강화하는 기초우에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강화하는것이며 둘째로 인민정권기관들을 인민대중에게 더욱 접근시키고 그 두리에 인민들을 더욱 튼튼히 묶어세워 인민정권을 강화하는것이다.

로작의 이 체계의 넷째 부분에서는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과업을 밝혔다. 로작은 남조선혁명의 성격과 그 동력을 밝히고 우리 당의 시종일관한 자주적평화통일방침과 구체적인 조국통일방안들을 천명하였다. 로작의 셋째 체계 《당》에서는 당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총화하고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기 위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로작은 먼저 우리 당의 창건과 공고화를 위한 투쟁로정에 대하여 력사적으로 분석총화하였다. 로작은 다음으로 당조직지도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로작은 당조직지도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과업으로서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 당과 인민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할데 대한 문제, 당조직들의 사업방법을 개선할데 대한 문제, 간부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로작은 또한 당사상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과업을 밝혔다. 로작은 당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철저히 세우며 근로대중의 사회주의적의식를 높이고 그들로 하여금 정치경제적과업들을 자각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잘 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출판, 교육, 과학, 문학예술 분야에 나서는 과업을 밝히고 남조선에 대한 연구와 선전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로작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사회주의기초건설시기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의 앞길을 뚜렷이 밝혀 줌으로써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기초건설위업을 힘 있게 다그치에 하였다는데 있다. 그 의의는 다음으로 우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발전시켜 나가는데서 항구적으로 틀어 쥐고 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을 마련하였다는데 있다. 그 의의는 또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 주고 국제공산주의운동의 강화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는데 있다.



조선로동당 대표자회

(1958. 3)

정치사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대책과 5개년계획의 구체적인 과업과 그 수행방도들을 제시하신 력사적인 회의. 당대표자회는 1958년 3월 3일부터 6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당대표자회는 1957년도인민경제계획수행을 통하여 앙양된 인민대중의 혁명적기세를 한층 높이며 력사적으로 내려 오던 종파분자들을 쓸어 버리기 위한 전당적투쟁을 정확히 총화하고 당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강화하는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던 시기에 열리였다. 당대표자회에서는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발전 제1차5개년(1957～1961)계획에 관하여 2. 당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3. 조직문제 등이 토의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대표자회에서 《제1차5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라는 력사적인 결론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결론에서 먼저 5개년계획의 중심과업과 부문별과업들을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 **《우리가 내세운 5개년계획의 중심과업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적공업화의 토대를 닦으며 인민들의 의식주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는것입니다.》** (《**김일성**저작집》 12권, 196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업부문에서는 인민들이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부문들에 중점을 두고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며 경공업부문에서는 천과 일용품 생산을 늘이고 식료가공공업을 발전시키며 제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질을 높일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또한 건설에서는 생산건설을 위주로 하면서 주택을 더 많이 짓는 운동을 벌리며 농업부문에서는 알곡생산을 위주로 하고 공예작물과 축산업, 과수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며 협동경리를 경제적으로 더욱 강화하고 농촌에서 사상혁명, 문화혁명을 힘 있게 벌릴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와 함께 상업, 운수능력을 강화하는 문제, 과학발전문제, 5개년계획의 성과적수행을 위하여 간부들이 지도사업을 잘할데 대한 문제 등 여러 부문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5개년계획의 부문별과업들과 함께 그것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도들을 밝혀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히 5개년계획기간에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장성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우리 당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계속 견지하며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보장하고 경제건설과 인민생활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으로 반종파투쟁의 경험과 교훈을 분석하시고 당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먼저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를 반대하여 계속 견결히 투쟁하며 종파여독을 철저히 뿌리 빼며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 있게 벌려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종파주의를 철저히 극복하자면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과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이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우며 당성이 강한 당원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종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당중앙을 옹호하는데 특별한 힘을 넣을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 **《종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당의 단결을 고수하기 위하여 당중앙을 옹호하는것입니다.》** (우와 같은 문헌, 136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중앙이 없이는 당이 있을수 없다고 하시면서 개인은 당조직에 복종하고 모든 당조직은 중앙에 복종하는 민주주의적중앙집권제원칙을 지킴으로써 당의 전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당대표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당대표자회는 력사적으로 혁명과 건설에 막대한 해독을 끼쳐 온 반당종파분자들과 그 잔여세력들을 철저히 분쇄하고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당의 통일과 단결을 결정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우리 당의 전투적위력을 힘 있게 시위하고 당과 혁명 발전의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았다. 당대표자회는 또한 당면한 제1차5개년계획과제들과 그 실행대책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힘 있게 다그쳐 나갈수 있게 하였다.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

정치사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총결기간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우리 당의 빛나는 성과를 총화하시고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기 위한 7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제시하신 력사적인 대회. 대회는 1961년 9월 11일부터 18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대회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기초건설과업이 빛나게 완수됨으로써 사회주의를 전면적으로 건설하여야 할 력사적과업이 나서고 있었으며 남조선정세와 국제정세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 나고 있던 시기에 소집되였다. 대회에는 1,157명의 결의권을 가진 대표와 73명의 발언권을 가진 대표가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하여 2. 조선로동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하여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발전7개년(1961−1967)계획에 대하여 4. 당중앙지도기관 선거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회에서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와 중요한 결론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에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가 서고 우리 나라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가진 사회주의공업농업국가로 전변되 자랑찬 승리를 총화하시고 사회주의의 전면적건설을 위한 새로운 7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7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승리한 사회주의제도에 의거하여 전면적기술개건과 문화혁명을 수행하며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적공업화를 실현하고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꾸리며 모든 인민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집》 15권, 210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7개년계획의 부문별과업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히시면서 7개년계획기간에 공업총생산액은 3.2배로, 알곡총생산량은 600만톤수준으로 높일것이 예견되여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과학문화를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들을 밝히시였다.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남조선혁명의 성격과 기본임무를 밝히시고 로동자, 농민의 독자적인 혁명적당을 조직할데 대한 과업을 밝히시였으며 우리 당의 자주적조국통일방침을 다시금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총결기간 당건설분야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을 총화하시고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며 그의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이기 위한 강령적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히 수정주의,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를 반대하고 당의 사상의지의 통일을 고수함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당조직들이 당중앙위원회와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며 어떠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당중앙위원회와 운명을 같이 하여 끝까지 투쟁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국제정세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에 기초하시여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며 우리 당의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관철하는데서 제기되는 과업들을 내놓으시였다. 대회에서는 당중앙위원회사업총화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보고와 결론을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또한 대회에서는 당중앙검사위원회사업총화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발전7개년계획을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으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할데 대한 선언서를 채택하였다. 대회에서는 전체 당원들의 한결같은 의사를 반영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또다시 당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였다. 대회에서는 당규약을 일부 수정보충하였다. 대회는 사회주의기초건설을 완수한 승리자의 대회, 전당이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불패의 위력을 시위한 단결의 대회였으며 우리 당과 혁명발전에서 새로운 높은 단계의 리정표를 제시한 력사적인 대회였다. 대회는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킬데 대한 위대한 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끝 없는 긍지와 자부심, 앞날에 대한 뚜렷한 전망과 승리의 신심을 안겨 주었으며 우리 혁명을 새로운 앙양에로 이끌수 있는 력사적전환의 길을 열어 놓았다. 대회는 또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남반부인민들에게 힘을 주고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새로운 국면을 열어 놓았으며 세계혁명적인민들을 고무하고 제국주의자들과 기회주의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정치사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61년 9월 11일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로작은 총결기간 우리 당이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고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거둔 빛나는 성과를 전면적으로 총화한 기초우에서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며 조국의 평화적통일과 세계혁명의 승리를 다그치기 위한 위대한 전망과 투쟁과업을 제시한 력사적문헌이다. 로작은 크게 다섯 체계로 구성되여 있다.

로작의 첫째 체계 《빛나는 총화》에서는 총결기간 우리 당이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거둔 빛나는 성과와 고귀한 경험들을 전면적으로 분석총화하였다. 이 체계의 첫째 부분에서는 사회주의개조의 완성에 대하여 분석총화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 **《낡은 경제의 사회주의적개조는 사회주의혁명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이며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풀어야 할 기본과업입니다.》** (《**김일성**저작집》 15권, 160~161페지)

로작에는 우리 당이 기술적개조에 앞서 경리형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할데 대한 독창적인 로선을 내놓고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진행한 력사적경험이 천명되여 있으며 농업협동화운동을 지도하는데서 우리 당이 견지한 자원성의 원칙과 빈농에 튼튼히 의거하면서 중농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부농을 제한하며 점차적으로 개조한 계급정책이 명시되여 있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이 과도기에 있어서 개인상공업의 좋은 측면을 리용하고 나쁜 측면을 제한하면서 그것을 점차 사회주의적경리로 개조한 력사적경험이 개괄되여 있다. 로작에서는 또한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적개조의 중요한 특징은 그것이 생산력발전수준이 비교적 낮고 기술이 뒤떨어 진 조건에서 전후 4~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끝났다는데 있다는것을 밝혔다. 이 체계의 둘째 부분에서는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를 개괄하고 우리 당은 5개년계획기간을 기술개건의 첫 단계로 규정하고 이 단계의 과업을 기한전에 성과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우리 나라를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가진 사회주의적공업농업국가로 전변시킨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 체계의 셋째 부분에서는 천리마운동의 본질과 그 발생의 주객관적요인, 천리마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당의 방침과 그 생활력에 대하여 밝혔다. 로작에서는 특히 천리마운동은 우리 당 주위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위대한 창조력의 발현이며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기 위한 전 인민적운동이라는것을 천명하고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 운동이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온갖 뒤떨어 진것을 쓸어 버리고 끊임 없는 혁신을 일으키며 사회주의건설을 비상히 촉진시키는 우리 나라 수백만근로자들의 일대 혁명운동으로 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의 총 로선으로 된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이 체계의 넷째 부분에서는 총결기간 인민정권의 경제적토대와 정치적지반이 강화됨으로써 우리의 국가사회제도가 정치경제적으로 튼튼하여 진데 대하여 총화하였다.

로작의 둘째 체계 《위대한 전망》에서는 7개년계획기간 인민경제발전의 주요과업들을 밝혔다. 이 체계의 첫째 부분에서는 7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을 밝히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근본방도를 천명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 **《7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승리한 사회주의제도에 의거하여 전면적기술개건과 문화혁명을 수행하며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있습니다.》** (우와 같은 문헌, 210페지)

로작에서는 7개년계획의 력사적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근본방도는 중공업의 우선적장성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





을 동시에 발전시키며 과학과 문화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 우리 당의 로선을 견지하며 천리마의 대진군을 계속하는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 체계의 둘째 부분에서는 7개년계획기간에 공업부문에서 해결하여야 할 중심적인 과업은 공업생산의 구조를 더욱더 완비하고 그 기술적토대를 강화하여 우리 나라에 다방면적으로 발전되고 자체의 튼튼한 원료기지를 가진 그리고 최신기술로 튼튼히 꾸려 진 자립적공업체계를 세우는데 있다는것을 지적하고 공업부문별과업을 밝혔다. 이 체계의 셋째부문에서 7개년계획기간에 농촌경리부문 앞에 나선 중심적인 과업은 기술적개조를 밀고 나가 농업의 기계화를 실현하며 농업생산을 더욱 높이는데 있다는것을 지적하고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과업들을 제시하였다. 이 체계에서는 계속하여 운수 및 체신, 과학문화의 발전, 인민생활의 향상에서 나서는 과업과 그 수행방도를 밝혔다. 이 체계의 마지막부분에서는 7개년계획수행이 가지는 의의와 그 성과적수행을 위한 기본방도를 밝히면서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신을 일으키며 내부원천을 남김없이 동원하고 엄격한 절약제도를 실시하며 천리마운동을 계속 발전시킬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로작의 셋째 체계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하여》에서는 남조선혁명의 성격과 남조선인민들의 투쟁과업,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당의 방침과 그 실현을 위한 투쟁과업을 밝히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 **《…남조선에서의 혁명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족해방혁명이며 봉건세력을 반대하는 민주주의혁명입니다.》** (우와 같은 문헌, 247페지)

여기에서는 먼저 남조선혁명의 첫째가는 대상은 미제국주의이며 지주, 예속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이 또한 남조선혁명의 대상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남조선인민들이 반제반봉건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혁명력량을 창건하여야 하며 미제의 남조선강점을 반대하며 미제침략군대를 몰아 내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계속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그리고 평화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해결할데 대한 우리 당의 자주적조국통일방침을 다시금 천명하였다.

로작의 넷째 체계 《당》에서는 총결기간 당건설에서 이룩한 거대한 성과와 앞으로 당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과업을 밝히였다. 로작의 이 체계에서는 총결기간 당이 더욱 단련되고 세련되였으며 어떠한 풍파속에서도 우리 인민을 승리에로 확고히 이끌수 있는 강유력한 당으로 장성발전한데 대하여 지적하고 당대렬이 강화되고 당의 령도적역할이 높아 졌으며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이 개선된데 대하여 총화하였다. 로작의 이 체계에서는 또한 당을 강화하기 위하여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지도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당의 세포인 초급당단체를 더욱 강화하며 각급 당위원회를 튼튼히 구리고 그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는것을 지적하고 당의 유일적령도밑에 국가기관들과 근로단체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며 각급 당위원회들이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고 혁명적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계속 확립하여 나가며 대중을 교양개조하며 당주위에 튼튼히 묶어 세워야 한다는것을 강조하였다. 이 체계의 마지막부문에서는 당을 강화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당의 사상의지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강화하는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로작의 다섯째 체계 《국제관계》에서는 대외관계분야에서 거둔 성과를 분석총화하고 반제반미투쟁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 당의 원칙적립장을 밝혔다. 로작은 먼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에 대하여 최대의 경각성을 높이며 투쟁을 통하여 평화를 쟁취하여야 한다는 우리 당의 원칙적인 반제반미적립장을 밝혔다. 로작은 또한 우리 당 대외정책의 확고부동한 기초는 사회주의나라들의 통일을 강화하며 모든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것이라는것을 밝히고 우리 당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민족적독립국가들과 우호관계를 맺고 발전시키며 피압박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과 자본주의나라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의 투쟁을 확고히 지지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로작은 계속하여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 대렬의 통일단결에 있다는것을 밝히고 사회주의나라들과 공산당, 로동당들이 호상관계의 규범을 지키고 통일단결을 강화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이 로작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남조선혁명을 수행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강령적지침으로 되였다는데 있다. 그 의의는 또한 로동계급의 사회주의혁명리론, 당건설리론을 더욱 발전풍부화시키고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과 세계혁명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는데 있다.





조선로동당 대표자회

(1966.10)

정치사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성된 정세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내부형편을 정확히 분석하시고 우리 나라 혁명과 국제공산주의운동 및 세계혁명운동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대내외활동방침을 제시하신 력사적인 회의. 당대표자회는 1966년 10월 5일부터 12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결의권을 가진 대표 1,275명과 발언권을 가진 대표 48명이 참가하였다. 회의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는 침략책동을 더욱 발광적으로 감행하면서 세계도처에서 평화를 교란하고 있었으며 한편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서는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던 환경속에서 열리였다. 회의에서는 1. 현 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2.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당면과업에 대하여 3. 웰남문제에 관한 조선로동당대표자회 성명채택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대표자회에서 《현 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이라는 력사적인 보고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현 국제정세와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심오히 분석하시고 전반적 세계혁명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적이며 독창적인 길을 명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세계혁명의 기본전략에 대하여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세계혁명의 기본전략은 미제에 주되는 창끝을 돌리는데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집》 20권, 401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제와 함께 그 동맹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으로 사회주의나라들의 통일과 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원칙과 방도에 대하여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을 더욱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건설의 전반적사업을 개편하며 특히 원쑤들의 침략책동에 대비하여 국방력을 더욱 강화할수 있도록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것입니다. 이것은 정세의 변화와 관련하여 벌써 몇해전부터 집행하여 온 우리 당의 기본적인 전략적방침입니다.》 (우와 같은 문헌, 415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대오의 정치사상적통일단결을 강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단결을 강화하는 사업과 계급투쟁을 옳게 결합할데 대한 문제,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문제 등에 대하여 새롭게 밝혀 주시였다. 당대표자회에서는 의정 첫째 문제와 둘째 문제에 대한 결정서와 그리고 웰남문제에 관한 조선로동당대표자회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회의는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당의 통일단결을 시위하였으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 당의 자주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뚜렷이 확증하였다. 또한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끝까지 충실하려는 우리 당의 혁명적립장을 힘 있게 과시하였다. 당대표자회는 공화국북반부에서 혁명과 건설을 촉진하고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며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과 기회주의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세계혁명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을 가일층 발전시키는데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열어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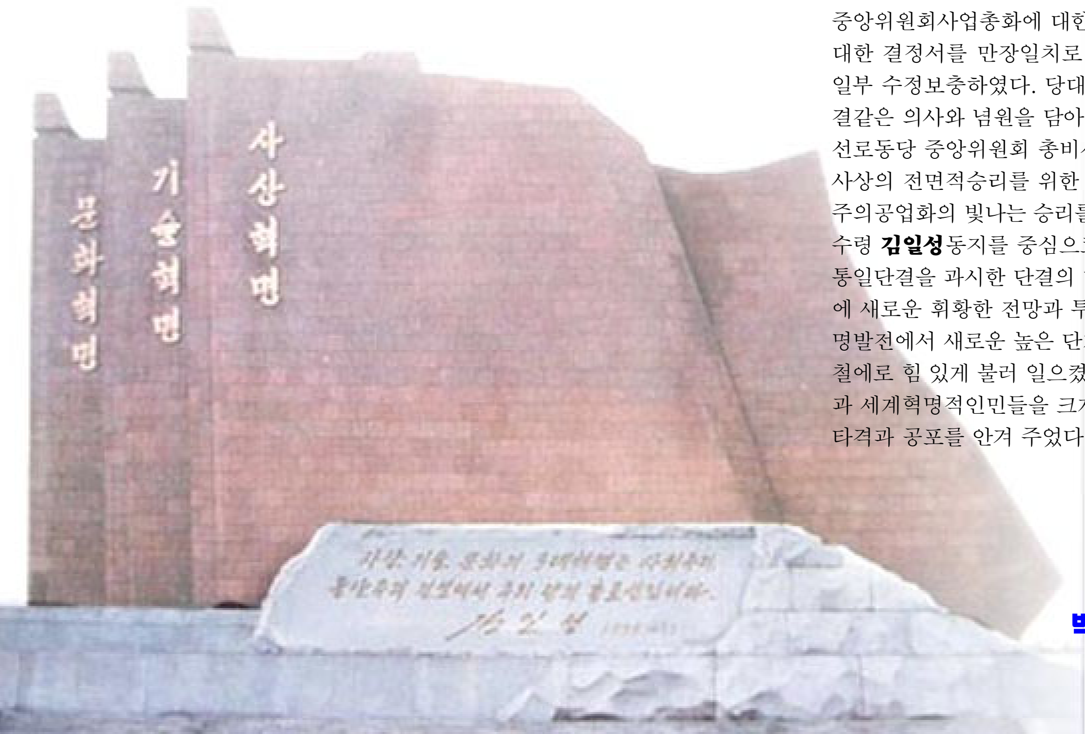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

정치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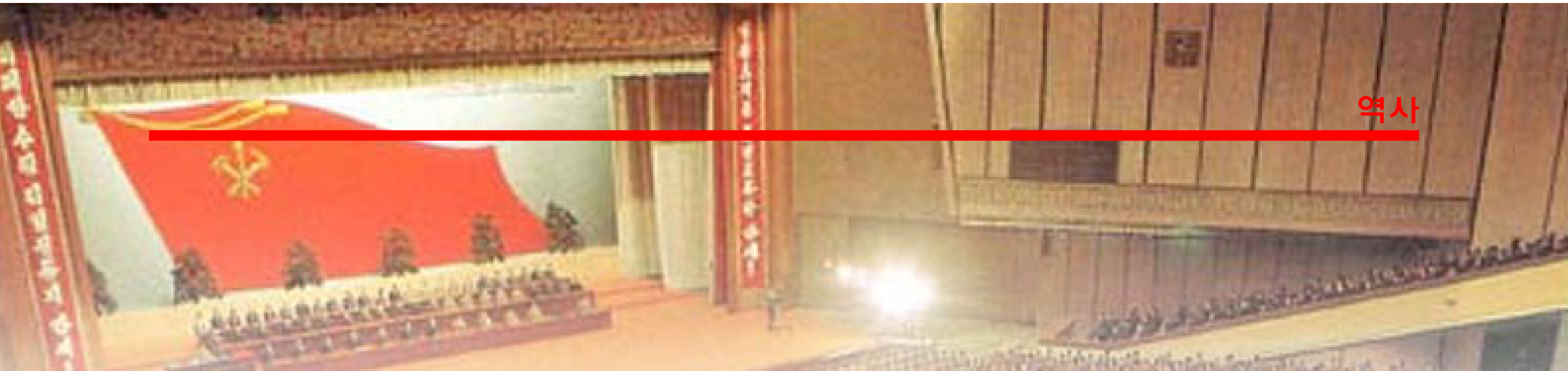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총결기간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를 총화하시고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6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제시하신 력사적인 회의. 대회는 1970년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대회는 사회주의공업화의 과업이 빛나게 완수되였으며 전당과 온 사회에 주체의 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이 일어 나고 있던 시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혁명적진출이 강화되고 우리나라의 국제적지위도 훨씬 강화되였던 시기에 소집되였다. 대회는 각급 당조직들에서 선거 받은 결의권대표 1,734명과 발언권대표 137명 기타 방청자들을 포함하여 모두 3,071명이 참가하였다. 그리고 통일혁명당대표들과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이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사업총화 2. 조선로동당 중앙검사위원회사업총화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발전6개년91971-1976)계획에 대하여 4. 조선로동당 중앙지도기관선거를 토의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회에서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사업총화 보고와 결론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총결기간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들을 전면적으로 총화하시고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하여 깊이 분석하시였으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로운 6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내놓으시면서 그의 기본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분야에서 6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공업화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며 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것입니다.》 (《**김일성**저작집》 25권, 266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6개년계획을 내놓으시면서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며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벗어 나도록 할데 대한 3대기술혁명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수령님께서는 문화혁명을 계속 힘있게 밀고 나가기 위한 사회주의문화건설의 중요한 과업과 사상혁명을 앞세워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을 계속 심화발전시키키기 위한 과업을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국방력을 보다 강화할데 대한 과업과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남조선혁명의 성격과 기본임무, 대상과 동력, 과업에 대하여, 그리고 자주적조국통일방침에 대하여 다시금 밝히시고 그 실현을 위한 방도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세계혁명을 추진하며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당건설과 당사업에서 거둔 성과를 총화하시고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계속 공고발전시키며 그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기 위한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수령님께서는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며 그에 기초하여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것을 당사업의 총적과업으로 규정하시고 당사업의 기본인 사람과의 사업을 잘할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대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사업총화에 대한 결정서와 인민경제발전6개년계획에 대한 결정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당대회에서는 당규약을 일부 수정보충하였다. 당대회에서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담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또다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로 높이 추대하였다. 당대회는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와 사회주의공업화의 빛나는 승리를 총화한 승리자의 대회였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한 전당과 전체 인민의 확고부동한 통일단결을 과시한 단결의 대회였다. 대회는 전당과 전체 인민 앞에 새로운 휘황한 전망과 투쟁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우리 당과 혁명발전에서 새로운 높은 단계를 열어 놓았으며 우리 인민을 그 관철에로 힘 있게 불러 일으켰다. 대회는 또한 싸우는 남반부인민들과 세계혁명적인민들을 크게 고무하였으며 원쑤들에게는 커다란 타격과 공포를 안겨 주었다.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정치사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0년 11월 2일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로작은 당을 강화하고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를 이룩하며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우리 당의 업적과 경험을 분석총화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며 세계혁명을 전진시키기 위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신 력사적문헌이다. 로작은 크게 다섯 체계로 되여 있다.

로작은 앞부분에서 당 제4차대회가 있은 때로부터 지난 9년간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룩된 성과를 개괄하였으며 당 제5차대회의 의의를 밝히였다.

로작의 첫째 체계 《위대한 총화》의 앞부분에서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당 제4차대회와 당대표자회에서 내놓은 과업을 훌륭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커다란 승리를 이룩한데 대하여 전면적으로 총화하였다. 로작은 이 체계의 머리부분에서 우리 당 제4차대회와 당대표자회에서 내놓은 혁명적로선과 그 정당성에 대하여 밝혔다. 이 체계의 첫째 부분에서는 우리 나라가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된 력사적승리를 총화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총결기간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된 가장 위대한 성과는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이 빛나게 실현되여 우리 나라가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된것입니다.》 (《**김일성**저작집》 25권, 235페지)



로작에서는 당의 정확한 공업화로선과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당의 현명한 령도 그리고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자본주의나라에서 옹근 한 세기, 지어는 몇세기에 걸쳐서 한 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이 14년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실현된데 대하여 전면적으로 분석총화하였다. 이 체계의 둘째 부분에서는 우리 당의 옳바른 문화건설방침이 훌륭히 관철되여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 과학연구사업과 문화예술사업 등 문화혁명수행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된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이 체계의 셋째 부분에서는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이 공고화된데 대하여 총화하였다. 이 체계의 넷째 부분에서는 전 인민적, 전 국가적 방위체계를 수립한데 대하여 총화하였다. 이 체계의 다섯째 부분에서는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가 전면적으로 확립된데 대하여 밝히였다. 로작은 대안의 사업체계,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농업지도체계가 창시됨으로써 새로운 사회주의적경제관리체계가 전면적으로 확립되였다는것을 지적하고 이 새로운 경제관리체계의 본질과 우월성, 그 확립이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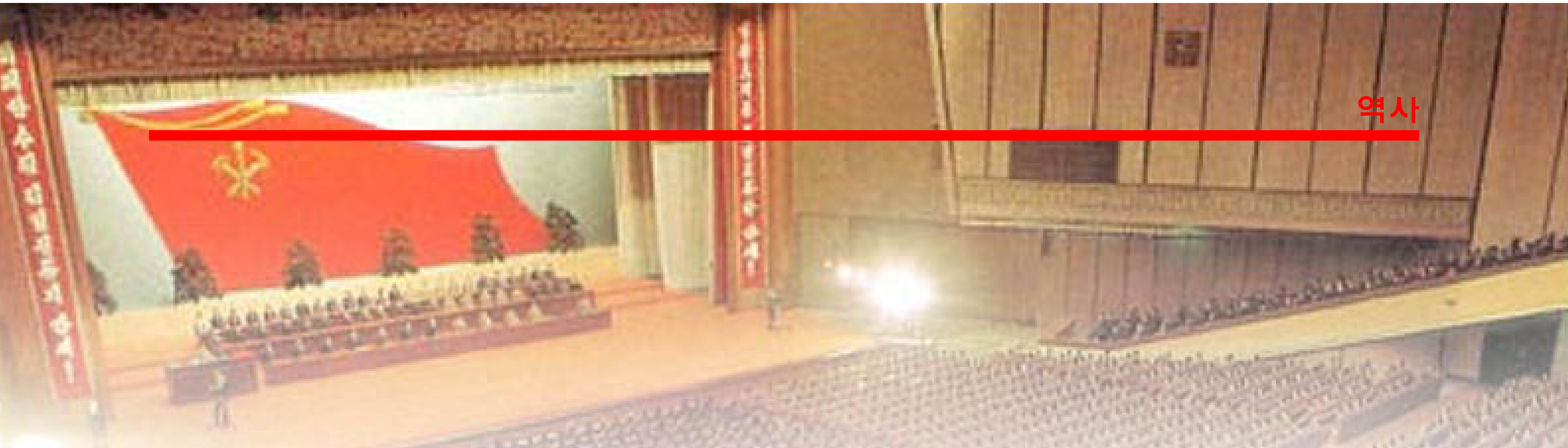
로작의 둘째 체계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에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웅대한 투쟁강령을 전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체계의 첫머리에서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적과업을 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제도를 튼튼히 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반드시 점령하여야 할 두 요새인 물질적요새와 사상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 있게 벌려야 합니다.

우리는 기술혁명을 더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켜 생산력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며 문화건설을 다그쳐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더욱 개화발전시키며 사상혁명을 앞세워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힘 있게 밀고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와 같은 문헌, 265페지)

이 체계에서는 계속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분야에서 6개년



계획의 기본과업은 공업화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며 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근로자들을 힘들 로동에서 해방하는데 있다는것을 밝히고 공업, 농업, 수송 등 새 전망계획기간 인민경제부문별과업을 밝혔다. 이 체계에서는 또한 3대기술혁명과업을 밝히면서 공업과 농촌경리를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신운동을 널리 벌려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며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벗어 나도록 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이 체계의 둘째 부분에서는 사회주의문화건설과업을 제시하였다. 로작은 현 시기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과업은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적경향을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이라고 지적하고 교육, 과학, 문학예술, 체육 등 사회주의문화건설의 부문별과업을 제시하였다. 이 체계의 셋째 부분에서는 사상혁명,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쳐 나갈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로작은 사상혁명을 앞세워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밝히고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방도를 제시하였다. 이 체계의 넷째 부분에서는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며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는것을 강조하였다. 이 체계의 다섯째 부분에서는 인민생활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하여 밝혔다. 로작은 현 시기 인민생활문제해결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 있는 기본방침을 밝히고 로동자, 농민의 생활수준에서의 차이,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생활조건에서의 차이를 없앨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로작의 셋째 체계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하여》에서는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분석총화하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강령적과업을 밝혔다. 로작은 남조선혁명은 전 조선혁명의 구성부분이라는것을 지적하고 남조선혁명의 성격과 기본임무, 대상과 동력을 밝혔다. 로작은 또한 조국통일과 남조선혁명을 위한 투쟁을 개괄하고 그 과업을 밝혔다.

로작의 넷째 체계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에서는 우리 당이 국제관계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를 총화하고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며 세계혁명의 승리를 다그치기 위한 전략적방침을 밝혔다. 이 체계에서는 특히 혁명하는 나라, 투쟁하는 나라 인민들이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각각 미제의 팔도 뜯어 내고 다리도 뜯어 내며 머리를 잘라 버려야 한다는것을 밝히고 비록 적은 힘이라고 하더라도 세계 혁명적인민들이 이렇게 모두 함께 달라 붙어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 있게 벌리며 미제의 각을 이르는 곳마다에서 뜨게 되면 미제는 결국 멸망하고야 말것이라고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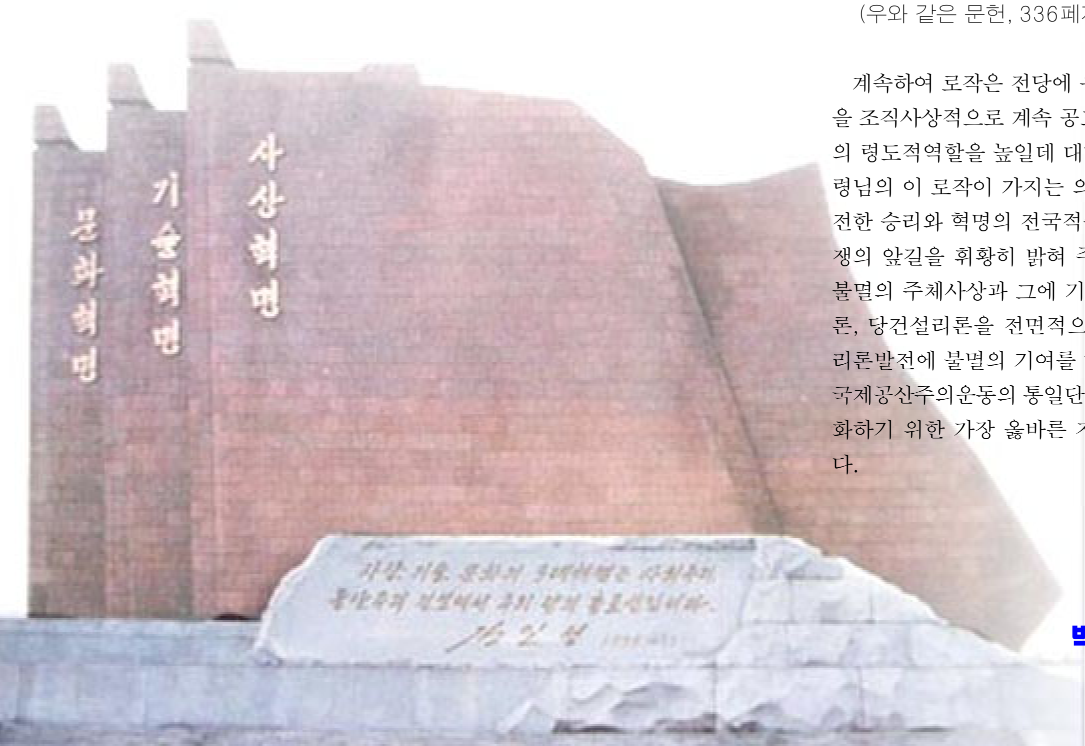
로작의 다섯째 체계 《당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에서는 당건설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분석총화하고 당의 공고발전과 그 령도적역할을 높이기 위한 과업에 대하여 밝혔다. 로작은 당안에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서고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통일단결이 이루어 졌으며 당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가 이룩되였다는것을 밝히고 당사업의 총적과업을 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맑스-레닌주의사상, 우리 당의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지도사상으로 하여 당안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그에 기초하여 당대렬의 사상의지의 통일을 강화하는 사업을 총적과업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당사업을 계속 심화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와 같은 문헌, 336페지)

계속하여 로작은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계속 공고발전시키며 혁명과 건설에서 그의 령도적역할을 높일데 대한 과업을 제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로작이 가지는 의의는 무엇보다도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 주었다는데 있다. 그 의의는 또한 불멸의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리론, 당건설리론을 전면적으로 밝힘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에 불멸의 기여를 하였다는데 있다. 그 의의는 또한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을 이룩하며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기 위한 가장 옳바른 지도적지침을 마련하였다는데 있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

정치사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총결기간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를 전면적으로 총화하시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할데 대한 전투적강령과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발전을 위한 과업들을 제시하신 력사적인 대회. 대회는 1980년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대회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적극 추진됨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전면적으로 다그쳐 나갈수 있는 강력한 토대가 마련되였으며 남조선혁명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 나고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이 비상히 강화되였으며 우리 당의 조직사상적기초가 튼튼히 다져 져 자기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 선 환경속에서 소집되였다. 대회에는 결의권을 가진 대표 3,062명과 발언권을 가진 대표 158명이 참가하였으며 각급 당, 행정경제기관, 근로단체 일군들, 인민군대와 과학, 교육, 문화예술, 보건, 출판보도 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세계 118개 나라에서 온 177개의 대표단들과 대표들, 저명한 사회정치활동가들과 보도계인사들 그리고 우리 나라 주재 외교대표들이 초대되였다. 또한 통일혁명당대표단과 재일조선인축하단이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사업총화, 2. 조선로동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3. 조선로동당 규약개정에 대하여, 4. 조선로동당 중앙지도기관선거를 토의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회에서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당 제5차대회후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와 자랑찬 업적을 전면적으로 총화하시고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나서는 새로운 투쟁강령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더욱 힘 있게 다그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8권, 338폐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하여서는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며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구체적으로 밝히시였다. 위대한수령님께서는 또한 1980년대에 도달하여야 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또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할데 대한 새로운 조국통일방안을 내놓으시고 통일국가의 10대시정방침을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우리 당의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다시금 천명하시고 자주, 친선, 평화를 우리 당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으로 규정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또한 총결기간 당사업에서 이룩한 주되는 성과는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는 조직사상적기초가 튼튼히 다져 진것이라고 강조하시고 당사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과업들도 밝히시였다. 대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또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우리 당을 영원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당규약을 새로 채택하였다. 대회에서는 전체 당원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반영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또다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로 높이 추대하였다. 당 제6차대회는 위대한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와 우리 당의 불패의 위력을 내외에 널리 시위한 승리자의 대회,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과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한 력사적인 대회로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정치사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80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로작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계승문제를 빛나게 해결하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명확한 앞길을 밝혀 준 강령적문헌이다. 로작은 크게 다섯 체계로 구성되여 있다. 로작의 첫째 체계 《3대혁명의 빛나는 승리》에서는 3대혁명로선을 구현하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에 대하여 분석총화하였다. 이 체계의 첫째 부분에서는 3대혁명의 본질과 필연성에 대하여 밝히고 이 로선을 구현하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에 대하여 개괄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8권, 318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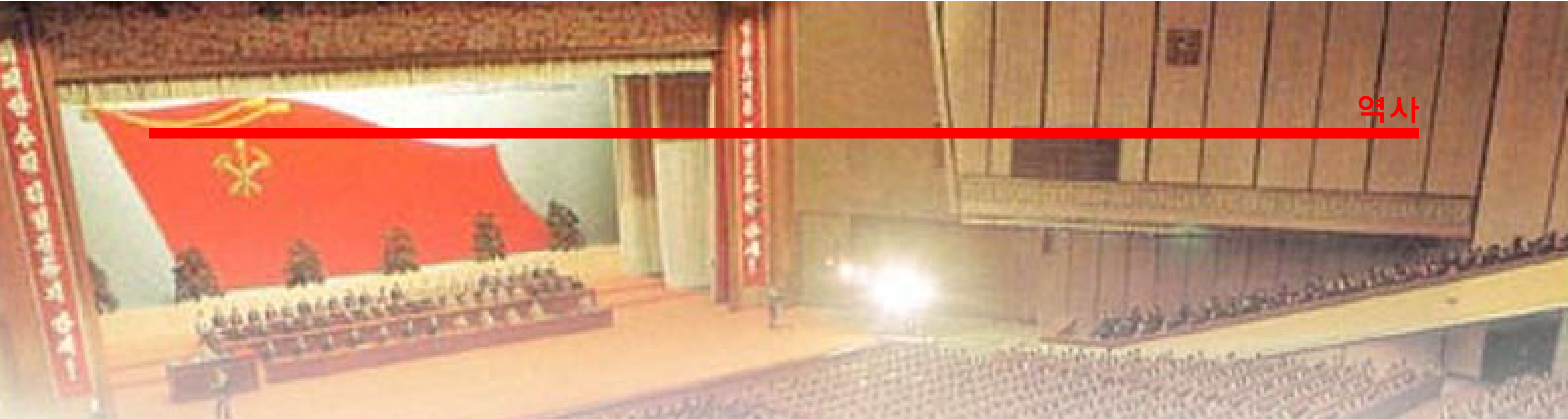
로작에서는 3대혁명의 본질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라는데 있으며 3대혁명의 력사적필연성은 근로인민대중을 낡은 사상과 기술, 문화의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하기 위한데 있다는것을 지적하고 우리 당이 새 사회 건설의 길에 들어선 첫날부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수행할데 대한 방침을 내세우고 힘 있게 밀고 나간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 체계의 둘째 부분에서는 사상, 기술, 문화 혁명에서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우리 당이 사상혁명을 사회주의건설의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여기에 선차적인 힘을 넣은 결과 오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온 사회에 주체사상이 꽉 들어 찼으며 당에 대한 인민대중의 신뢰가 비상히 높아 지고 당과 대중의 통일단결이 더욱 강화되였다. 우리 당이 기술혁명수행에 큰 힘을 넣은 결과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그들의 로동조건을 개선하는데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으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이 빨리 장성하고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한층 더 튼튼하여 졌다. 우리 당이 문화혁명수행에 계속 큰 힘을 넣음으로써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고 주체예술의 대전성기가 마련되였으며 근로자들의 문화생활수준이 훨씬 높아 졌다. 이 체계의 셋째 부분에서는 우리 나라의 국가사회제도가 공고발전된데 대하여 분석하였다. 로작의 둘째 체계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자》에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로 선포하고 사람과 사회와 자연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히였다. 로작은 이 체계의 첫째 부분에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로 선포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입니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함으로써만 종국적으로 완성될수 있습니다.》** (우와 같은 문헌, 338페지)

계속하여 로작은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투쟁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이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그 실현의 근본방도라는것을 밝혔다. 또한 로작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사업에서 오늘 우리 당과 인민앞에 나서는 당면한 투쟁과업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로작은 이 체계의 둘째 부분에서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에 대하여 밝히였다. 로작은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기 위한 투쟁을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적인 사상의식과 높은 문화수준을 가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존재로 만드는 인간개조사업으로, 모든 사회관계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는 사회개조사업으로 규정하였으며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를 실현하기 위한 과업과 그 수행방도를 밝히면서 이 사업을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로동계급부터 철저히 혁명화하고 그를 본보기로 하여 농민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하며 인테리를 혁명화하고 청소년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여야 한다는것을 강조하였다. 계속하여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치기 위하여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 배우는 운동을 벌릴데 대하여 지적하고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위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이 체계의 셋째 부분에서는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과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략적로선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과업을 밝히면서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선차적힘을 넣으면서 인민경제를 현대화하며 과학화하기 위한 투쟁을 다같이 힘 있게 밀고 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 체계의 넷째 부분에서는 193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주요과업을 제시하였다. 로작은 먼저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과업은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체계적으로 높이는데 있다는것을 지적하고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제시하였다.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높은 속도로 장성시켜 가까운 앞날에 한해에 1,000억키로와트시의 전력, 1억 2,000만톤의 석탄, 1,500만톤의 강철, 150만톤의 유색금속, 2,000만톤의 세멘트, 700만톤의 화학비료, 15억메터의 천, 500만톤의 수산물, 1,500만톤의 알곡을 생산하며 앞으로 10년동안에 30만정보의 간석지를 개간하는것이다. 로작의 셋째 체계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에서는 지난 기간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당의 투쟁을 총화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서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투쟁과업과 새로운 통일강령을 밝히였다. 로작에서는 우선 총결기간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당의 투쟁을 총화하고 남조선에서 식민지군사파쑈통치를 청산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과업을 밝혔으며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남조선에서 군사파쑈통치를 청산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여야 하며 조선의 내정에 대한 미제의 간섭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로작은 조국통일3대원칙에 기초하여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할데 대한 새로운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조국이 통일된 다음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이 실시하여야 할 10대시정방침을 밝히였다. 로작의 넷째 체계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강화하자》에서는 총결기간 국제정세변화와 국제관계분야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성과를 분석하고 국제혁명력량을 강화하고 세계혁명을 촉진시키기 위한 전략적로선과 우리 당의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밝히였다. 로작에서는 현 시기 국제혁명력량을 강화하고 세계혁명을 촉진시키기 위한 전략전술적방침은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강화하고 쁠럭불가담운동을 확대발전시키며 사회주의력량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을 이룩하는것이라고 지적하고 우리 당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을 자주, 친선, 평화로 규정하였다. 계속하여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며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관계를 발전시키고 세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며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민족적독립과 새 사회 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을 적극 지지할데 대한 우리 당의 대외정책을 천명하였다. 로작의 다섯째 체계에 《당사업을 강화하자》에서는 총결기간 당사업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를 총화하고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강령적과업을 밝히였다. 이 체계에서는 먼저 총결기간 당사업에서 이룩된 주되는 성과는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며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는 조직사상적기초가 튼튼히 다져 진것이라고 지적하고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당과 혁명의 장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가 빛나게 해결되였다는것을 말해 주는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계속하여 총결기간 당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는 당조직들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이 더욱 높아 지고 당원들의 당생활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으며 당사상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 나고 당사업방법을 개선하는데서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된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 체계에서는 다음으로 당사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과업을 밝히면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전당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워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을 강화하는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당안에 혁명적인 사업체계와 규률을 세울데 대한 문제, 사람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당대렬과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는 문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 문제,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 문제, 당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강화할데 대한 문제들을 제기하였다. 로작이 가지는 의의는 첫째로,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를 총화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 주었다는데 있다. 그 의의는 둘째로,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리론,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리론을 밝힘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의 보물고를 끝없이 풍부히 하였다는데 있다. 그 의의는 셋째로, 주체사상에 기초한 혁명리론과 전략전술로 우리 시대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 주었다는데 있다.





조선로동당 제 6차 대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김일성** / 당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1980년 10월)

5. 당 사업을 강화하자

동지들!

총결기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이룩된 모든 승리는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와 정력적인 투쟁의 고귀한 결실입니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용감하게 이겨내면서 자랑찬 혁명의 길을 꿋꿋이 걸어 왔으며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능숙하게 이끌어 왔습니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어렵고 복잡한 투쟁과정에 더욱 단련되고 세련되였으며 불패의 혁명적 당으로 강화발전되였습니다. 혁명과 건설의 승리적인 진전 속에서 당은 자기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당사업에서는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총결기간 당사업에서 이룩된 주되는 성과는 우리의 혁명위업을 끝가지 완성하여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킬 수 있는 조직사상적 기초가 튼튼히 다져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당과 혁명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가 빛나게 해결되였다는 것을 말하여 줍니다.

총결기간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더욱 전면적으로, 더욱 튼튼히 확립되였으며 당의 전투력이 비상히 강화되였습니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대렬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혁명적 단결이 더욱 공고화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할 수 있는 정연한 사업체계와 혁명적 규률이 확립되였습니다.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 것은 혁명적 당건설의 근본원칙입니다. 우리 당은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공고히 하며 당의 령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로동계급의 당건설에서 나서는 이 중대한 문제를 훌륭히 해결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당의 통일과 단결은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습니다. 전당이 당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철석같이 뭉쳐 있으며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단합되여 있습니다. 우리 당에는 주체사상밖에 그 어떤 다른 사상도 발붙일 틈이 없으며 그 어떤 힘도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이룩된 우리 당의 통일과 단결을 절대로 허물 수 없습니다.

전당에 당의 결정과 지시는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 기풍이 수립되였습니다. 당의 결정과 지시는 당의 조직적 의사이며 그것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것은 당원들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오늘 우리의 당조직들과 당원들은 당의 로선과 방침, 당의 결정과 지시를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이고 한치의 드팀도 없이 철저히 관철하고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의 령도 밑에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규률이 확립되였습니다. 우리 당 안에는 모든 당조직들이 민주주의중앙집권제 원칙에 따라 하나의 유기체와 같이 움직이며 모든 당원들이 제정된 질서와 행동규범에 따라 일하며 생활하는 기풍이 철저히 서 있습니다. 우리 당의 규률은 당원들의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혁명에 대한 높은 책임성에 기초하고 있는 자각적인 규률이며 바로 이것으로 하여 우리 당 규률은 커다란 생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대렬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혁명적 단결이 더욱 강화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할 수 있는 정연한 사업체계와 혁명적 규률이 확립됨으로써 우리 당의 위력은 비할 바 없이 강화되였습니다. 전당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모든 당원들이 당의 령도를 적극 받들어나가는 여기에 우리 당의 불패의 위력의 원천이 있으며 우리의 모든 승리의 결정적 담보가 있습니다.

총결기간 우리 당은 당조직들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렸으며 이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당위원회들을 튼튼히 꾸리고 민주주의를 비롯한 각급 당위원회들을 당에 끝없이 충실한 일군들과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핵심당원들을 배합하여 잘 꾸렸으며 당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제기된 문제를 당원들의 의사에 맞게 민주주의적으로 토의결정하고 위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그것을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데서 우의 당조직이 아래 당조직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급 당조직들에 아래 당조직들에 대한 장악지도체계를 정연하게 세움으로써 우리 당조직들이 아래 당조직들의 활동정형과 사업실태를 늘 환히 꿰들고 제때에 필요한 지도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부지도체계에 따라 각급 당기관 일군들이 늘 아래에 내려가 실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아래 일군들을 실속있게 도와 준 결과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특히 당중앙위원회가 계획적으로 진행한 지방 당조직들에 대한 집중지도는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데서 커다란 작용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각급 당조직들은 해당 단위의 참모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조직들이 혁명과업수행에 대한 당적 지도를 원만히 하고 있으며 해당단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업을 책임적으로 주관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에 맞게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든 당조직들이 군중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으며 군중 속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군중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당조직이 움직이고 있으며 당조직이 움직이는 곳에서는 언제나 당의 숨결이 맥박치고 있습니다. 인민들은 당조직들을 통하여 당과 잇닿아 있으며 당조직들의 활동에서 당의 손길을 느끼고 있습니다.

총결기간 당원들의 당생활에서 커다란 전진이 있었습니다.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는 것은 당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가는 기본고리입니다.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는 데 당의 전투력을 높이며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담보가 있습니다.

우리 당은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당생활체계를 세우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새로운 당생활체계는 항일유격대식 당생활기풍을 오늘의 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것으로서 당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는 훌륭한 학교로 되고 있습니다.

당원들 속에서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이 섰으며 당생활수준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모든 당원들이 당생활에 참가하는 것을 커다란 영예로 신성한 의무로 여기고 당생활에 성실히 참가하고 있으며 당생활을 통하여 자신을 정치사상적으로 끊임없이 단련하고 있습니다.

당 안에 당생활체계가 철저히 서고 혁명적인 당생활기풍이 확립됨으로써 당원들의 조직성과 규률성이 강화되였으며 혁명과업 수행에서 그들의 선봉적 역할이 높아졌습니다. 높은 당적 자각과 왕성한 기백을 가지고 군중의 앞장에서서 혁명적으로 일하고 배우며 생활하는 것이 오늘 우리 당원들의 고상한 풍모입니다.

총결기간 당사상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당사상사업에서는 형식주의가 없어지고 사상교양의 내용과 방법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였습니다. 당사상사업이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교양, 유일사상교양을 기본으로 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진행되고 있으며 혁명과업 수행과 밀접히 결부되여 기동성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사상사업에서 격식이나 차리고 겉치레만 하던 낡은 틀이 없어졌으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사상교양사업이 실속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사상사업의 중요한 목적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불러일으켜 사회주의건설을 잘하는 데 있습니다. 당조직들을 당 경제정책선전과 경제선동을 활발히 벌림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경제정책 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으며 사회주의대건설전투의 승리를 보장하는 데 적극 이바지하였습니다. 사회주의대건설장들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영웅적 위훈에로 고무한 대중정치사업, 다양하고 힘있는 선동사업은 커다란 생활력을 보여 주었습니다.

총결기간 온 나라에 혁명적 학습기풍이 수립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전당, 전민, 전군이 학습하자!라는 구호 밑에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학습을 첫째가는 혁명임무로, 생활상 제일차적인 요구로 내세우고 언제 어디서나 꾸준히 학습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부들이 학습에서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간부들이 당 안에 제정된 학습규률을 철저히 지키고 있으며 높은 당적 자각을 가지고 학습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당사상사업에서 출판보도물들의 역할이 강화되였습니다. 출판보도사업에서 주체가 튼튼히 섰으며, 출판보도물의 사상, 리론 수준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출판보도물은 당사상사업의 예리한 무기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총결기간 당사상사업에서의 성과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 풍모가 새롭게 변모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이 일어나고 있는 데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온 사회에 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혁명적 열정이 차넘치고 혁명과 건설에서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이 련이어 창조되는 것은 우리 당이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상사업을 힘있게 벌려 온 결과입니다.

총결기간 당사업방법을 개선하는 데서도 획기적인 전진이 있었습니다.

지난 기간 우리 당에서는 재래식 사업방법이 오래동안 내려오면서 당사업발전을 저애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당사업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낡은 관료배식 사업방법을 철저히 없애고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을 전면적으로 확립하였습니다.

당사업 전반에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이 구현됨으로써 당의 면모가 새로워지고 당사업기풍이 근본적으로 일신되였습니다. 전당에 혁명적 기백이 약동하며 모든 사업이 패기있고 생기발랄하게 진행되는 것이 오늘 우리 당의 면모이며 사업기풍입니다.

총결기간 당사업에서는 참으로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을 기쁘게 하는 빛나는 성과가 이룩되였습니다. 지난 기간 당사업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는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휘황한 미래를 확고히 담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건설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당사업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가며 우리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당사업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전당에 유일사상





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는 것입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은 당이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계속하여야 하며 혁명이 심화발전될수록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것을 당건설의 기본로선으로 틀어쥐고 이 사업을 계속 힘있게 밀고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는 주체의 사상체계입니다. 모든 당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전당에 주체사상이 차넘치게 하여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이 주체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주체사상밖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모른다고 확고한 립장과 관점을 가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대렬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혁명적 단결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확고히 보장하여야 우리 당의 주체적 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할 수 있으며 당 앞에 어떠한 난관과 시련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용감하게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당조직들은 언제 어디서나 당의 통일과 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야 하며 당의 통일과 단결을 좀먹는 온갖 현상을 반대하며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은 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가지고 당중앙위원회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사상의 승리를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데서 당안에 혁명적인 사업체계와 규률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당의 사상과 령도는 당중앙위원회의 혁명적인 지도에 의하여 구현되며 혁명과 건설도 당의 정확한 지도 밑에서만 곧바른 승리의 길을 따라 전진할 수 있고 끝까지 완성될 수 있습니다. 당의 령도가 확고히 보장되어야 주체사상의 순결성을 고수할 수 있으며 당대렬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당조직들은 무엇보다 먼저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는 데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하겠습니다.

간부는 당의 핵심력량이며 혁명의 지휘성원입니다. 간부대렬을 잘 꾸리야 당의 전투력을 높일 수 있으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옳게 관철할 수 있습니다.

간부의 첫째가는 표징은 당에 대한 충실성입니다. 간부는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할 높은 사상적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간부는 또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혁명적 사업방법과 인민적 사업작풍을 가져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당에 대한 충실성이 높고 정치 실무적 능력이 있으며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이 좋은 일군들을 선발하여 간부대렬을 잘 꾸려야 하겠습니다.

간부대렬의 질적 구성을 끊임없이 개선하는 것은 간부사업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간부대렬을 로간부와 젊은 간부를 적절히 배합하여 꾸리며 간부대렬 구성에서 로동계급 출신의 비중을 계속 높여 나가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지난 기간 당에 충실하여 온 로간부들이 계속 일을 잘하도록 적극 도와주는 한편 주체교육을 받고 새로 자라난 젊은 일군들을 대담하게 간부로 등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오래동안 로동 속에서 단련된 로동자들, 특히 기간공업부문 공장, 기업소의 핵심로동자들을 간부로 많이 등용하여야 하겠습니다.

간부대렬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간부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간부들을 선발배치하는 것은 간부사업의 첫 공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일 간부들을 등용하는 데 그치고 교양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간부자리를 벼슬자리로 여기면서 세도를 쓰고 관료주의를 부릴 수 있으며 나중에는 낡은 사상의 영향을 받아 변질될 수 있습니다. 오늘 혁명적 단련이 부족한 젊은 간부들이 간부대렬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 사정은 간부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할 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조직들은 간부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강화함으로써 모든 간부들을 철저히 혁명화하여야 하겠습니다.

혁명과 건설이 전진하는 데 따라 늘어나는 간부수요를 원만한 충족시키기 위하여서는 후비간부양성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간부양성기관들의 사업을 개선강화하여 정치실무적으로 준비된 간부들을 더 많이 키워내야 하겠습니다. 각급 당조직들을 현직일군들 속에서 간부후비를 장악하고 실지사업을 통하여 그들을 간부로 키우는 한편 중요한 공장, 기업소들과 우수한 협동농장들을 간부양성기지로 꾸리고 거기에서 후비간부를 많이 키워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원들의 당생활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는 것은 당성단련의 중요한 방도입니다. 당생활을 강화하여 당원들의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하여야 그들을 혁명의 정수분자로 키울 수 있으며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당성이란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입니다. 그것은 주체의 혁명적 세계관에 기초한 높은 계급적 자각이며 당을 옹호보위하며 당의 로선과 결정을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고상한 혁명정신입니다. 당원은 누구를 막론하고 일생 동안 끊임없이 당성을 단련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고 빛내여 나갈 수 있으며 당과 혁명에 끝까지 충실할 수 있습니다.

당생활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당원들의 조직관념을 높여야 합니다. 당조직을 어머니 품과 같이 여기며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여 생활하는 것은 우리 당원들이 지녀야 할 고상한 품성입니다. 당





조직들은 당원들의 조직관념을 높임으로써 그들이 높은 정치적 자각을 가지고 당생활에 성실히 참가하여 당규약과 당생활규범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는 데서 당세포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세포는 당의 기층조직이며 당생활의 거점입니다. 당원들의 당생활을 조직하고 지도하여야 할 책임이 바로 당세포에 맡겨져 있습니다. 당세포들은 당생활을 철저히 정규화하고 당원들을 당생활에 빠짐없이 참가시키며 당적 분공을 옳게 조직하여 모든 당원들이 늘 움직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조직들은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여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야 하겠습니다.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광범한 군중은 당의 계급적 및 사회적 지반입니다. 군중을 떠난 당이란 있을 수 없으며 군중을 묶어세우지 못한 당은 위력할 수 없습니다. 군중 속에 깊이 뿌리를 박고 광범한 군중을 튼튼히 묶어세우는 여기에 우리 당의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이 있습니다. 우리는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각계각층 군중들과의 사업을 계속 잘해나가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기본군중과의 사업을 잘하는 데 선차적 힘을 넣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당의 계급적 진지를 더욱 공고히 하며 기본계급 속에서 당의 역량을 끊임없이 확대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조직들은 복잡한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는 데도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복잡한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는 데도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복잡한 군중과의 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성분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물현상이 변하듯이 사람의 성분도 사회가 발전하고 환경이 달라지는 데 따라 변합니다. 해방 후 35년이 지나는 동안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처지는 근본적으로 개변되였으며 그들의 사상정신적 풍모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지난 날의 계급적 처지나 경력만 보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사상상태를 기본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지난날의 계급적 처지와 사회정치생활경위가 복잡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오늘 당과 혁명에 충실한 사람에 대하여서는 진심으로 믿어주고 대담하게 포섭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 세워야 합니다.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근로단체들의 기본임무는 동맹 안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며 동맹원들을 사회주의건설에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것입니다. 직맹, 농근맹, 사로청, 녀맹 조직들은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동맹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며 그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발동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집단적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조직들은 사상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은 정치적 조직이며 사상사업은 당의 기본임무입니다. 당조직들은 언제나 사상사업에 선차적인 주의를 돌려야 하며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당사상사업 부문 앞에 나서는 첫째가는 과업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당조직들은 유일사상교양을 강화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당조직들은 유일사상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이 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가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상교양을 강화하는 것은 당사상사업의 중요한 과업입니다. 당조직들은 혁명교양, 공산주의교양을 강화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남아 있는 온갖 낡은 사상을 뿌리빼고 그들을 모두 다 참다운 혁명가로 키워야 하겠습니다.

당사상사업 부문에서는 선동사업을 강화하는 데도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사회주의건설장들과 모든 혁명초소들에서 선동사업을 기동성있게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 열의를 적극 불러 일으키며 그들을 창조와 혁신에로 힘있게 고무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그들을 철저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대중의 혁명적 열의를 적극 불러 일으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힘있게 다그치는 것, 이것이 오늘 당사상사업 부문에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기본과업입니다. 당사상사업의 모든 내용은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일관되여야 하며 사상교양의 수단과 방법도 이것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합니다.

오늘 당사업에서 내세울 중요한 과업은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하고 고수하며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 담보이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나서는 필수적 요구입니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주체의 혁명전통입니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해방 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빛나게 구현되였으며 그 과정에 더욱 발전풍부화되였습니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에는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여 있으며 우리 혁명의 고귀한 업적과 경험이 풍부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계승 발전시킨다는 것은 본질에 있어서 주체의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여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은 주체사상을 견결히 옹호하고 끝까지 구현하기 위한 투쟁이며 우리 당의 혁명업





적을 굳건히 고수하고 끊임없이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대를 이어 계승완성되는 력사적인 위업입니다. 장기성을 띠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구현하며 계승발전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수행됩니다. 우리의 혁명위업은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킴으로써만 빛나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혁명의 세대가 바뀌는 현실을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킬데 대한 문제를 더욱 절실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당사업의 중요한 과업으로 틀어쥐고 나감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는 것입니다.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이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높은 혁명정신을 가지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혁명전통을 철저히 구현하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당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 지도는 당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오늘 사회주의건설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 지도를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 지도는 정치적 지도이며 정책적 지도입니다.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당정책을 해설 침투하고 그 관철에로 대중을 힘있게 발동하며 당정책관철을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고 그 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며, 나타난 결함들을 제때에 고쳐주는 방법으로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 지도를 하여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무엇보다 먼저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적 지도를 잘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은 현 시기 우리 당 앞에 나서고 있는 중요한 혁명과업입니다. 오늘 우리의 당사업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잘하기 위한 데로 지향하여야 하며 당사업의 성과도 바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성과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모든 당일군들이 경제사업에 낯을 돌려야 하며 모든 당조직들이 경제사업을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경제사업을 힘있게 밀어주며 경제일군들을 적극 내세워주고 잘 도와주어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경제일군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며 경제조직사업과 생산지휘를 책임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조직들은 경제일군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본위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지금 경제일군들 속에서 본위주의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본위주의는 개인주의의 변종이며 공명주의의 한 표현형태입니다. 본위주의를 하는 사람은 자기의 명예와 출세를 위하여 일하는 공명주의자입니다. 당조직들은 경제 일군들 속에서 본위주의를 반대하는 일대 사상전을 벌림으로써 그들이 당적, 국가적 립장에 튼튼히 서서 혁명의 전반적 리익을 위하여 책임적으로 일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정권 기관들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적으로 돌보는 것은 인민정권기관들의 숭고한 의무입니다. 당조직들은 인민정권기관들이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조건을 잘 보장하며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하도록 적극 도와주어야 합니다.

오늘 인민정권기관들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은 인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임으로써 그들이 법 규범과 규정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국가의 법질서를 어기는 현상들과 강하게 투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국가경제 기관 지도일군들이 모든 사업을 법 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하며 국가의 법질서를 지키는 데서 군중의 모범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민군대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군대는 우리 당의 혁명적 무장력입니다. 우리는 인민군대 안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그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함으로써 인민군대가 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당의 혁명위업을 무력으로 튼튼히 담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민군대 안의 당조직들은 군사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함으로써 당의 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인민군대는 전투정치훈련을 강화하여 군인들의 전투도덕적 품성과 군사기술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며 부대의 전투력과 전투준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민군대는 혁명군대이며 따라서 그 위력을 강화하는 기본방도는 정치사상사업을 잘하는 데 있습니다. 인민군대 안의 당조직들은 정치사상면에서 혁명정신으로 무장시키며 대오 안에 자각적이며 혁명적인 규률을 세우고 상하일치, 군민일치의 전통적 미풍이 차넘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군대의 지휘관들과 정치 일군들은 서로 돕고 이끌면서 부대관리를 더욱 잘하며 힘을 합쳐 부대 앞에 나서는 모든 군사정치 과업을 원만히 수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조직들은 사회안전기관들과 사법, 검찰 기관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견결히 옹호하며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철저히 보호하도록 지도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군대의 지휘관들과 정치일군들은 서로 돕고 이끌면서 부대관리를 더욱 잘하며 힘을 합쳐 부대 앞에 나서는 모든 군사정치과업을 원만히 수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조직들은 사회안전기관들과 사법, 검찰 기관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견결히 옹호하며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철저히 보호하도록 지도하여야 하겠습니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각급 당위원회들의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도, 시, 군 당위원회들과 공장, 기업소 당위원회들의 집체적 지도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를 강화하여야 당 안에서 민주주의를 원만히 보장할 수 있으며 당 활동에 당원 대중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당위원회들은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을 민주주의적 원칙에서 집체적으로 토의하여 옳은 집행대책을 세우며 일단 토의 결정한 문제는 철저히 집행하는 기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당일군들의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사회주의건설을 지도하는 당의 당일군은 정치도 알고 경제도 알고 과학기술도 알아야 하며 문화적 소양도 높여야 합니다. 모든 당일군들은 정력적으로 학습하여 높은 정치적 안목과 다방면적인 지식을 가진 능력있는 일군으로 자신을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당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당의 로선과 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할 수 있으며 광범한 대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의 사업방법은 일찍이 항일혁명투쟁의 불길 속에서 창조되였으며 주체사상의 심오한 원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주체적인 사업방법은 근로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철저히 지키며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게 하는 가장 혁명적인 사업방법입니다.

당조직들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과 혁명적인 대중지도 원칙을 구현하고 있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당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하겠습니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우며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일군들이 늘 군중 속에 들어가 사업할 것을 요구합니다.

당조직들은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모든 사업에서 사람들을 교양하는 사업을 첫 공정으로 하며 대중의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발동하여 제기된 혁명과업을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조직들은 정치사업을 앞세워 광범한 대중을 혁명과업수행에로 조직동원하며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움직이고 발동하여야 합니다.

당일군들은 늘 아래에 내려가 아래 일군들을 친절히 가르쳐주고 실속있게 도와주어야 하며 군중과 같이 생활하면서 당정책 관철을 위한 방도를 찾고 군중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당일군은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의 참다운 충복입니다. 당일군들이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는 인민적인 사업작풍을 가져야 합니다. 당일군들은 절대로 세도를 쓰지 말고 틀을 차리지 말아야 하며 언제 어디서나 인민들이 생활하는 대로 소박하고 겸손하게 생활하여야 합니다.

당일군들은 군중을 존경하고 너그럽게 대하며 군중과 기쁨도 슬픔도 같이 나누는 군중의 친근한 동지가 되고 벗이 되어야 합니다. 당일군들은 혁명하는 당, 투쟁하는 당의 당일군답게 안일과 해이를 배격하고 혁명적으로 일하며 생활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당사업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당 앞에 나서고 있는 무겁고도 영예로운 혁명과업을 원만히 수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동지들!

주체사상의 기치 밑에 시작된 우리 혁명은 지난 반세기 동안 멀리 앞으로 전진하였습니다. 우리 혁명의 발전과정은 주체사상을 현실에 구현하는 과정이였으며 주체사상의 전면적 승리를 위한 영광스러운 투쟁로정이였습니다. 우리 혁명에서 이룩된 위대한 승리는 주세사상이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실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혁명정세는 대단히 좋습니다. 우리의 주체적인 혁명력량은 날을 따라 장성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 혁명의 원쑤들은 더욱더 궁지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정세는 락관적이며 우리 혁명의 전도는 양양합니다.

우리 당은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새로운 투쟁강령을 내놓았습니다. 당대회가 내놓은 웅대한 강령은 전체 조선인민에게 커다란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고 그들은 영웅적 투쟁과 빛나는 위훈에로 힘있게 고무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대회가 내놓은 혁명로선을 따라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하루빨리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며 가까운 앞날에 주체위업을 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가지고 당의 혁명로선을 관찰하기 위하여 더욱 용감하게 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은 정당하여 우리 조국의 미래는 휘황찬란합니다. 우리 당의 령도 밑에 정당한 혁명위업을 위하여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은 언제나 승리할 것입니다.

모두다 주체사상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자주적 평화통일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항일무장투쟁

정치사전

≪…조선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은 공산주의자들의 령도밑에 15성상에 걸치는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을 벌려 일본제국주의자들을 때려부시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였습니다. 조선인민의 항일무장투쟁은 반혁명적무력에 혁명적무력으로 대항한 가장 높은 형태의 민족해방투쟁이였습니다. ≫(**김일성**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22페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조직전개된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은 조선인민의 불굴의 투지와 혁명적절개를 온 세상에 떨치고 민족의 영예를 빛나게 고수한 자랑찬 투쟁이였으며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이룩한 위대한 혁명투쟁이였다. 1920년대말~1930년대초에 들어서면서 일제의 조선인민에 대한 파쑈적 폭압과 략탈은 절정에 이르고 이에 항거하여 일떠선 로동자, 농민들의 투쟁은 폭력적인 성격을 띠고 힘차게 전개되였다. 이러한 정세에서 반혁명적무력에 대한 대중의 폭력적투쟁형태를 더욱 발전시키고 일반화하여 조직적인 무장투쟁에로 넘어가는 것은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발전의 필연적인 요구로 나섰다. 이 요구는 오직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해 빛나게 실현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선행한 반일민족해방운동의 력사적인 교훈과 당시 조성된 혁명정세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시어 1930년 6월 카륜에서 조선혁명의 주체적인 혁명로선-항일무장투쟁로선을 내놓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로선을 제시하시고 이 로선을 실현할수 있는 제반 방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였다. 조선혁명의 정확한 로선과 방침을 천명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를 관철하기 위한 실천투쟁에 청년공산주의자들과 대중을 조직동원하시면서 1930년 여름 항일무장투쟁의 준비를 위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정치 및 반군사조직인 조선혁명군을 결성하시고 그 사업을 조직지도하시는 한편 몸소 여러 농촌에 나가시여 그 지대를 혁명화하시였고 또한 여러 도시의 혁명조직들의 사업을 조직지도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일제의 만주침공과 관련하여 조성된 급변하는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이미 카륜회의에서 제시하신 로선과 조선혁명군을 결성하시고 그 활동을 지도하신 경험과 무장투쟁의 준비사업에서 이룩하신 성과에 기초하시여 1931년 12월 명월구회의에서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할데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유격전을 항일무장투쟁의 기본형식으로 규정하시고 상비적인 혁명무력의 항일유격대를 창건할데 대한 방침, 유격근거지를 창설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할데 대한 방침, 일제의 침략을 받고있는 이웃나라인민들과의 혁명적단결을 강화하며 그들의 반일무장력량과 반제공동전선을 형성할데 대한 방침 등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온갖 애로와 난관을 물리치고 빈틈없는 준비를 갖추신데 기초하시여 1932년 4월 25일 장기간에 걸쳐 육성하신 조선혁명군 성원들과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원들을 핵심적골간으로 하여 선진적인 로동자, 농민, 애국청년들로 조선인민의 첫 맑스-레닌주의혁명무력인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고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투쟁방침을 고쳤습니다. 한편으로는 혁명의 전도를 예견하고…많은 간부를 양성하였으며 다른 편으로는 력량을 보존하기 위하여 대부대활동을 소부대활동으로 변경하고 지하투쟁을 강화하였습니다. ≫(우와 같은 문헌, 68페지)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을 정치군사적으로 더욱 강화하는 사업을 진행하시는 한편 수많은 소부대들과 정치공작원들을 적후방 특히 국내 깊이까지 파견하시여 적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고 인민대중을 반일반전투쟁에로 세차게 불러일으키시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조직전개된 15성상의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은 력사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며 우리 조국은 근 40년에 걸친 일제의 통치기반에서 해방되였다. 일제를 반대하는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달성할수 있는 결정적요인은 전적으로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전략전술과 현명한 령도에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건하시고 혁명에서 주체를 세우시였으며 항일무장투쟁의 매 발전단계마다 주체적인 투쟁로선과 전략전술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에로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과 인민대중을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항일무장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원래 자기 나라 문제는 자기 나라 인민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남에게 의존해서 독립을 하며 남의 덕에 잘 살아보겠다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며 또한 옳지 못한 생각입니다. 조선혁명은 조선사람의 힘으로 완수해야 하며 조선문제는 조선인민자신의 손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3권, 488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활동을 시작하신 첫시기부터 조선혁명의 주인은 조선사람이며 그 누구도 조선혁명을 대신할수 없다는 확고한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시였다. 또한 그이께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정확한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을 세우시고 그 실현을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일민족통일전선과 반제공동전선을 형성하시여 민족적 및 국제적 범위에서 가능한 모든 반제력량을 일제격멸에 조직동원하심으로써 항일무장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인도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속에서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시고 대



오의 통일단결을 확고히 보장하시였으며 부대내의 혁명적규률과 관병일치의 기풍을 확립하심으로써 항일무장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혁명군과 인민대중과의 혈연적련계가 튼튼히 이루어지고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인민대중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이 강화됨으로써 적들의 대규모적인 포위공격과 악랄한 봉쇄정책도 모조리 격파하고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승리를 달성할수 있었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음으로 하여 조선인민혁명군과 우리 인민은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조국의 해방과 민족적독립을 달성할수 있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조직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은 우리 나라 혁명운동과 세계혁명운동 발전에 있어서 실로 거대한 력사적 의의를 가진다. 그 의의는 우선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조직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이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을 가장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켰으며 일본제국주의식민통치를 뒤집어엎고 민족해방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는데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 **≪항일유격투쟁은 반혁명적무력에 혁명적무력으로 대항하는 높은 형태의 투쟁으로서 일제침략자들에게 련이어 커다란 타격을 주었으며 다른 모든 형태의 대중투쟁을 힘차게 고무추동하였습니다. …**
>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비로소 맑스-레닌주의가 우리 나라의 현실과 결합되고 공산주의운동이 민족적 및 사회적 해방을 위한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결합되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283 ~ 284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에 조성된 정세와 선행한 혁명운동의 경험을 전면적으로 총화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몸소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였다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조직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은 반혁명무력에 혁명무력으로 대항하는 가장 높은 형태의 투쟁으로서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확고한 중심을 이루고 이여 이 모든 형태의 대중운동을 힘차게 고무하였으며 조선인민의 전반적혁명투쟁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어올리였다. 또한 항일무장투쟁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적인 전략전술을 제시하심으로써 조선혁명에서 처음으로 맑스-레닌주의와 혁명적실천과의 완전한 결합이 이루어졌으며 공산주의운동이 민족적 및 사회적해방을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과 유기적으로 결합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조직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은 포악무도한 일제를 종국적으로 타승하고 민족해방의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였으며 우리 혁명의 장래발전을 위한 광활한 길을 열어놓았다. 또한 이 투쟁행정에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광범한 인민대중이 굳게 결속되고 혁명의 주체적력량이 튼튼히 꾸려졌다.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조선인민은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경애하는 수령님으로 모시고 그이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을 따라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우려는 하나의 사상으로 굳게 단합되였다. 항일무장투쟁은 당창건을 위한 투쟁, 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기 위한 투쟁 그리고 인민대중의 각종 반일투쟁 등과 밀접히 결부되여 진행되였다. 이 행정에서 인민들은 오직 수령님의 령도를 받는 공산주의자들만이 민족적 및 사회적 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지도적력량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반일운동에서 로동계급의 령도가 확고히 실현되고 로농동맹이 공고화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각계각층의 반일력량과의 통일전선이 이루어짐으로써 반일혁명력량이 튼튼히 결속되게 되었다. 이와 함께 항일무장투쟁의 력사적행로는 원쑤들에게 아부굴종하는 민족개량주의자들의 정체를 여지없이 폭로하고 일제와 그 앞잡이들, 모든 반도세력들을 대중들로부터 철저히 고립시켰다. 이리하여 이 시기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혁명력량은 반혁명세력을 제압하고 혁명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강력한 력량으로 자라났으며 우리 나라에서 계급적력량관계는 혁명의 편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되였다. 항일무장투쟁의 력사적의의는 다음으로 이 시기에 조선공산당창건을 위한 조직사상적 기초가 확고하게 마련되였으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이룩되였다는데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 **≪항일무장투쟁은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첫시기에 있었던 본질적약점들을 이겨내고 맑스-레닌주의당을 창건하기 위한 조직사상적기초를 닦았으며 우리 인민의 가장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루어놓았습니다. ≫**(우와 같은 문헌, 284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독창적인 당창건방침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항일무장투쟁 및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과 밀접히 결합하여 적극적으로 추진시키시였다. 이 행정에서 당창건의 조직적골간이 튼튼히 꾸려지고 공산주의대렬의 통일단결과 순결성이 보장되였으며 당창건의 대중적지반이 튼튼히 닦아졌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맑스-레닌주의적 혁명로선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행정에서 앞으로 창건될 당의 전략전술적기초가 마련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간고한 항일무장투쟁과정에 우리 당과 혁명의 력사적뿌리이며 그 발전의 귀중한 재부로 되는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였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에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탁월한 전략전술과 고매한 덕성, 강의한 의지와 혁명적원칙성,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 등이 구현되여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사상체계와 투쟁정신, 사업방법과 사업작풍, 투쟁경험과 업적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빛나는 혁명전통은 우리 당과 조선혁명의 깊고도 억센 뿌리이며 혁명발전에서 위대한 힘의 원천으로 되는 우리 당의 귀중한 재부이다. 항일무장투쟁은 끝으로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발전에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국제적으로 파시즘이 대두하고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 공세가 전면적으로 강화된 시기에 일본제국주의자들을 패망시키기 위한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심으로써 세계반파쑈운동에 거대한 기여를 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은 일본제국주의를 패망시킴으로써 제국주의세력을 약화시키고 국제혁명력량을 강화하였을뿐아니라 식민지 및 예속국가 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적영향을 주었다. 또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그이께서 창시하신 철저한 반제혁명로선과 전략전술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이룩하신 풍부하고도 다양한 투쟁경험들은 식민지민족해방운동에 관한 리론을 새롭게 발전풍부화시켰으며 따라서 그것을 세계혁명적인 인민들 특히 싸우는 식민지나라 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의 훌륭한 귀감으로, 투쟁의 기치로 되었다.



조국해방전쟁

정치사전

≪우리 인민의 조국해방전쟁은 미제를 비롯한 세계반동의 련합세력을 반대하는 치렬한 반제반미투쟁이였으며 인민의 원쑤들을 반대하는 준엄한 계급투쟁이였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5권, 147페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령도된 조국해방전쟁은 미제의 침략을 물리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민족해방전쟁이며 미제국주의자들과 그와 결탁한 국내 반동세력을 반대하는 준엄한 계급투쟁이며 미제를 비롯한 세계반동의 련합세력을 반대하는 반제반미투쟁이였다. 이 전쟁은 동시에 조선전쟁을 확대하여 세계대전을 일으키려는 미제의 책동을 여지없이 짓부시고 사회주의나라들의 안전과 세계평화를 보위하며 세계혁명운동을 더욱 발전시키는 위대한 혁명전쟁이였다.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쑤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 리승만괴뢰도당은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할데 대한 우리의 합리적인 방안을 거부하고 드디어 1950년 6월 25일 불의에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무력침공을 개시하여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켰다. 미제에 의하여 강요된 3년동안의 전쟁은 조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판가리 싸움이였으며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준엄한 시련의 시기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는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을 담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하였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50년 6월 26일 력사적인 방송연설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에서 전쟁승리를 위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고 우리 조국강토에서 미제무력침공자들과 그 주구들을 쓸어버리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총궐기할 것을 전체 조선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에게 호소하시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은 모두 4계단에 걸쳐 승리적으로 진행되였다. (제1계단 1950년 6월 26일~1950년 9월 중순, 제2계단 1950년 9월 하순 ~ 1950년 10월중순, 제3계단 1950년 10월 하순 ~ 1951년 6월, 제4계단 1951년 6월 ~ 1953년 7월)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쟁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탁월한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제시하시고 전체 인민과 인민군대를 전쟁승리에로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전쟁 제1계단의 전략적방침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무력침공을 좌절시키고 신속히 반공격으로 넘어가 미제침략자들이 대병력을 증강하기전에 높은 기동력과 련속적인 타격으로써 적의 기본집단을 짧은 시일안에 격멸소탕하고 남반부인민들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전략전술과 지휘에 의하여 우리 인민군장병들은 무비의 용감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반공격에로 넘어간지 불과 한달반사이에 미제침략군의 주력과 괴뢰군주력부대들을 격멸소탕하고 남반부전지역의 90%이상의 남반부총인구의 92%이상을 해방하는 빛나는 전과를 거두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인 전략전술에 의하여 우리 강토에서 완전히 쫓겨날 위험에 다달은 미제는 여지없이 떨어진 저들의 위신을 만회하는 동시에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전선을 강점하려는 저들의 침략목적을 기어이 실현해보려고 최후발악을 다하였다. 미제는 저들의 침략무력과 추종국가군대를 조선전선에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락동강계선에서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는 한편 1950년 9월중순, 5만여명의 병력과 300여척의 함선, 1000여대의 비행기를 동원하여 대규모적인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하였다. 전선에는 매우 긴장된 정세가 조성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 조성된 군사정치정세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전쟁 제2계단의 전략적방침을 내놓으시였다. 그것은 적들의 진공속도를 지연시키면서 시간을 쟁취하여 인민군주력부대들을 계획적으로 퇴각하게 하며 동시에 후비부대들을 계속 준비하여 전쟁승리의 제 국면을 열어 놓기 위한 일시적인 침략적후퇴를 조직하는 것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50년 10월 11일 방송연설에서 전체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에게 조국의 한치의 땅도 목숨으로 지키며 적에 대한 새로운 결정적 타격을 주기 위하여 모든 력량을 준비하며 미제와 그 주구들을 우리 강토에서 완전히 격멸소탕할 것을 호소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전략전술과 지위에 의하여 인민군대는 전략적후퇴의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고 전면적인 반공격에로 넘어갈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공격에로 넘어가는 전쟁 제3계단의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그것은 인민군부대들이 반공격으로 넘어가 적을 38도선 이남으로 몰아내면서 부단한 소모전으로 적의 유생력량을 최대한으로 소멸하는 한편 전쟁의 종국적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우리의 력량을 튼튼히 갖추는데 있었다. 수령님께서는 전전선에 걸쳐 결정적인 반공격에로 넘어가 청천강과 장진호반에서 적의 집단을 포위소멸한후 제2전선부대들과 긴밀한 협동작전밑에 38도선이북을 단시일내에 해방할데 대한 작전적 방침을 제시하시고 1950년 11월 하순 전전선에 걸쳐 결정적인 반공격을 명령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전쟁이 더욱 격렬해지고 장기성을 띠고 있는 환경속에서 1950년 12월에 당중앙위원회 제3차전원



회의를 소집하시고 력사적인 ≪현정세와 당면과업≫이라는 보고를 하시였다. 수령님께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는 당 및 국가기관, 인민군대안에서 혁명적규률을 강화하여 수령의 명령지시를 무조건 옹호관철하도록 함으로써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당의 전투력을 더욱 강화할수 있게 하였으며 또한 군사분야에서 교조주의를 극복하고 주체를 세우며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한층 높이고 후방을 공고히 하며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이룩할 수 있게 하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선이 38도선 계선에서 기본적으로 고착되고 미제가 제놈들의 패배를 만회하려고 책동하고있던 당시의 군사정치정세를 예리하게 분석하시고 적들에게 섬멸적타격을 주고 전쟁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전쟁 제4계단의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그것은 튼튼한 방어진지를 만들고 적극적인 진지방어전을 벌려 이미 차지한 계선을 완강히 견지하고 적을 계속 타격소멸하는 것이며 또한 시간을 얻어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한층 강화하고 후방을 더욱 튼튼히 하여 전쟁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모든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였다. 수령님께서는 제4계단시기에 적들의 ≪하기 및 추기 공세≫를 비롯한 놈들의 발악적인 공세를 짓부시고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을 조국해방전쟁의 최후승리를 위한 투쟁에로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시기 전선과 후방, 당 및 국가기관, 인민군대의 사업을 전반적으로 지도하시여 전쟁의 승리를 종국적으로 이룩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우선 인민군대와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그의 무장장비를 개선강화하도록 하시였으며 1950년 10월 인민군대내에 당조직과 정치기관을 내오게 하시고 1952년도에 모범중대창조운동을 발기하시여 중대를 강화하도록 하시였으며 군사분야에서 교조주의를 극복하고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주체적인 전략전술적방침과 독창적인 전법들을 창조하시여 그를 빛나게 구현하시였을뿐만아니라 포연속을 헤치시고 전호속의 전사들을 찾으시여 친어버이 사랑으로 그들을 보살피시였다. 또한 수령님께서는 후방을 공고히 하며 전시생산을 보장하며 특히 지방정권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며 일군들속에서 관료주의를 없애고 인민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도록 현명한 조치를 취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시기 위하여 당중앙위원회 제4차, 제5차 전원회의를 소집하시여 당사업에서 좌경적편향을 극복하고 당대렬을 급속히 확대강화하며 당원들의 당성과 그의 선봉적역할을 높이고 당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철저히 세우며 반당종파분자들을 반대하고 당의 통일과 단결을 일층 강화하도록 하시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의 조직사상적공고화는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앞당기는 결정적요인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전략전술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조선인민의 위대한 승리로 끝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 **≪우리 인민은 이 위대한 투쟁에서 당과 공화국정부의 정확한 령도밑에 한마음한몸이 되어 결사적으로 싸움으로써 전쟁의 어려운 시련을 영예롭게 이겨냈으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에게 수치스러운 패배를 주고 력사적인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우와 같은 문헌, 147페지)

미제침략자들은 조선전쟁에서 39만 7,000여명의 미제침략군을 포함한 109만 3,800여명의 병력과 1만 2,200여대의 비행기와 250여척의 각종 함선을 비롯한 막대한 전투기술기재들과 군수물자들을 잃어버렸다. 조국해방전쟁에서 조선인민의 빛나는 승리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탁월한 군사예술,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이룩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는 조국해방전쟁승리의 결정적요인이였다.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우리 인민의 승리는 우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우리 공화국과 인민민주주의제도의 무궁무진한 생활력과 나라의 주인으로 된 우리 인민의 불패의 힘을 시위하였다.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그이께서 마련해주신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영예롭게 수호하였으며 우리 인민의 영웅적기개를 온 세상에 남김없이 시위하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우리의 승리는 다음으로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밑에 자기의 운명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쥐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일떠선 인민은 그 어떤 힘으로도 정복할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우리의 승리는 전쟁승리의 결정적 요인이 그 어떤 무기나 기술의 우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깊이 깨닫고 하나로 굳게 뭉친 인민대중의 힘에 있다는 혁명의 진리를 다시금 실증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미제무력침공자들을 때려눕힘으로써 사회주의나라들을 위협하던 미제의 침략기도와 전쟁확대음모를 분쇄하고 사회주의나라들의 동방초소를 굳건히 보위하였으며 세계평화와 안전을 수호하였다. 우리 인민은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코대를 꺾어놓고 그 ≪강대성≫에 대한 신화를 산산히 깨뜨려버림으로써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싸우는 세계 수억만인민들의 투쟁을 크게 고무하였으며, 미제침략자들이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음으로써 반제반미투쟁의 새 시기를 열어놓았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우리의 승리는 미제가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고 전반적세계혁명운동을 크게 촉진시킨 세계사적인 사변이였다. 전쟁승리의 력사적의의는 또한 전쟁의 준엄한 시련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주체적력량이 급속히 강화되였으며 전체 인민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더욱 철석같이 단결되였다는데 있다. 치렬한 반제반미투쟁이며 준엄한 계급투쟁이였던 위대한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을 통하여 우리 인민은 더욱 각성되고 단련되였으며 인민군대는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세련되고 풍부한 전투경험을 가진 불패의 무력으로 자라났다. 특히 전쟁을 불길속에서 수십만의 혁명적골간이 자라났다. 간고한 혁명투쟁에 자란 이 혁명간부들은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여야 할 귀중한 재부이며 혁명승리를 위한 매우 고귀한 밑천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진행한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우리 인민의 승리는 반제반미투쟁에서 일떠선 수억만인민들의 투쟁을 무한히 고무하였으며 그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준 세계사적인 위대한 승리이다.





조미대결전에서 쾌승

≪현세의 한울림≫ / 오익제

90년대초반부터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세계 진보적 인류가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는 조선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이북을 정치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압살하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였습니다.

미국의 목적은 사회주의보루로 부상된 조선을 말살함으로써 지구상에서 사회주의를 완전히 없애고 저들의 ≪새로운 질서≫를 세계적판도로 확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조선인민과 세계양심이 용납 못할 도전입니다.

결국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하는 운명의 결전은 미국과 이북과의 대결로 조선반도로 좁혀지게 되었습니다.

이북의 ≪핵문제≫를 빌미로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긴장시켜오던 미국은 드디여 주체82(1993)년에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재개를 공포하고 20여만의 대병력과 핵탄투하를 전문으로 하는 전략폭격기, 초대형항공모함을 비롯한 수많은 함선들, 여기에 이남의 무력까지 동원하여 조선을 압살하기 위한 총공세를 벌리였습니다.

그때 세계는 숨을 죽이고 조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남에서 이 정세를 지켜보던 저도 전쟁을 방불케 하는 어지러운 폭음속에서 일찍이 체험해본적없는 긴장감을 느끼였습니다.

미국이 ≪핵사찰≫을 구실로 이북을 물리적으로 제압하려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해졌습니다. 이북이 어떻게 나올것인가? 전쟁이 일어난다면 북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리고 남은 또 어떻게 되겠는가?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지 않을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런데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한≫미연합군의 ≪팀 스피리트≫협동군사연습이 미친듯이 고조되던 3월 8일에 전국, 전민, 전군에 준전시상태로 넘어갈데 대한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시었습니다.

영도자님께서는 명령에서 이렇게 언명하시었습니다.

≪우리 인민군대는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백전백승의 혁명무력으로 자라났으며 전민이 무장하고 전국이 요새화됨으로써 그 어떤 침략자도 일격에 소탕할 만단의 준비가 되어 있다.

민족의 자주성과 나라의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우리 인민은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자기의 존엄을 유린당하면서까지 평화를 구걸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새 전쟁을 도발한다면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당과 수령을 위하여, 피로써 쟁취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위하여 끝까지 싸워 침략자들에게 섬멸적인 타격을 주고 영웅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다시한번 떨칠것이다. ≫

그때 저는 이 명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북에서 강경대응으로 준전시상태를 선포하였다는 것을 곧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굴복하지 않으며 전쟁을 불사한다는 견결한 자세였습니다.

그때 저는 희세의 용장을 우러러 감복하면서도 이제는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3월 12일에 이북에서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한다는 공화국정부성명을 냈다는 소식을 듣고는 더는 이 대결정세를 돌려세울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전쟁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뿐이 아니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이상의 사태는 벌어지지 않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은 오히려 수그러드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후에 안 일이지만 그때 이북의 준전시상태선포와 핵확산금지조약탈퇴선언은 숨죽이고 조선을 주시하던 세계를 깜짝 놀래우고 그야말로 경천동지의 폭풍같은 반영으로 갑자기 국제사회를 들끓게 하였습니다.

세계의 공정한 여론은 ≪조선지도자의 영도예술의 극치≫, ≪폭탄선언≫, ≪북조선의 정치사상적 , 군사적 힘의 과시≫라고 하면서 경애하는 영도자님의 조치에 전적인 지지찬동을 보냈으며 미국을 규탄했습니다.

조선의 당당하고 강경한 대응과 불굴의 기상앞에 미국은 일거에 압도되고말았던것입니다.

당시 미국무부 동아시아 및 태평양지역담당 차관보는 ≪북조선이 이처럼 강력한 태도로 반격해나오리라고는 예측하지 못했다. 북조선은 단결력에 있어서나 군사력에 있어서 특수한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에 어떠한 타격을 가해올지 예측하기 어렵다. ≫고 하였으며 ≪워싱톤 타임스≫지는 ≪미국이 북조선을 공습할 경우 북조선은 화물선에 핵장비를 싣고와 터뜨릴지도 모른다. ≫고 하면서 조선을 건드렸다가는 큰 화를 입을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결국 미국은 합동군사연습을 기일을 앞당겨 중지했고 이북에 대한 ≪특별사찰≫소동을 포기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3월 24일 준전시상태를 해제할데 대한 명령을 내려 조미간의 정치군사적대결의 승리를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저는 그간 조미사이의 군사적대결을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북은 모든 예상을 뒤엎어놓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신기한 일도 있는가. 실로 경탄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영도자님의 군사적 예지와 지략에 대하여 탄복하게 되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중에서도 영도자님께서는 소리없이 즉 총포성을 울리지 않고 승리하신다는 그 점을 높이 찬양하고싶습니다.

앞에서 서술한 조미간의 군사적대결도 그랬고 작년에 적들이 이북의 인공지구위성발사에 따르는 정세긴장과 핵사찰을 운운하면서 군사정세를 긴장시켰던 때도 그러했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이라면 흔히 거기에 동원되는 인적, 물적 력량에 대한 손실을 보면서 승패를 가르게 됩니다. 그러나 전쟁역사에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특이한 기록도 남아있고 또 그런 승리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부전이승상지상(不戰而勝上之上)≫이라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승리가 으뜸가는 승리라고 하였습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공화국을 말살하려고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지만 영도자님께서는 번마다 명령이나 성명으로 적들의 기도를 물거품되게 만들어놓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영도자님이시야말로 제갈공명도 따를수 없는 군사적 예지와 지략을 지니고계시는 명장이시라고 속으로 탄복하군합니다.

주체85(1996)년에도 저는 그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이해 정초부터 미국은 핵잠수함 ≪버밍햄≫호와 그리고 2월에는 항공모함 ≪인디펜던스≫호를 남조선해역과 조선동해에 출동시키면서 ≪연합대잠수함훈련≫과 ≪벨리 언트 아서 96-2케이≫해군합동군사훈련을 벌려놓으면서 미국방장관은 이른바 ≪년례방위보고≫라는데서 ≪미국의 사활적 이익을 위태롭게≫하는 위협을 억제할뿐아니라 ≪싸워서 승이해야 한다.≫는 폭언을 하였습니다. 한편 남조선괴뢰들은 륙해공군의 대병력이 참가하는 ≪호국 96≫군사연습을 벌려놓고 미국에 장단을 맞추어 남북관계문제는 ≪군사력에 의한 해결만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큰물피해로 인한 공화국의 난관을 북침전쟁도발의 호기로 보고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고갔습니다.

이때에도 이북에서는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의 담화를 발표하여 적들을 혼비백산케 만들어놓았습니다.

미국과 그 앞잡이들이 이북에서 발표하는 성명이나 담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그러한 성명이나 말들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튼튼히 담보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인이 공인하고 있은 것처럼 이북은 군사대국입니다. 제가 알기에도 이북은 무력수에서 대단히 우세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민군대의 정신상태를 역사의 어느 군대도, 현세의 어느 군대도 따를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북이 군사대국으로 되는 근거는 무엇보다 천출명장이신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계신다는데 있습니다.

조미간의 대결에서 조선은 언제나 미국을 굴복시켰습니다.

정전은 국제법에도 전쟁상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간 조선반도의 특수한 전쟁상황에서 허다한 대소군사적충돌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헤아릴수 없는 적들의 도발사건들에서 조선인민군은 한번도 패한 일이 없었습니다.

명장은 두번 패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명장이라도 한번은 패할 수 있다는 말이며 그 패배에서 교훈을 찾고 두번은 패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두번까지 패하면 명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도자님께서는 조미대결에서 한번도 패한 일이 없는 그야말로 천출명장이십니다.

영도자님께서는 군사대결의 승리로 미국을 조미회담장으로 끌어내신 이후 회담장을 통한 핵대결전에서도 특출한 정치감각과 예지, 신축담대한 외교적수완으로 세인을 경탄케 하였습니다.

3단계에 걸친 회담과정과 그 성공은 이미 세계에 널리 알려진 유명한 외교사적으로 됩니다. 저는 그것을 20세기에 이룩된 하나의 신화라고 말하고싶습니다.

특히 이북측의 흑연감속로의 경수로대체제안과 그 관철은 누구도 따를수 없는 영도자님 특유의 영단입니다.

그리하여 제네바에서 진행된 제3계단 조미회담에서는 북의 흑연로체계를 경수로체계로 교체하는 문제, 조미사이의 정치, 경제관계 정상화문제, 조선반도의 비핵화, 평화와 안전보장문제, 핵확산방지체계를 강화할데 대한 문제를 내용으로 하는 기본합의문이 채택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북외교의 쾌승을 의미합니다. 특히 미국대통령이 조선의 국호를 정식 국호로 지칭하고 **김정일**영도자님을 ≪최고지도자≫로 경칭하면서 영도자님께 공약리행을 담보하는 이례적인 공식서한까지 송정한 것은 영도자님의 비범한 정치지도력에 대한 공경의 표시인 동시에 미국의 굴복을 의미합니다.

조미회담과정을 지켜보던 이남의 한 대학교수는 조미회담과정을 마치 ≪미국이라는 거인이 소인의 손바닥에서 노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의 ≪협상외교의 극치≫로 묘사하면서 민족적 자부심을 느꼈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외신들은 이에 대하여 국교관계가 없는 적대국이 유일초대국을 자처하는 미국으로부터 담보서한을 받아낸것은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사변이라고 하면서 조선의 승리를 공인하였습니다.

또한 ≪쏘련붕괴후 북의 사회주의제도를 고립압살하려고 한 미국의 ≪힘의 정책≫이 파탄되고 실질적으로 사회주의 제도를 ≪보증≫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북의 승리를 격찬하였습니다.

이북은 조미회담에서 승리함으로써 국제무대에 다시 한번 극적으로 부상하게 되었으며 **김정일**영도자님의 위상은 더욱더 거시화되고 그 영향력은 세계적판도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조미관계 10년을 통해 본 한(조선)반도의 통일정세(발췌)

한호석

1 조미 관계의 본질과 세 차례의 정치적 합의

조미 관계를 인식하는 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이 북(조선)을 고립·봉쇄하는 측면을 중심으로 조미 관계를 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물론 미국의 고립·봉쇄책동이 조미 관계를 규정하는 요인들 가운데 하나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

북(조선)에 대한 미국의 고립·봉쇄책동을 중심으로 삼고 조미 관계를 인식하려 할 때, 두 가지 오류를 피할 수 없게 된다.

하나는 제국주의자들의 이른바 ≪폐쇄국가론≫을 용인하는 오류며, 다른 하나는 조미 관계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곧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제국주의세력에 맞서서 반제혁명투쟁을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오류다. 만일 ≪폐쇄국가론≫을 용인하게 되면, 사회주의혁명역량은 제국주의세력이 가하는 고립·봉쇄의 일방적 공세를 받기만 하는 무력한 존재가 되어 버린다.

제국주의세력의 고립·봉쇄 속에 갇혀 있는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는 주장은 우리의 정세인식을 패배주의라는 함정으로 끌어간다.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은, 조미 관계의 본질은 사회주의혁명역량과 제국주의세력 사이의 대결과 투쟁이라는 점이다. 사회주의 진영이 무너진 이후 지난 10년 동안 북(조선)은 ≪사회주의혁명의 보루≫로 자기의 존재를 지켜왔을 뿐 아니라, 마지막 남아있는 사회주의혁명역량을 타파·소멸하려는 제국주의세력의 집중공세에 단독으로 맞서 투쟁하여왔다. 1995년부터 1999년까지 북(조선)이 ≪고난의 행군≫을 했던 시기에 워싱턴 정가에 나돌았던 이른바 ≪북한 붕괴설≫, 그리고 2000년 이후에 새로 출현한 이른바 ≪북한 변화설≫은 사회주의혁명역량과 제국주의세력의 대결과 투쟁이라는 조미 관계의 본질을 은폐하면서 제국주의세력이 압도적인 우세로 사회주의혁명역량을 봉쇄·말살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한 ≪제국주의 승리론≫의 변종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1) 조미 관계에서 대결의 성격은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의 사상전이라는 사실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 사상전은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는 **김일성**주의와 ≪세계화 전략≫에 기초한 지배주의의 대결,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대결,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대결로 전개되었다. 조미 관계의 본질을 바라보는 민족민주전선의 관점은, 조미 대결의 성격을 민족 대 외세의 대결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상전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반외세 민족주의자들의 관점과 다르다.

2) 조미 관계에서 투쟁의 양상은 국가역량을 총동원한 사활적인 투쟁이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군사력, 정치외교력, 국가적 조직력, 경제력을 총동원한 투쟁이었다. 유일한 초강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미국의 집중공세에 맞서서 자기의 존재를 지켜야 했고, 더 나아가서 전세를 역전시켜야 했던 북(조선)은 자기의 국가역량을 총동원하여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 하는 반제혁명의 결사전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한 긴장된 전투상황 속에서 북(조선)이 하나의 국가로서 수행하는 전략은 반제혁명투쟁에 복무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북(조선)이 하나의 사회적 집단으로서 추구하는 모든 가치와 목적은 반제혁명의 승리를 지향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반제혁명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북(조선)의 국가전략이 제대로 보이게 되며, 북(조선)의 사회적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조미 관계 10년을 돌이켜 보면, 두 나라 사이의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은 세 차례의 중대한 정치적 합의를 통하여 진전을 이루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 보인다. 1993년 6월 11일 뉴욕에서 채택된 조미 공동선언,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에서 채택된 조미 기본합의서, 그리고 2000년 10월 12일 워싱턴에서 채택된 조미 공동성명이 그것이다.

이 정치적 합의들은 사회주의혁명역량과 제국주의세력 사이에서 지난 10년 동안 전개된 대결과 투쟁이 남긴 결과다. 우리가 주시해야 할 사실은, 조미 사이에서 이루어진 세 차례의 중대한 정치적 합의는 한결같이 두 나라의 해묵은, 그리고 매우 불안정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교를 수립하기 위한 합의였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지금 조미 관계는 세 차례의 정치적 합의를 이행하여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교를 수립해 가는 과정에 들어섰다고 보아야 한다. 올해 새로 들어선 부시 정부가 조미 관계를 냉각국면으로 끌어가려고 하였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조미 관계의 변동방향은 국교 수립이라는 최종 목표를 향한 궤도에 올라있으며 그 움직임은 비록 전진속도의 증감이라는 차이는 보일 수 있어도 차단할 수 없게 되었다.

2 사회주의혁명의 최대 시련기에 발휘한 북(조선)의 돌파력

지난 1980년대 내내 미국은 북(조선)의 정치협상 제의를 묵살하면서 봉쇄압박과 무력위협으로 대답하였다.

미국은 북(조선)이야말로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타파·소멸해야 할 적대세력이라고 규정하였다. 한(조선)반도가 지구 위에서 미국의 핵공격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위태로운 타격지점으로 되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으며, 한(조선)반도를 가리켜 미국이 임의의 시각에 전면전을 일으킬 수 있는 ≪태평양의 화약고≫라고 불렀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한(조선)반도에서 핵공격의 격발장치에 손가락을 걸고 있었던 쪽은 제국주의세력이었다. 1999년 10월에 세상에 드러난 미국의 한(조선)반도 전쟁계획인 ≪작전계획 5027≫이 보여준 것처럼, 제국주의세력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웬만한 나라를 한꺼번에 쓸어버릴 방대한 무력과 막강한 첨단무기를 동원할 수 있는 미증유의 전쟁 수행력을 과시해왔다.

미국은 이처럼 한(조선)반도에서 전략적 공격을 퍼부을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북(조선)이 자기에게 굴복하기를 바랐고 정치협상 제의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이것이 지난 1980년대에 조미 관계가 처해 있었던 정황이었다.

그런데 1990년대에 이르러 어떻게 해서 조미 정치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세 차례의 정치적 합의를 내놓을 수 있었던가? 우리가 주시해야 할 사실은, 사회주의혁명역량과 제국주의세력 사이에서 벌어진 힘의 대결에서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제국주의세력의 일방적인 공세를 물리치고 힘을 겨루는 대등한 지위에 올라섰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역사적 경험은 제국주의세력이 자기와 대등한 지위에 있지 못한 무력한 상대에 대해서는 절대로 정치협상을 벌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지난 10년 기간 중에 눈길을 끄는 것은, 1995년부터 1999년까지 5년 동안 조미 사이에서 정치협상이 진행되지 못하고 거의 정체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되었던 까닭은 그 기간에 사회주의혁명역량의 최대 시련기인 ≪고난의 행군≫과 ≪사회주의 강행군≫을 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시련기에 처해 있을 때, 제국주의세력은 이미 이루어진 정치적 합의를 내던지고 종래의 적대·말살정책을 다시 꺼내어 휘두르면서 사회주의혁명역량을 타파·소멸하려고 하였다.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시련기에 들어서자 제국주의세력이 그 무렵까지 진행되고 있었던 정치협상을 중단하면서 고립·압살책동에 집중하였다는 사실은, 제국주의세력은 미약한 상대에게는 절대로 정치협상을 벌이지 않는다는 역사적 경험을 다시 입증하였다.

그렇다면 북(조선)은 제국주의세력이 정치협상을 중단하면서 집중시킨 고립·압살책동과 사회주의혁명의 최대 시련기를 무엇으로 돌파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된다.

1) 북(조선)은 군사력으로 돌파하였다.

북(조선)은 1998년 8월 31일에 인공위성체 ≪광명성 1호≫를 탑재한 3단계 우주발사체 ≪백두산 1호≫를 우주공간을 향해 발사하였다. 그 광경을 지켜본 제국주의세력은 경악하였고 종전처럼 적대·말살정책을 계속 고집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여 자기의 정책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우주발사체 ≪백두산 1호≫는 북(조선)이 미국의 심장부를 강타하여 전쟁수행력을 마비시킬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음을 암시함으로써 엄청난 정치적 위력을 발휘하였다.

북(조선)의 이론에 의하면, 제국주의세력에 맞설 수 있는 힘은 정치적 의사를 관철하는 가장 강력한 물리력인 군사력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강대한 군사력을 보유한 제국주의세력에 맞서 싸우는 반제혁명에서 빈약한 군사력을 지닌 나라의 정치외교력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1993년 6월에 조미 공동선언을 채택한 것이나 1994년 10월에 조미 기본합의서를 채택한 것이나 2000년 10월에 조미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모두 북(조선)이 미국에 대해서 군사력을 시위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1993년의 조미 공동선언 채택은 북(조선)이 미국의 태평양지역 전략거점들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 하였기에 가능했으며, 1994년의 조미 기본합의서 채택은 북(조선)이 핵무기 개발능력을 과시하였기에 가능했으며, 2000년의 조미 공동선언 채택은 우주발사체 ≪백두산 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여 대륙간 탄도미사일 보유하고 있음을 암시하였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무력위협을 일삼고 있는 제국주의세력에 맞서 싸우려면 자기들도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북(조선)의 생각이었고, 북(조선)은 피나는 노력을 기울인 끝에 마침내 그 생각을 현실로 이루어냈던 것이다. 제국주의세력과 가장 첨예한 군사적 대치상태에 있는 사회주의혁명역량이 미국의 심장부를 한 방에 날려버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무장하였다는 사실은 제국주의세력에게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위협 앞에서 제국주의세력은 더 이상 일방적인 공세를 취할 수 없게 되었으며 종래의 적대·말살정책을 거두어들이고 정치협상의 길로 끌려나오게 되었다.

북(조선)은 사회주의혁명의 최대 시련기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한 채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가역량을 총동원하여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그로써 난관과 역경을 정면돌파하고 제국주의세력과의 대결에서 전세를 역전시켰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바로 이러한 경험을 총화 하여 군사를 중시하는 사상을 정립하였다. 이미 세상에 알려진 대로, 북(조선)은 자기의 사회주의혁명을 선군혁명이라고 부르며, 사회주의정치를 선군정치라고 부른다.

2) 북(조선)은 정치외교력으로 돌파하였다.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미국을 상대하여왔던 북(조선)의 정치외교전략을 세 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외세에 의존하지 않는 자주적 외교전략, 선의에는 선의로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대처하는 외교전략, 그리고 한(조선)반도 주변 네 나라의 역량관계를 이용하는 외교전략이다.

외세의 의존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외세라는 개념은 북(조선)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뜻한다. 북(조선)의 외교전략은 중국과 러시아에 의존하지 않는 자주성을 근본으로 삼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북(조선)은 중국과 러시아가 반제전선에서 이탈하여 미국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취했을 때 수세에 몰리



지 않았으며, 중국과 러시아를 통하여 북(조선)에게 압력을 가하려고 하였던 미국의 우회전략을 파탄시킬 수 있었다.

북(조선)은 교활한 제국주의세력이 선의로 위장하고 접근해올 때 방심하거나 속아넘어가지 않았다. 또한 북(조선)은 제국주의세력이 핵전쟁도 불사하겠다고 하면서 강경하게 나왔을 때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서거나 적당히 타협하여 위기를 넘기려는 비굴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에는 전면전으로≫라는 반격구호로 받아치며 초강경으로 대응하였다.

북(조선)은 한(조선)반도 주변 네 나라의 역량관계를 적절하게 이용하면서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내곤 하였다. 한(조선)반도에 대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이해관계는 상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북(조선)의 생각이다. 미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들이 가장 중시하는 미·일 동맹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것과 중·러 관계가 밀착되면서 반미공조관계를 맺는 것이다. 우리가 주시해야 할 것은, 일본이 미·일 동맹관계에서 이탈하려는 경향과 중·러가 반미공조관계를 맺으려는 경향은 모두 대량파괴무기를 개발하는 문제에 결부되어 있는데, 동북아시아에서 대량파괴무기를 개발하는 문제나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을 억제하는 문제를 좌우하는 열쇠를 쥐고 있는 쪽은 북(조선)이라는 사실이다.

북(조선)이 만일 1998년의 ≪백두산 1호≫에 이어서 ≪백두산 2호≫를 발사하게 되면 일본도 그에 대응하여 중거리 미사일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보유하려 할 것이며, 그러한 추세는 미국의 안보우산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전쟁수행력을 확보하려는 군국주의적 야심을 자극할 것이다. 일본이 독자적인 전쟁수행력을 확보하는 것은 미·일 동맹관계에 균열을 일으키면서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에 치명타를 입히는 것으로 된다. 따라서 미국이 미·일 동맹관계를 종전대로 원활하게 유지·관리하려면 북(조선)이 ≪백두산 2호≫를 발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은 조미 정치협상에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미국이 ≪백두산 2호≫가 발사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었던 2000년 10월에 조명록 특사를 워싱턴에 파견하여 미국이 두려워하는 ≪미사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였고, 당시 미국 대통령 클린턴은 그 해결책에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워싱턴에서 역사적인 조미 공동성명이 채택될 수 있었고, 그 직후에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 대통령의 북(조선) 공식방문을 준비하기 위하여 평양을 찾아갔으며, 미국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실현되는 결정적인 단계에까지 근접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시하여야 할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조미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교수립으로 나아갈 수 있는 획기적인 해결책을 이미 제시하였고, 클린턴 행정부가 그것에 동의한 바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미국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조미 정상회담을 열고 두 나라 정상이 합의하는 내용을 세상에 발표하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클린턴에게 제시하였고 클린턴이 받아들인 획기적인 해결책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 해결책은 외부에 알려진 바 없지만, 그 동안 조미 정치협상의 핵심내용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드러난다.

(1). 북(조선)이 ≪백두산 2호≫의 발사를 중단하는 대신 미국은 ≪광명성 2호≫를 운반할 우주발사체를 대리 발사 해주는 책임을 맡는다. 대리발사의 책임이란 미국이 직접 발사해주든지 아니면 제3국이 발사할 때 미국은 자기에게 요구되는 조치를 취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조선)은 ≪강성대국 건설≫의 핵심사업인 평화적인 우주개발을 계속하여 추진하여야 하므로 ≪광명성≫으로 이름을 붙인 인공위성체는 계속하여 개발하게 될 것이다.

(2). 북(조선)은 우주발사체 ≪백두산≫의 개발을 중단하는 대신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한다. 우주발사체 ≪백두산≫의 탄두부에 인공위성체 대신에 핵탄두를 장착하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된다. 그러므로 우주발사체 ≪백두산≫의 개발을 중단한다는 말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것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는 말은 조미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추세에 따라 미군병력과 군사장비를 단계적으로 철수하고 군사기지를 단계적으로 폐쇄해 가다가 한(조선)반도의 통일이 실현되기 직전에 철군을 완료하고 군사기지를 완전히 폐쇄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3). 조미 두 나라는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교를 수립한다. 적대관계를 청산한다는 말은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로 전환하고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조미 국교수립은 북(조선)에 대한 미국의 적대·말살정책의 종말을 의미한다.

그런데 새로 들어선 부시 정부는 선행 클린턴 정부가 북(조선)의 해결책에 동의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시 협상을 시작해야 하는 것처럼 부산을 떨고 있다. 이에 대해서 북(조선)은 클린턴 정부가 조미 정치협상에서 동의한 것을 부시 정부가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정치협상을 재개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부시 정부는 북(조선)의 그러한 요구에 대하여 선뜻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조미 관계에 걸려있는 최대의 쟁점이다. 이 쟁점을 해소하는 타결점을 찾게 되면 곧 조미 고위급 정치협상이 열리게 되어 있다.

부시 정부가 2000년 10월의 조미 정치협상에서 동의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자, 2001년 5월 3일 평양에서 열렸던 조선-유럽연합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10월의 조미 공동성명에서 발표한 ≪백두산 2호≫ 발사에 대한 유예조치를 2003년까지만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03년 유예조치는 미국에게 앞으로 2년 반의 시한부 통첩을 준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은 조미 두 나라가 정치협상 재개문제를 놓고 벌이고 있는 갈등을 정해진 시한 안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해지고 불리해지는 쪽은 미국이다.

3) 북(조선)은 국가적 조직력으로 돌파하였다.

북(조선) 인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국가역량을 총동원하여 전략목표를 수행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것도, 대외적으로 강대국들을 상대하여 당당하게 정치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모두 국가내부의 결집된 힘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북(조선) 내부의 결집된 힘을 그들은 ≪일심단결의 위력≫이라고 부르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80년대 중반에 그 힘의 원천을 ≪수령·당·대중이 하나의 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일심단결한 사회정치적 생명체≫라고 밝힌 새로운 이론을 정립하였다.

북(조선)의 국가적 조직력은 ≪고난의 행군≫이라는 시련기의 역경 속에서, 국상을 당하여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겼을 때, 미국과의 전면전을 눈앞에 두고 준전시상태가 선포되었을 때,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제재건에 달라붙었을 때 전인민적 일체감을 보여주었으며 일사불란한 단결을 과시하였다.

2003년 북미간 최종결전 위한 대미국제포위망, 사실상완성(발췌)

김명철 / 군사외교평론가

조미 결전 최종 라운드 2003년 앞두고 대미국제포위망 완성

김정일의 방러에 의한 북러군사동맹 재구축은 북미결전 최종 라운드인 2003년을 앞두고 대미국제포위망이 사실상 완성된 것을 의미한다. **김정일**의 최초시나리오에서는 반드시 국제적 대미포위망을 정비할 예정을 했던 것은 아니다. **김정일**은 단독으로 2003년 조미 최종전에서 무혈승리를 거두고 만에 하나 전면전쟁, 핵전쟁이 되어도 미국 본토를 불바다로 만들 전쟁 준비를 완료하고 있었다.

하지만 **김정일**의 군사 우선정책은 절대적인 효과를 내어 페리 보고서를 끌어냈고,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유럽 국가들과 캐나다, 호주를 포함한 미국 동맹국들과도 국교를 정상화했다. 미 동맹국은 ≪북한은 깡패국가≫라고 떠드는 미정부의 북한고립화 정책과 결별한 것이다. 미국과 일본, 프랑스, 아일랜드를 제외한 서방국가는 부시정권의 대북한 강경책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도 작년 총선거를 목전에 두고 **김정일**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 결과 같은 해 6월 13일~15일, 마침내 평양에서 남북수뇌회담이 개최되고 15일 남북공동선언이 나와 남북의 자주적 통일이 합의됐다. **김정일**은 작년과 올해 두 번에 걸쳐 중국을 방문하고, 중국 수뇌와 북중군사동맹이라는 피의 결속을 재확인하고 강화했다.

올 9월에는 장쩌민주석의 방북이 예정되어 있고, 중국의용군 조선전쟁참전 50주년을 계기로 해서 전통적 북중 동맹관계 강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돌아보면 한국전쟁 이후 네 차례의 북미군사대결이 있었다. 1968년 스파이선 푸에블로호 나포사건, 1969년 EC-121 정탐기격추사건, 1976년 포플러나무 벌채사건, 1993년~94년 핵대결. 그 때마다 어느 나라도 북한에 지원을 표명하지 않았다.

북한은 단독으로 세계의 초강대국, 미국과의 무력 대결에 임해 전면전쟁, 핵전쟁을 불사하는 강경책을 폈다. 결국 그 때마다 미국이 물러났고 북한은 무혈승리를 달성했다. 하지만 미국과의 단독대결이 북한경제와 국민에게 커다란 부담을 안겨 준 것도 사실이다.

작년 초부터 국제적인 환경은 크게 변화했다. 더 이상 북한은 대미대결에 있어서 고립되어 있지 않다. 북한은 단독이라도 승리할 수 있는 군사력을 쌓아 올리면서 국제적인 대미포위망도 완성한 것이다.

이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있는 것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고 부시정권이다. 현재의 상황은 지금까지의 북미 대결과는 근본적으로 달라, 북한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다.

극적으로 유리해진 상황 속에 **김정일**은 제네바 핵합의 최종기한인 2003년 북미 최종 결전을 맞이하게 된다. 미국은 2003년까지 약속한 경수로 2기를 북한이 운전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만 한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불가능해졌다. 어떤 의미에서는 미정부가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고 경수로공사를 사실상 포기해 버린 것이다. 이미 미국정부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공사를 해도 2003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없다.

2003년이 되면 부시정권은 세계의 면전에서 북한으로부터 격렬히 비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제네바 핵합의를 포기하고 동결돼 있던 핵 발전을 재개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장거리미사일발사실험을 재개할 것이다. 북한이 언제든지 수소폭탄을 만들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또한 북한은 두번째 인공위성 발사를 재개할 뿐만 아니라, 유인우주비행실험까지 할 가능성마저 있다. 2003년 제네바합의 만료시기가 다가오면 부시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제네바합의를 아예 무시함으로써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발사실험을 묵인한다.

미국이 핵합의를 파기하면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게 된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일본이 용인할 수 없고 일본도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이 무의미해지고 일본 국내에는 반미기운이 높아질 것이며 최종적으로 주일미군은 철수할 수밖에 없다. 동시에 일본정부는 공공연히 혹은 비밀로 핵무장을 결단하게 된다.

한국은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도 핵무장을 결단하고 주한미군도 철수할 수밖에 없게 된다. 중국과 러시아도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고, 또한 일본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미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하게 된다.

그 결과 동북아시아에서는 핵 확산이 야기되고, 반면 핵무기로 세계를 재패했던 미국은 초강대국의 지위에서 굴러 떨어져 2류국가로 전락할 것이다. 이것은 미국에게 악몽의 사태가 될 것이다.

두 번째, 북한을 상대로 선제군사공격을 한다.

나라인 것이 사실이지만 북한은 이라크나 유고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는 북한과 전면전쟁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제네바핵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군사행동을 일으키기에는 국제적으로 대의명분이 없다. 미국은 대의명분이 없어도 군사

행동을 일으키는 그것은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의 전멸뿐 아니라, 미군의 대북한군사행동에 협력하는 나라들이 보복공격의 대상이 되어 파괴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또한 미국본토 특히 뉴욕, 워싱턴, 시카고 등이 북한 미사일에 의해 불바다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지원이 없더라도 북한은 단독으로 미국과 핵전쟁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미국보다 북한이 핵전쟁 준비가 되어있다. 미국본토 도심은 핵공격에 대한 방위체제가 일체 없다. 초보적인 엠디체제가 설치될 계획이지만 그것도 2004년 이후가 된다.

또 미국의 대북한군사행동을 유럽, 중국, 러시아를 비롯해 전세계가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틀림없이 이 선택도 미국에게는 악몽의 시나리오가 된다. 위에 말한 두 가지의 선택으로는 부시의 재선가능성은 완전히 없어진다.

부시진영은 이미 재선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도 헛된 일이 되고 만다. 걸프전쟁으로 부친도 재선하지 못했다. 개구리의 자식은 개구리가 된다. 무엇보다도 세계에 대한 미국의 지반침하 혹은 본토가 불타오르는 것이 현실이 된다.

세 번째, 제네바합의를 이행하고 북한측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인다.

미국이 정상적인 판단력이 있는 나라라면, 약한 자를 괴롭히는 인간이나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나라에 저항하는 상대, 특히 강렬한 반격, 보복능력을 갖고 있는 상대를 만나면 정치적인 해결을 선택한다.

이 경우 미국이 받아들일 것은 북미적대관계의 해소, 즉 북미평화협상조인, 주한미군철수, 북미국교수립, 제재조치의 전면해소, 테러국가리스트에서 북한해제, 최혜국대우를 해주는 것 등이다. 이것은 미국에게 새로운 경제적 지출이 요구된다.

이런 조치는 의회의 승인, 비승인에 상관없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선택으로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핵확산과 정치적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일미군의 잔류와 일본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은 초강대국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부시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을 타고 평양에 가서 **김정일**을 만나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고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길을 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부시는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지켰다는 세계적 찬사를 받고 재선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다.

부시에게는 이것 밖에 선택할 것이 없다.

만일 부시가 북한과 군사대결의 길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미국의 파멸을 의미한다. 군사적 대결은 **김정일**이, 북한이 제일 자신있는 분야다. **김정일**은 항일무장전쟁의 전화속에서 태어나, 한국전쟁의 하늘, 땅, 바다 가릴 것 없는 맹렬한 화염 속에서 성장했고, 그 후 미국과의 군사대결 속에서 세계 초일급의 군사지도자, 정치지도자가 되었다.

군사력 강화, 경제재생의 순풍

이번 방문으로 북러양국은 정치, 군사, 과학 등의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합의했으나 이것은 북한의 군사력 강화, 특히 경제재생의 순풍이 될 것이다. 북러공동선언에서 러시아는 양국간에 건설한 산업시설, 특히 전력시설의 재건을 우선적으로 약속했다. 원래 북한의 산업시설은 러시아기술에 의한 것이 많다.

북한의 전력생산과 공급시스템의 중핵은 평양화력발전소와 북창화력발전소이다. 이 두 곳은 제1차 7개년 계획의 핵심으로 러시아의 기술과 설비를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1962년의 쿠바위기 이후 러시아는 협력을 중단하고 부품 등의 공급을 거부했다.

유럽 등으로부터 상품조달은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규격이 맞지 않고, 맞는 경우에도 조건이 붙어 매우 비쌌다. 하지만 북러합의 이후 커다란 자본도입 없이도 러시아로부터 일부부품 등의 공급이 재개된다면 북한전력사정은 크게 호전된다. 전력생산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 북한 경제는 재생의 실마리를 얻게 된다.

또 그 밖의 생산시설이나 공장도 가동률이 극적으로 높아진다. 물론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이 없어도 이미 북한 경제는 부활기조에 있고 몇 년 안에 극적인 재생을 하게 될 것은 명백하다. 여기에 러시아가 협력한다면 순풍이 불어 북한의 경제재건은 가속화될 것이다.

군사분야도 마찬가지다. 전투기 등은 대부분이 러시아제인 데다가 부품부족, 연료부족상태였던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북러회담은 이것이 해소되었음을 의미한다.

러시아의 경제규모로 본다면 북한과의 경제, 군사분야 협력이 별 것 아니지만,대미 전략상 이것만큼 유효한 대책은 없다. 다시 말해 러시아 자신이 병력이나 군비를 확대하는 것은 커다란 부담이 되지만, 북한을 도와주는 것은 러시아 자신의 군사력이 강화되는 것 보다 수백배의 군사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후 수년 사이에 북한경제는 완전히 재건되고 부활해, 1인당 국민소득도 1991년의 2500달러 수준으로 돌아간다. 10년 내에는 8천달러 이상으로도 급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 또 1만달러 이상의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 근거로 다음을 들 수 있다.

△유럽과 경제적 관계가 깊어지게 된다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은 순풍이 된다. △2003년까지 북미적대관계가 해소된다 △여분의 국방비는 전부 경제건설에 돌릴 수 있다 △북미적대관계 해소에 의해 해외로부터 투자가 본격화된다 △석유개발이 앞으로 몇 년 안에 본격화되어 북한은 산유국이 된다 △이후 5년 이내에 남북이 연방제를 달성한다.

만일 북한이 산유국으로 떠오르면 1인당 국민소득은 2만달러, 3만달러로 상승할 것이다. **김정일**은 국제사회도 자신 편으로 만들어 미국을 무혈무력화시켜 남북연방제통일을 달성할 것이다. 바로 그 때가 북한의 경제도, 국민 생활도 극적으로 향상될 때이다.

이번 방러 24일간은 2003년 북미 최종 결전에 대비한 대미포위망완성을 의미한다. 이후 2년 4개월 이내에 북미교섭은 평화적으로 일괄타결될 것이다. 미국이 무력화된 조건에서 남북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지도에 의해 연방제통일을 달성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한반도통일의 최대의 장애였던 미군, 미국이라는 요인이 무력화될 때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폐지된다. 미국이 무력화되고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남북한은 쉽게 연방제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

이것은 결코 한여름 밤의 꿈이 아니다. 몇 년 이내에 우리들 눈앞에 펼쳐질 현실인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미합중국 공동성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정부급회담이 1993년 6월 2일부터 11일 사이에 뉴욕에서 진행되였다.

회담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강석주 외교부제1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과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로버트 엘.갈루치 국무성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쌍방은 회담에서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정책적문제들을 토의하고 핵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되게 북남비핵화공동선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다음과 같은 원칙들에 합의하였다.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이러한 무력으로 위협도 하지 않는다는것을 담보한다.

－전면적인 담보적용의 공정성보장을 포함하여 조선반도의 비핵화,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상대방의 자주권을 호상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지지한다.

이러한 원칙들에 준하여 조미쌍방정부들은 평등하고 공정한 기초우에서 대화를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으로부터의 탈퇴효력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만큼 일방적으로 림시 정지시키기로 하였다.

1993년 6월 11일
뉴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사이의 기본합의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대표단과 미합중국정부대표단은 1994년 9월 23일부터 10월 21일까지 제네바에서 조선반도핵문제의 전면적해결에 관한 회담을 진행하였다.

쌍방은 조선반도의 비핵화,평화와 안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1994년 8월12일부 조미합의성명에 명기된 목표들을 달성하며 1993년 6월 11일부 조미공동성명의 원칙들을 견지하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핵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조치들을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1.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흑연감속로와 련관시설들을 경수로발전소들로 교체하기 위하여 협조한다.

1) 미합중국은 1994년 10월 20일부 미합중국 대통령의 담보서한에 따라 2003년까지 총 200만키로와트발전능력의 경수로발전소들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하기 위한 조치들을 책임지고 취한다.

－미합중국은 자기의 주도하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할 경수로발전소 자금과 설비들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련합체를 조직한다. 이 국제련합체를 대표하는 미합중국은 경수로제공사업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본상대자로 된다.

－미합중국은 련합체를 대표하여 이 합의문이 서명된 날부터 6개월안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경수로제공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은 이 합의문이 서명된후 될수록 빠른 시일안에 시작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필요에 따라 핵에네르기의 평화적리용분야에서의 쌍무적협조를 위한 협정을 체결한다.

2) 미합중국은 1994년 10월 20일부 미합중국 대통령의 담보서한에 따라 련합체를 대표하여 1호경수로발전소가 완공될때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흑연감속로와 련관시설들의 동결에 따르는 에네르기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한다.

－대용에네르기는 열 및 전기 생산용 중유로 제공한다.

－중유납입은 이 합의문이 서명된 날부터 3개월안에 시작하며 납입량은 합의된 계획에 따라 매해 50만톤수준에 이르게 된다.

3) 경수로제공과 대용에네르기보장에 대한 미합중국의 담보들을 받은데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흑연감속로와 련관시설들을 동결하며 궁극적으로 해체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흑연감속로와 련관시설들에 대한 동결은 이 합의문이 서명된 날부터 1개월안에 완전히 실시된다. 이 1개월간과 그 이후의 동결기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원자력기구가 동결상태를 감시하도록 허용하며 기구에 이를 위한 협

조를 충분히 제공한다.

-경수로대상이 완전히 실현되는 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흑연감속로와 련관시설들은 완전히 해체된다.

-경수로대상건설기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5메가와트시험원자로에서 나온 페연료의 안전한 보관방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재처리를 하지 않고 다른 안전한 방법으로 페연료를 처분하기 위한 방도를 탐구하기 위하여 협조한다.

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이 합의문이 서명된후 될수록 빠른 시일안에 두갈래의 전문가협상을 진행한다.

-한 전문가협상에서는 대용에네르기와 관련한 련관문제들과 그리고 흑연감속로계획을 경수로대상으로 교체하는데서 제기되는 련관문제들을 토의한다.

-다른 전문가협상에서는 페연료의 보관 및 최종처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토의한다.

2.쌍방은 정치 및 경제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하는데로 나아간다.

1)쌍방은 이 합의문이 서명된후 3개월안에 통신봉사와 금융결제에 대한 제한조치들의 해소를 포함하여 무역과 투자의 장벽을 완화한다.

2)쌍방은 전문가협상에서 령사 및 기타 실무적문제들이 해결되는데 따라 서로 상대방의 수도에 련락사무소들을 개설한다.

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호상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의 해결에서 진전이 이루어지는데 따라 쌍무관계를 대사급으로 승격시킨다.

3.쌍방은 조선반도의 비핵화,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1)미합중국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핵무기로 위협하지도 않는다는 공식담보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한다.

2)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시종일관하게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북남공동선언을 리행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한다.

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 기본합의문에 의하여 대화를 도모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데 따라 북남대화를 진행할것이다.

4.쌍방은 국제적인 핵전파방지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1)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성원국으로 남아 조약에 따르는 담보협정의 리행을 허용할것이다.

2)경수로제공계약이 체결되면 동결되지 않는 시설들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국제원자력기구 사이의 담보협정에 따르는 정기 및 비정기사찰이 재개된다.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동결되지 않는 시설들에 대한 담보의 련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이 계속된다.

3)경수로대상의 상당한 부분이 실현된 다음 그리고 주요핵관련부분품들이 납입되기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원자력기구와 자기의 핵물질초기보고서의 정확성 및 완전성검증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하고 그에 따라 기구가 필요하다고 간주할수있는 모든 조치들을 취하는것을 포함하여 기구와의 담보협정(회람통보/403)을 완전히 리행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제1부부장 강석주
미합중국대표단 단장 미합중국 순회대사 로버트 엘 갈루치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

미국대통령이 보내온 담보서한

경수로완공과 대용에네르기보장의 리행을 확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지도자
김정일각하
각하

나는 나의 모든 직권을 행사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될 경수로발전소대상의 자금보장과 건설을 위한 조치들을 추진시키며 1호경수로발전소가 완공될 때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될 대용에네르기보장에 필요한 자금조성과 그 리행을 위한 조치들을 추진시키겠다는것을 당신께 확언하는바입니다.

이와 함께 나는 이 원자로대상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책임이 아닌 다른 리유들로 하여 완공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나의 모든 직권을 행사하여 미합중국 국회의 승인밑에 미합중국이 직접 맡아 완공하도록 할것입니다. 동시에 나는 대용에네르기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책임이 아닌 다른 리유들로 하여 제공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나의 모든 직권을 행사하여 미합중국 국회의 승인밑에 미합중국이 직접 맡아 제공하도록 할것입니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미합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의 기본합의문에 지적된 정책들을 계속 리행해나가는 한 이 행동방향을 견지할것입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미합중국 대통령 빌 클린톤
1994년 10월 20일 워싱톤 백악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미제가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끌어가고있는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여 2일 우리의 립장을 엄숙히 선언하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최근 우리공화국을 군사적으로 말살하려는 미제의 오만한 침략기도가 위험계선을 넘어서고있다.

보도에 의하면 남조선에 왔던 미국대통령 클린톤은 전례없이 미제침략군 부대들의 동원태세와 비행대의 출격준비상태까지 최종점검하면서 우리의 핵문제를 걸고 "미국은 미국민과 우방을 지키기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할 각오가 되어 있으며 능력도 있다"고 호언하였다.

사대와 굴종으로 명줄을 이어온 남조선괴뢰역도는 상전의 호언에 비위를 맞춰가며 지하시설사찰에 응해야한다고 주제넘게 지껄여대고 있으며 우리의 인공지구위성발사를 탄도미싸일발사라고 못되게 나발을 불어대던 일본반동들 역시 또다시 발악적으로 나오고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미국의 강경보수세력들은 우리의 지하시설들에 대한 사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미기본합의문을 파기하고 단호한 대응 을 취하겠다고 폭언하였다.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우리와의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선전포고와 같다. 더우기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요즘 미군부에서 북조선으로 쳐들어갈 것을 예견한 새로운 전쟁계획을 완성하고있다 는 보도와 함께 지난 조선전쟁에서 참패당한 것을 복수 한다는 이른바 제2의 조선 침략전쟁계획인 5027작전계획의 내용들이 제3국의 출판물들에까지 버젓이 공개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제3국의 출판물을 통하여 입수한 5027작전계획 에 의하면 북침을 노린 제2의 조선전쟁은 모두 5개의 단계로 나누어 감행된다고 한다.

1단계는 억제 단계로서 그 누구의 행동을 억제 한다는 구실 밑에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 미제침략군무력을 집결시켜놓고 공화국북반부의 공중과 해상, 국경을 봉쇄하는 등 본격적인 제재를 가하는 작전단계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단계의 작전은 사실상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단계는 무력화타격 단계로서 방대한 야전포병무력과 비행대, 순항유도무기들로 공화국북반부 전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공중타격전으로 우리를 무력화 시킬 것을 노린 작전단계이다. 지금 미제는 이 단계의 작전을 위해 우리주변에 비행대를 비롯한 해공군 무력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은밀히 집결시켜놓고 각종 훈련과 연습으로 그 타격방법을 숙련시키고있다.

3단계는 지상공격작전 단계로서 공화국북반부의 동서 량해안에 대한 대규모적인 상륙작전과 항공륙전작전, 직승기륙전작전, 특공대작전을 배합한 전면적인 지상공격작전으로 우리혁명의 심장인 평양에 대한 작전적포위를 실현하고 청천강계선까지 점령 하는 작전단계이다.

4단계는 전쟁성과확대 단계로서 청천강이북의 공화국북반부 전역을 점령 하며 5단계는 종전 단계로서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 을 실현한다는 것으로 되여있다. 미제는 이 작전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미제침략군 54만5000여명과 남조선괴뢰군63만여명, 항공모함전단 5~7개, 스텔스전투폭격기 F－117, F－111, 핵무기를 적재한 전략폭격기 B－1, B－2, B－52 를 비롯한 현대적인 첨단장비들과 대형타격수단들을 투입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 이 계획에는 전쟁의 불집을 일으키는 방법이 3가지로 설정되여있는 바, 핵문제와 인권문제를 구실로 우리에게 제재를 가하다가 그 연장선우에서 타격을 가하는 방법, 우리의 핵의혹시설 들에 대한 외과수술식 타격을 가하는 방법 그리고 정세를 지속적으로 긴장시키다가 정세악화를 구실로 우리에 대한 선제타격을 단행하는 방법 등으로 전면전쟁을 유발시키게 되여있다.

최근에는 합참의장을 비롯한 미국방성 우두머리들과 미태평양군사령관, 륙해공군 구성군사령관들, 1, 3군단장과 미7함대사령관, 1, 3해병원정부대사령관 등을 비롯하여 조선전선에 투입하게되여있는 군사령관들을 남조선지역에 련속파견하여 작전계획의 현실성을 현지에서 검토하는 한편 RSO 198, 을지포커스렌즈98, 독수리98 등 합동군사연습을 통하여 북침전쟁준비를 다그치고있다. 요즘 미제가 우리의 있지도 않는 지하핵시설 문제와 인공지구위성발사로 인한 정세악화 설을 요란스럽게 들고나오는것은 바로 5027작전계획 에 따르는 전쟁의 불집을 터뜨리기 위한 구실을 마련하려는데 그 목적이있다. 미국이 이처럼 잠시나마 뒤집어썼던 유화 와 관여 의 허울을 벗어던지고 5027작전계획 시행에 나서게 된 리유는 명백하다. 고립압살전략으로도, 개혁 과 개방 에로 유도하기 위한 유화전략 으로도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무너뜨리지 못하게되자 드디여 분별을 잃고 무모한 모험에 나서게된 것이다.

원래 우리의 혁명무력은 본성적으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허물어버리려고 꾀하고있는 미국이 들고 나온 유화정책 에 크게 기대를 가진 적이 없으며 더우기 우리가 내놓은 군부장령급회담까지 외면해 버린 교전상대방인 미국의 처사에 대하여 예리하게 주시해왔다. 오늘 조성된 제반사태는 우리 혁명무력의 예리한 경계심과 혁명적 립장이 천만번 정당하였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불을 불로 다스리는 것은 우리 혁명군대의 기질이며 고유한 대응방식이다. 미제는 어리석게도 저들의 무모한 작전계획을 내돌리는 것으로 그 누구의 기를 꺾어보려하지만 그것은 망상이다. 우리에게는 우리식의 작전계획이있다. 외과수술식 타격이요, 선제타격 이요 하는 것들은 결코 미국만의 선택권이 아니며 그 타격방식도 결코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

우리 인민군대의 타격에는 한계가 없으며 그 타격을 피할 자리가 이 행성 우에 없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한다.

불과 불이 오가는 전쟁마당에서 5027작전계획 의 실행을 주도하는 미제침략군 뿐아니라 총알받이로 앞에 나서려는 남조선괴뢰들과 뒤에서 기지를 제공하거나 심부름을 하는 일본을 비롯한 온갖 어중이떠중이들 모두가 우리의 타격목표로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한다.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피하지도 않으며 일단 전쟁이 강요된다면 다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미제가 대화 와 협상 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끌어가고 있는 오늘의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여 우리 혁명무력은 미제침략군의 도전을 추호도 용서치 않고 섬멸적인 타격으로 대답 할 것이라는 것을 주체조선의 존엄을 걸고 엄숙히 선언한다.

침략자들은 무주고혼의 신세를 절대로 면치 못할 것이다.

주체87(1998)년 12월 2일

북남공동선언



6.15남북공동선언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념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국방위원장과 대한민국 김대중대통령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력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최고위급회담을 가지였다.

북남수뇌들은 분단력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리해를 증진시키고 북남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사변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북과 남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북과 남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북측의 낮은 단계의 련방제안과 남측의 련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북과 남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 진 가족,친척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북과 남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북과 남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안에 당국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대통령은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서울을 방문하시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공동코뮤니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정일**위원장의 특사인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조명록차수가 2000년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미합중국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국방위원회 **김정일**위원장께서 보내시는 친서와 조미관계에 대한 그이의 의사를 조명록특사가 미합중국 윌리암 클린톤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조명록특사와 일행은 매덜레인 알브라이트국무장관과 윌리암 코헨국방장관을 비롯한 미행정부의 고위관리들을 만나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교환을 진행하였다.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사이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개선시킬수 있는 새로운 기회들이 조성된데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 회담들은 진지하고 건설적이며 실무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서로의 관심사들에 대하여 더 잘 리해할수 있게 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력사적인 북남최고위급상봉에 의하여 조선반도의 환경이 변화되였다는것을 인정하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강화하는데 리롭게 두 나라사이의 쌍무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들을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1953년의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로 바꾸어 조선전쟁을 공식 종식시키는데서 4자회담 등 여러가지 방도들이 있다는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과 미합중국측은 관계를 개선하는것이 국가들사이의 관계에서 자연스러운 목표로 되며 관계개선이 21세기에 두 나라 인민들에게 다같이 리익으로 되는 동시에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도 보장하게 될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쌍무관계에서 새로운 방향을 취할 용의가 있다고 선언하였다. 첫 중대조치로서 쌍방은 그 어느 정부도 타방에 대하여 적대적의사를 가지지 않을것이라고 선언하고 앞으로 과거의 적대감에서 벗어난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라는 공약을 확언하였다.

쌍방은 1993년 6월 11일부 조미공동성명에 지적되고 1994년 10월 21일부 기본합의문에서 재확인된 원칙들에 기초하여 불신을 해소하고 호상신뢰를 이룩하며 주요관심사들을 건설적으로 다루어 나갈수 있는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두 나라사이의 관계가 자주권에 대한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는것을 재확인하면서 쌍무적 및 다무적공간을 통한 외교적접촉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것이 유익하다는데 대하여 류의하였다.

쌍방은 호혜적인 경제협조와 교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쌍방은 두 나라 인민들에게 유익하고 동북아시아전반에서의 경제적협조를 확대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게 될 무역 및 상업가능성들을 탐구하기 위하여 가까운 시일안에 경제무역전문가들의 호상방문을 실현하는 문제를 토의하였다.

쌍방은 미싸일문제의 해결이 조미관계의 근본적인 개선과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것이라는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은 새로운 관계구축을 위한 또 하나의 노력으로 미싸일문제와 관련한 회담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모든 장거리미싸일을 발사하지 않을것이라는데 대하여 미국측에 통보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기본합의문에 따르는 자기들의 의무를 완전히 리행하기 위한 공약과 노력을 배가할것을 확약하면서 이렇게 하는것이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와 안전을 이룩하는데 중요하다는것을 굳게 확언하였다. 이를 위하여 쌍방은 기본합의문에 따르는 의무리행을 보다 명백히 할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금창리지하시설에 대한 접근이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는데 유익하였다는데 대하여 류의하였다.

쌍방은 최근년간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인도주의분야에서 협조사업이 시작되였다는데 대하여 류의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은 미합중국이 식량 및 의약품지원분야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도주의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의의있는 기여를 한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다. 미합중국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조선전쟁시기 실종된 미군병사들의 유골을 발굴하는데 협조하여 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으며 쌍방은 실종자들의 행처를 가능한 최대로 조사확인하는 사업을 신속히 전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쌍방은 이상의 문제들과 기타 인도주의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한 접촉을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쌍방은 2000년 10월 6일 공동성명에 지적된바와 같이 테로를 반대하는 국제적노력을 지지고무하기로 합의하였다.

조명록특사는 력사적인 북남최고위급상봉결과를 비롯하여 최근 몇개월사이의 북남대화상황에 대하여 미국측에 통보하였다. 미합중국측은 현행 북남대화의 계속적인 전진과 성과 그리고 안보대화의 강화를 포함한 북남사이의 화해와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발기들의 실현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방법으로 협조할 자기의 확고한 공약을 표명하였다.

조명록특사는 클린톤대통령과 미국인민이 방문기간 따뜻한 환대를 베풀어 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정일**위원장께 윌리암 클린톤대통령의 의사를 직접 전달하며 미합중국대통령의 방문을 준비하기 위하여 매덜레인 알브라이트국무장관이 가까운 시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하기로 합의하였다.

2000년 10월 12일

워 싱 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모스크바선언



두 나라 최고수뇌들은 친선적이고 허심탄회한 분위기에서 쌍무관계문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국제문제들에 대한 폭 넓은 의견교환을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은 새 세기에 세계적안정을 유지하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공보 및 기타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믿음직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의 우위와 평등, 호상존중, 호혜적협조의 원칙에 기초한 정의로운 새 세계구조를 형성하는데 이바지할것이다.

쌍방은 세계적인 문제들에서 유엔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하는것이 가지는 중요성과 유엔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적원칙과 규범들에 배치되는 온갖 시도들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인정하였다.

세계에 존재하는 분쟁문제들은 대결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정치적협상의 방법으로 해결되여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은 국제관계에서 독립과 자주권, 령토완정이 철저히 보장되여야 한다고 인정하면서 매개 국가는 평등한 수준의 안전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는것을 확인한다.

쌍방은 국제테로와 호전적분리주의의 전파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의 노력을 합치는것이 중요하다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2.두 나라 최고수뇌들은 1972년 요격미싸일제한조약이 전략적안정의 초석으로, 전략공격무기의 가일층의 축감을 위한 기초로 된다는데 대하여 류의하면서 새 세기에도 국제적안전강화에 백방으로 기여할 결의를 표명하였다.

조선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미싸일계획이 평화적성격을 띠고 있으며 따라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그 어느 나라에도 위협으로 되지 않는다고 확언하였다.

로씨야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러한 립장을 환영하였다.

3.두 나라 최고수뇌들은 깊은 력사적뿌리를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조로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것이 새 세기에 들어 선 두 나라 인민들의 근본리익에 부합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중대한 기여를 한다는데 대하여 일치하게 인정하였다.

쌍방은 2000년 7월 19일에 두 나라 최고수뇌들이 서명한 조로공동선언과 2000년 2월 9일에 조인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의 력사적의의를 다시금 확인하고 이 문건들에 기초하여 동북아시아와 전 세계에서의 평화와 안정, 두 나라의 번영과 평등한 호혜적협조를 이룩하기 위한 친선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4.두 나라 최고수뇌들은 정치, 경제, 군사, 과학기술,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쌍무적인 협조를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조치들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며 일련의 해당한 협정들이 체결된데 대하여 만족스럽게 지적하였다.

5.쌍방은 무역경제협조분야에서 이미 이룩된 합의들을 구체화하면서 쌍무결제에서의 과거 문제들을 조정하는데 기초하여 공동의 노력으로 건설된 기업소들, 특히 전력부문 기업소들의 개건계획들을 우선적으로 실현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자기 정부들에 이와 관련한 지시를 주었다.

로씨야측은 일련의 쌍무계획실현을 위하여 조선측의 리해밑에 외부의 재정원천을 인입시키는 방법을 리용하려는 자기의 의향을 확인하였다.

6.쌍방은 세계적실천에서 공인된 호상리익의 원칙에 기초하여 조선반도 북남과 로씨야, 유럽을 련결하는 철도수송로창설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것을 공약하면서 조선과 로씨야철도련결사업이 본격적인 실현단계에 들어 선다는것을 선포하였다.

7.두 나라 최고수뇌들은 2000년 6월 15일 북남공동선언에 따라 나라의 통일문제를 조선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노력을 지지하는것이 조선의 통일문제해결에 이바지한다는데 대하여 견해의 일치를 보았으며 이 과정에 대한 외부적인 방해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로씨야측은 이와 관련한 조선의 북남사이의 합의를 존중하며 북남대화가 외부의 간섭이 없이 계속되는것을 확고히 지지한다는것을 확인하였으며 앞으로도 조선반도에서의 긍정적인 과정들에서 건설적이며 책임적인 역할을 수행할 용의를 확인하였다.

8.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철수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서 미룰수 없는 초미의 문제로 된다는 립장을 설명하였다.

로씨야측은 이 립장에 리해를 표명하였으며 비군사적수단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로씨야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련의 유럽국가들 및 국제기구들사이의 공식관계설정이 적극화되고 있는것을 환영하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 일본과 같은 나라들사이의 회담과정에서 성과가 이룩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정일**위원장께서는 방문기간 로씨야측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시하시고 로씨야련방 대통령 웨.웨.뿌찐각하가 편리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다시 방문하도록 초청하시였다.

초청은 감사히 수락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

로씨야련방대통령 웨.웨.뿌찐

2001년 8월 4일 모스크바



김일성주석께 비전향장기수들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평양 9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 조국의 품으로 돌아 온 비전향장기수들이 오늘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경의를 표시하였다.

비전향장기수들은 기나 긴 옥중속에서도 언제나 한시도 잊지 않고 마음의 기둥,신념의 기둥으로 믿고 따르던 **김일성**주석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에 휩싸여 있었다.

그들은 주석의 립상을 모신 홀을 지나 생전의 모습 그대로이신 주석께서 계시는 곳으로 올라 끓어 오르는 격정을 터치며 그이께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이어 그들은 주석께 여러 나라들에서 수여해 드린 훈장과 메달들과 민족의 어버이를 잃고 슬픔에 몸부림치던 그 나날들을 다시금 돌이켜 보게 하는 울음홀,주석께서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시 그리고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리용하신 렬차와 승용차를 돌아 보았다.

여기에는 인민무력상 김일철,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 등이 동행하였다.

비전향장기수들은 방문록에 글을 남기였다.

비전향장기수들 조국으로 돌아 왔다

(판문점 9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

남조선에 있던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인 비전향장기수들이 오늘 판문점을 넘어 꿈결에도 그리던 조국의 품으로 돌아 왔다.

조선민족의 굳센 신념과 의지를 내외에 힘 있게 과시한 조국의 자랑스러운 아들들을 맞이하는 판문점 북측지역은 꽃다발을 들고 나온 수많은 개성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오전 10시 비전향장기수 63명 모두가 판문점 분리선을 넘어 조국땅에 들어섰다.

그들속에는 삼륜차와 담가에 실려 온 비전향장기수들도 있었다.

순간,군중들은 꽃다발을 흔들고 환호를 올리면서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들을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어린이들과 근로자들이 비전향장기수들에게 꽃다발을 안겨 주고 꽃목걸이를 걸어 주었다.

인민무력상 김일철,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용순과 관계부문 일군들,개성시내 당,정권기관 책임일군들이 비전향장기수들을 뜨겁게 맞이하고 포옹하였다.

비전향장기수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이 어리여 있는 친필비를 찾았다.

이어 그들은 통일각에서 헤여 져 긴긴세월 어느 한시도 잊은적없는 가족,친척들과 감격적으로 상봉하였다.

당 및 국가 지도간부들은 공화국의 품에 안긴 비전향장기수들을 만나 혈육의 정이 넘치는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김일철인민무력상은 전체 비전향장기수들에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위임에 따라 조국의 품에 안긴 비전향장기수들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동지들이 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을 지니고 불변의 신념과 불굴의 의지로 통일애국의 길에 한생을 다 바쳐 투쟁하다가 오늘 돌아 온데 대하여 매우 만족해하시면서 동지들을 열렬히 축하하도록 하시였다고 말하였다.

비전향장기수들을 대표하여 우용각은 조국인민들에게 드리는 인사의말을 하였다.

그는 자기들에게 송환의 길을 열어 주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진심으로 되는 감사의 절을 올린다고 말하였다.

차에 올라 평양을 향하여 출발한 비전향장기수들은 판문점으로부터 수십리연도에서 개성시민들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으며 사리원시를 비롯한 평양에 이르는 수백리연도에서 각계층 군중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비전향장기수들에게 조국통일상을 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평양 9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

불굴의 통일애국투사 비전향장기수들에게 조국통일상을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조국통일구상을 높이 받들고 당과 혁명,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수행에 청춘도 행복도 다 바쳤으며 혁명적신념을 지니고 수십년간의 옥중고초를 과감히 이겨 내며 혁명적지조와 의리를 지켜 끝까지 싸운 불굴의 통일애국투사 비전향장기수들에게 조국통일상을 수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주체89(2000)년 9월 1일 평 양



김정일총비서께 비전향장기수들이 감사편지

(평양 9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들인 비전향장기수들이 4일 조국통일상을 수여 받고 감사편지를 드리였다.

감사편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시며 통일전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정일**장군님

자나깨나 안기고 싶던 어버이장군님의 자애로운 품으로 돌아 온 저희들은 장군님께서 베푸시는 은정이 너무도 크고 고마와 한없는 감사와 경모의 마음을 안고 경애하는 장군님께 삼가 이 글월을 올립니다.

끝 없는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여 죽어서 넋이라도 안기고 싶던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아 주시고 온 나라 인민들의 뜨거운 환영속에 신념과 의지의 인간들로 떠받들어 주신것만도 그 은혜 하늘에 닿고 황송하기 이를데 없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조국통일상수상자의 영광을 안겨 주시니 저희들은 심중의 격정을 그 무슨 말로 표현할수 없어 그저 장군님의 존함만을 목메여 부를뿐입니다.

저희들이 사상전향을 하지 않고 가혹한 세월을 꿋꿋이 이겨 온것은 공적이기전에 조국의 아들, 수령님과 장군님의 전사로서의 너무도 응당한 본분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장군님께서 하늘같은 덕망으로 태양의 따사로운 품에 안아 주시고 주실수 있는 모든 은정과 크나큰 믿음을 다 베풀어 주시니 과연 이 세상에 저희들처럼 행복한 전사, 영광스러운 인생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은정을 가슴벅차게 받아 안은 영광의 이 시각 저희들은 이미 우리 곁을 떠난 전우들과 남녘땅에 그대로 남아 있는 동지들 생각에 가슴 저려옴을 금할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거치른 남녘의 산과 들에 ≪**김일성**장군 만세≫, ≪**김정일**장군 만세≫를 소리높이 부르면서 장렬한 최후를 마친수많은 유명무명의 통일애국렬사들을 묻어 둔채 왔으며 또 어두운 철창속에 통일애국투사들을 그대로 남겨 둔채 왔습니다.

그리고 감옥문을 나섰지만 그리운 조국의 품,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에 안기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안고 사는 정순덕, 정순택과 같은 여러 동지들도 뒤에 남겨 두고 왔습니다.

이들이 모두 저희들과 함께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에 안겼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들모두가 함께 왔더라면 우리 통일전사들에게 돌려 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에 떠받들려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저희들과 목소리를 합쳐 ≪**김정일**장군 만세≫를 소리높이 불렀을것입니다.

저희들은 남녘땅에 두고 온 동지들의 마음까지 합치고 합쳐 통일전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고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삼가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바 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

저희들은 비록 조국과 떨어 져 한생을 보냈지만 참으로 귀중한것을 인생의 진리로 새겨 안고 돌아 왔습니다.

사상전향을 강요당하며 온갖 고통을 다 겪어야 했던 그때 저희들은 전향서에 도장만 찍으면 지긋지긋한 감옥에서 벗어 나 참혹한고통을 면할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의와 애국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수 없었고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혁명적의리를 저버릴수 없었습니다.

하기에 저희들은 하늘을 볼수도 없고 누울수도 없는 좁디 좁은 캄캄한 감방에서 참기 어려운 악형을 당하면서도 어버이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애국의 넋으로 심어 주신 위대한 사랑과 의리, 신념과 의지를 지켜 통일애국의 한길을 꿋꿋이 걸어 올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남녘땅에서 살아 오면서 위대한 태양을 우러러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수없이 만날수 있었습니다.

지난 6월 상봉이후 영명하신 장군님의 존귀하신 영상은 백두의 해돋이 마냥 강렬하고 매혹적이고 눈부신 태양으로 남녘땅을 더욱 밝게 비치였습니다.

텔레비죤화면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상을 뵈옵고 그 음성을 직접 듣게 된 남녘인민들은 순간에 해님같으신 장군님의 인품에 매혹되였고 우리 민족의 장래운명을 가꾸어 주실 분은 오직 **김정일**장군님밖에 없다고 하면서 장군님에 대한 흠모의 감정을 활화산처럼 터치였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한 위인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이였고 따름이였습니다.

장군님과 같으신 위인중의 위인을 령도자로 모실수 있은것은 우리 민족의 복중의 복이며 천출위인을 받들어 혁명의 길을 걸어 가고 있는것은 우리 전사들의 행운중의 행운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들은 다 늙고 병들어 이제는 조국에 큰 보탬이 되지 못할줄 알면서도 장군님의 품으로 왔습니다.

저희들가운데는 남쪽에 가족, 친척들을 그대로 두고 혈육 한점 없는 공화국으로 온 동지들도 여럿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결단을 내려 어버이장군님의 품으로 온것은 장군님을 따르는 그 길이 진정한 애국의 길이고 참된 삶의 길이며 통일의 날을 앞당기는 길이라는것을 심장으로 확신하였기때문입니다.

저희들은 비록 백발을 날리며 당의 품에 안겼지만 수십년세월 간직해 온 그 충성의 한 마음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여생을 빛나게 살겠습니다.

저희들은 숨이 져도 장군님을 따라 가다 숨지며 저희들이 못다가면 자식들이 대를 이어 가도록 하여 생의 은인이시고 위대한 스승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하늘같은 은덕에 천만분의 일이라도 꼭 보답하겠습니다.

위대한 장군님 계시여 7천만 우리 민족과 통일조국의 래일은 밝고 밝습니다.

통일조국의 강성부흥과 민족의 창창한 앞날을 위하여 위대한 사랑의 태양이시고 탁월한 령도의 거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김정일총비서께서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과 함께 금수산기념궁전 방문

(평양 10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조선로동당창건 55돐에 즈음하여 10일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과함께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으시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이날 금수산기념궁전은 경건하고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김정일령도자께서 **김일성**주석의 립상이 모셔 져 있는 홀에 들어 서시였다.

김영남,홍성남,김영춘,김일철을 비롯한 당가 국가의 지도간부들과 당,무력기관 책임일군들이 동행하였다.

김일성주석의 립상 량옆에는 조선로동당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기,조선인민군 군기들이 세워 져 있었으며 조선인민군 륙해공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 있었다.

김일성주석의 립상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생불멸할 것이다≫라는 글발이 씌여 져 있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과 함께 **김일성**주석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이어 **김일성**주석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모셔 져 있는 홀에 들어 서시였다.

그이께서는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과 함께 **김일성**주석께 가장 경건한 심정으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조선로동당창건 55돐경축 열병식 및 군중시위 진행

(평양 10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창건 55돐경축 열병식 및 군중시위가 10일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수도의 중심부에 있는 **김일성**광장과 그와 잇닿은 대통로들에는 열병식 및 군중시위 참가자들이 정렬해 있었다.

광장에는 **김일성**주석의 초상화가 모셔 져 있었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만세≫라고 쓴 구호들이 나붙어 있었다.

광장상공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만세≫,≪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만세≫,≪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55돐 만세≫,≪우리 당에 충실한 혁명무장력에 영광이 있으라≫라는 구호를 드리운 대형기구들이 떠 있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광장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순간,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 올라 천지를 진감하였으며 수천개의 고무풍선이 날아 올라 수도의 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김영남,김영주,박성철,홍성남을 비롯한 당 및 국가 지도간부들,항일혁명투사들,조선인민군 군종,병종사령관들,근로단체 책임일군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주석단에는 또한 총련중앙상임위원회 허종만책임부의장,국제태권도련맹 최홍희총재가 나왔다.

초대석에는 조선로동당창건 55돐경축 대표들이 자리잡고 있었다.

조선로동당창건 55돐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과 편지전달계주단,총련의 여러 대표단,방문단성원들,해외교포인사들이 초대석에 나와 있었다.

초대석에는 ≪한국민족민주전선≫ 평양대표부 대표와 조선주재 각국 외교대표들,무관단성원들,외국손님들이 나와 있었다.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주악되는 가운데 21발의 례포가 발사되였다.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김영춘이 연설을 하였다.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열병총지휘관인 김정각상장이 김영춘총참모장에게 열병부대들이 조선로동당창건 55돐경축 열병식 준비검열을 받기 위하여 정렬하였다는것을 보고하였다.

김영춘총참모장과 열병총지휘관은 열병부대들을 순회하면서 조선로동당창건 55돐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전체 열병대원들은 ≪조국을 위하여 복무함≫이라고 힘차게 화답하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 김영춘총참모장이 조선로동당창건 55돐경축 열병식을 시작하겠다는것을 보고하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손을 들어 답례를 보내시였다.

전체 열병대원들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치고 ≪**김정일**≫,≪결사옹위≫,≪조국통일≫이라고 합창하였으며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자≫라는 구호를 힘차게 불렀다.

열병식시작을 알리는 신호나팔소리가 울려 퍼지고 ≪**김일성**대원수 만만세≫노래가 주악되는 가운데 **김일성**주석의 초상기가 조선인민군 륙해공군 군기들의 호위를 받으며 광장에 들어 섰다.

전체 열병대원들은 **김일성**주석의 초상기를 우러러 일제히 ≪영접들어 총≫을 하며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조선로동당의 선군정치의 위대성과 전군간부화,전군현대화로선의 거대한 생활력을 과시하며 **김일성**군사종합대학,**김일성**정치대학,김정숙해군대학,김책공군대학,강건종합군관학교를 비롯한 각급 군사학교종대들,륙해공군부대종대들,근위제1보병사단,근위서울 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비롯한 조국해방전쟁시기 무비의 군공을 세운 근위부대종대들,혁명학원종대들이 보무당당히 행진해 나갔다.

이어 로농적위대종대들과 붉은청년근위대종대들이 광장을 씩씩하게 행진해 갔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열병부대들이 주석단앞을 지나갈 때마다 손을 높이 들어 답례를 보내시였다.

열병대오가 지나가는 수도의 거리에서는 각계층 시민들이 열병식 참가자들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열병식에 이어 광장에서는 군중시위가 시작되였다.

김일성주석의 립상을 선두로 당기발대렬과 환호대렬,봉화홰불대렬,행복춤대렬,영웅,공로자대렬,소년단대렬,붉은기춤대렬 등 시위대렬들이 가장물과 그림판,각종 구호들과 함께 나아갔다.

군중시위참가자들은 **김정일**동지를 중심으로 전당,전군,전민이 일심단결을 이룬 주체혁명대오의 혁명적기상과 존엄 높은 조선인민의 행복한 모습을 박력 있고 우아한 률동에 담아 펼쳐 보이면서 ≪만세≫의 환호를 올리고 꽃다발을 흔들며 주석단앞을 지나갔다.

군중시위가 끝나자 수백발의 축포가 터져 올랐으며 수천개의 고무풍선이 날아 올랐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주석단로대에 나오시여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손을 들어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창건 55돐경축 열병식 및 군중시위에서 한 연설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차수 김영춘

(평양 10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

오늘 진행된 조선로동당창건 55돐경축 열병식 및 군중시위에서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차수 김영춘이 연설하였다. 그는 연설에서 뜻깊은 당창건 55돐을 경축하여 성대한 열병식과 군중시위를 하는것은 주체형의 혁명적당건설위업에 쌓아 올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빛내이고 령도자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전당,전군,전민의 혁명적풍모를 힘 있게 보여주며 당의 령도 따라 주체의 혁명위업을 견결히 수호하고 끝까지 완성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과시하는 중대한 계기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김일성**주석께서 광복직후에 제때에 당을 창건하신것은 조선인민의 운명개척과 조선혁명발전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로동당이 창건됨으로써 조선인민은 자기의 믿음직한 전위부대,전투적참모부를 가지게 되였으며 이 땅우에 영광찬란한 로동당시대가 펼쳐 지게 되였다.

김일성주석의 령도밑에 자주시대 혁명적당건설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그 빛나는 모범을 창조한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진두에 높이 모시여 자기발전의 자랑찬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조선로동당은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이 확고히 보장되고 조직성과 규률성이 강한강철의 당으로전당이 수령의 두리에 철통같이 단결되고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되였으며 조선혁명의 참모부 령도적정치조직으로서의 숭고한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여 왔다.

그는 당의 선군정치에 의하여 조선인민군은 사상과 신념의 강군,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억세게 자라나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하고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지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자주,독립,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모든 승리와 최근년간 ≪고난의 행군≫,강행군의 어려운 시련을 이겨내고 강성대국건설과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국면을 열어 놓은 세기적인 기적은 대를 이어 걸출한 수령을 모시고 있는 조선로동당의 로숙하고 세련된 향도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인민들은 우리의 운명이시고 승리의 기치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조선로동당을 영원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당의 향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가야 하겠다.

우리 인민군 장병들은 인민군대의 총창우에 평화가 있고 사회주의의 승리가 있다는 혁명의 철리를 언제나 명심하고 불패의 군력을 다지고 다져 원쑤들의 온갖 침략책동을 무자비하게 짓부셔버리고 당과 사회주의위업을 굳건히 수호하며 부강조국건설에서 끊임없는 위훈을 창조함으로써 혁명의 기둥,주력군으로서의 영예로운 본분을 다해나갈것이다.

김영춘은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의 령도를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조선로동당의 사상중시,총대중시,과학기술중시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조선식 사회주의를 끝까지 지키고 빛내이며 이 땅우에 번영하는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기어이 일떠세울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충성의 편지증정식 진행(상보)

(평양 10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창건 55돐을 경축하여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충성의 편지 증정식이 9일 **김일성**경기장에서 진행되였다.

증정식에는 당,정권기관,근로단체 일군들,항일혁명투사들,조선인민군장병들,과학,교육,문화예술,보건,출판보도부문 일군들,전국각지에서 온 로력혁신자들,시내 근로자들,청소년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증정식에는 조선로동당창건 55돐 경축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55돐경축대표들인 비전향장기수들이 증정식에 참가하였다.

또한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하고 있는 해외동포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기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기를 모신 무개차를 선두로 충성의 편지전달이어달리기대렬들이 군중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경기장에 입장하여 정렬하였다.

김영남동지,홍성남동지,김영춘동지,김일철동지를 비롯한 당 및 국가지도간부들,도당책임비서들,근로단체 책임일군들,무력기관 책임일군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조선로동당창건 55돐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 단장인 총련중앙상임위원회 허종만책임부의장,국제태권도련맹 최홍희총재가 주석단에 나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충성의 편지 증정사를 체육지도위원회 박명철위원장이 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조선인민군 장병들,청소년학생들,각도 인민들과 인민보안원들,중앙기관 정무원들,철도종업원들,70만 재일동포들의 명의로 드리는 충성의 편지들을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임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전달받았다.

전체 충성의 편지전달이어달리기대렬성원들은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만세≫,≪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라는 구호를 힘차게 불렀다.

당창건경축행사에 참가할 남측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 평양 도착(상보)

(평양 10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창건 55돐 경축행사에 참가할 남측 정당,단체,개별인사들이 9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민주로동당 부대표들인 김혜경,로희찬,자주통일위원장 최규엽,사무부총장 정성희,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련합 상임의장 오종렬,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의장 박정기,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련합 대외협력위원장 리옥순,전국민주로동조합총련맹 부위원장 김영대,건설산업로조 위원장 리용식,녀성로조련맹 위원장 정인숙,전국민주로동조합총련맹 통일국장 김영제,로동조합총련맹 위원장 리남순,국제부장 안봉술,자동차로련위원장 강성천,금속로련 위원장 유재섭,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상임의장 림기란,공동의장들인 박용길,권오헌,총무 남규선,전국농민회총련맹 조국통일위원장 홍범,부의장 정현찬,강원도련맹의장 김종유,정책실장 리종화,민족예술인총련합 부회장 김용태,기획실장 박인배,지도위원 조성우,녀성단체련합 상임대표 지은희,공동대표 리경숙,평화통일위원장 정현백,전국교직원로동조합 위원장 리부영,통일맞이 늦봄 문익환목사기념사업회 정책실장 김창수,천도교중앙총부 종무원장직무대행 주영채,동학민족통일회 사무총장 오훈동,천주교주교회의 사무총장 김종수,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공동회장 신광수,사무총장 박준호,사무국장 리지범,향린교회 담임목사 홍근수,통일문제연구소 소장 백기완,상지대학교 총장 한완상,목원대학교 전 교수박순경,현대아산 부사장 김고중,≪말≫잡지사 기자 신준영이 왔다.

비행장에서 민족화해협의회 부회장 김령성,직총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진수,농근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명철,조선녀성협회 회장 홍선옥,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정호,조선종교인협의회 상무위원 황병준이 남측 정당,단체,개별 인사들을 동포애의 정으로 맞이하였다.

평양시내 각계층 근로자들이 ≪조국통일≫,≪환영≫이라는 구호를 부르고 꽃다발을 흔들면서 그들을 환영하였다.

또한 이날 신문 ≪한겨레≫취재단이 비행기로 도착하였다.

이에 앞서 ≪서울방송≫취재단이 평양에 왔다.



청년학생들의 야회와 홰불행진 성대히 진행

(평양 10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창건 55돐경축 청년학생들의 야회와 홰불행진이 11일 밤 **김일성**광장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광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초상화가 모셔 져 있었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만세≫라고 쓴 구호들이 나붙어 있었다.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가자≫ 등의 구호들과 대형의 조선로동당기들이 드리워 져 있었으며 곳곳에 붉은기들이 나붓기고 있었다.

평양의 밤하늘에 축포가 터져 오르는 가운데 청년학생들은 드넓은 광장에 화려한 춤바다를 펼쳐 놓았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광장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순간,≪만세≫의 폭풍같은 환호성이 터져 올라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김영남,홍성남을 비롯한 당 및 국가지도간부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주석단에는 또한 총련중앙상임위원회 허종만책임부의장,국제태권도련맹 최홍희총재가 나왔다.

초대석에는 조선로동당창건 55돐경축 대표들이 자리잡고 있었다. 조선로동당창건 55돐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과 편지전달계주단,총련의 여러 대표단,방문단성원들,해외교포인사들이 초대석에 나와 있었다.

초대석에는 또한 ≪한국민족민주전선≫ 평양대표부 대표와 조선주재 각국 외교대표들,대사관성원들,외국손님들이 나와 있었다.

≪청춘의 자랑≫,≪로동당을 잘 만나 청춘이 빛나네≫ 등의 노래선률에 맞추어 흥겨운 춤률동을 펼쳐 놓은 청년학생들의 야회는 성황을 이루었다.

야회에 이어 청년학생들의 홰불행진이 시작되였다.

불야성을 이룬 광장에 ≪조선로동당 만세≫ 노래주악이 장중하게 울려 퍼지자 **김일성**주석의 초상기와 **김정일**령도자의 초상기를 모신 무개차를 선두로 한 청년전위들의 홰불대오가 장엄한 행진을 개시하였다.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 주악에 맞추어 공로자대렬과 혁명학원대렬들,대학생청년대렬들,근로청년대렬들이 용기백배하여 광장을 누벼 나갔다.

광장에는 조선로동당 마크와 백두산 그리고 ≪향도자≫,≪총대≫ 등 글발이 홰불로 련이어 새겨 졌다.

≪**김일성**≫,≪**김정일**≫,≪일심단결≫,≪동지애≫,≪조선로동당≫ 등의 대형글발들을 홰불로 새긴 행진대오가 련이어 주석단앞을 지나갔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만세≫의 환호를 올리는 열혈의 청년전위들에게 손을 들어 뜨거운 답례를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에서 연회를 차렸다

(평양 10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창건 55돐을 경축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는 10일 평양에서 연회를 차리였다.

연회에는 김영남동지,홍성남동지,김영춘동지,김일철동지,리을설동지,백학림동지,연형묵동지,한성룡동지,계응태동지,김철만동지 등 당 및 국가지도간부들과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김영대위원장,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류미영위원장,항일혁명투사들,조선로동당창건 55돐경축대표들,경축대표들인 통일애국투사 비전향장기수들,관계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연회에는 또한 총련중앙상임위원회 허종만책임부의장을 단장으로하는 조선로동당창건 55돐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과 총련의 여러대표단,방문단 성원들,국제태권도련맹 최홍희총재 등 해외교포인사들이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가 연설하였다.

그는 연설에서 조선로동당의 창건은 우리 인민의 사회정치생활과 우리 혁명발전에서 근본적전환을 가져 온 력사적사변이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당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혁명의 믿음직한 전위부대,전투적참모부를 가지고 자기 운명을 승리적으로 개척해 나갈수 있게 되였으며 바로 이 때로부터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영광찬란한 시기로 빛나는 로동당시대가 펼쳐 지게 되였습니다.

당창건위업을 독창적으로 빛나게 실현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준엄한 혁명의 폭풍우를 헤치면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불멸의 업적을 쌓아 올리였습니다.

그는 조선로동당이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인민대중을 령도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고 조국땅우에 륭성과 번영의 대전성기를 열어 놓았으며 이 력사적행정에서 우리 당은 단련되고 세련된 로숙한 당으로,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으며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불패의 전투적당으로 강화발전된데 대해 언급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조선로동당의 전도는 양양하며 혁명의 승리는 필연적이라고 하면서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최고수위에 모시고 있는 조선로동당은 언제나 백전백승할것이며 당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그 어떤 난관과 시련속에서도 무궁번영하는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우리는 감회깊이 추억하리라

20세기 마지막 해 2000년을 보내며 / 2000년 12월29일부 ≪로동신문≫ 정론

희한한 력사의 사변들로 세상을 뒤흔들어 놓은 승리의 2000년이 장엄하게 저물어 간다.

피눈물의 바다를 헤쳐 넘고 폭풍 사나왔던 혁명의 년대와 년대들을 넘어 20세기 령마루에 올라 선 우리의 눈앞에 붉은기를 펄펄 날리며 걸어 온 력사의 험산준령들이 굽이굽이 아득히 펼쳐 졌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중심의 단결의 대하가 도도히 굽이쳐 흘러 온 주체혁명위업계승의 잊지 못할 첫 기슭에서부터 우리는 얼마나 머나먼 길을 걸어 왔던가.

오늘의 위대한 승리를 위하여 제국주의를 굴복시키며 걸어 온 혁명의 천만리길에서 위대한 장군님과 생사운명을 함께 하며 맞고 보낸 수십성상의 하루하루는 우리의 살점이 되고 피와 넋이 되여 광명한 21세기에로 이어 질것이다.

1

추억의 눈이 내린다.

위대한 장군님 따라 걸어 온 혁명의 천만리길에서 20세기 마지막 해 2000년을 보내는 승리자들의 환희의 감정 하늘에 닿았다.

기쁨만이 아니라 슬픔도 고난도 희생도 있었지만 붉은기를 높이 들고 20세기 승리의 령마루에로 억척같이 걸어 온 길은 정녕 몇천몇만리였던가.

7천만 조선민족의 기쁨과 환희가 눈송이처럼 펑펑 내려 쌓인 행복의 2000년이다.

백두산눈보라가 온 세상에 폭풍을 일군 승리의 2000년이다.

저기저 백마흔아홉굽이 월비산이며 지혜산과 철령,흰 파도 설레이는 동서해의 섬초소에로 조국이 보내는 축하의 인사 하늘땅에 차고 넘쳤다.

제국주의원쑤들이 풀 한포기 건드릴수 없었던 고지의 산발마다에서 시작되는 승리의 환희는 내 조국의 산과 들 넘어 공장과 협동벌, 조국의 거리거리와 마을들에 차고 넘쳐 온 나라 강산에 2000년 승리의 기쁨,20세기 승리의 환희가 세차게 굽이치고 있다.

우리는 승리하였다.

우리는 백두의 령장 **김정일**장군님을 따라 20세기 사회주의승리자가 되였다.

사회주의승리자

성스러운 력사를 돌이켜 보는 우리 가슴 한없이 설레인다.

사회주의승리자

이 한마디 말속에 올해 2000년과 20세기 조선혁명에 대한 가장 가슴 부푼 추억과 비길데 없는 영예가 있고 강성부흥의 21세기에로 나아가는 우리의 크나큰 신심이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은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고난의 행군을 벌려 겹쌓이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영예롭게 수호하였습니다.력사에 류례 없는 엄혹한 정세에서,가장 준엄한 난관과 시련속에서 단독으로 사회주의를 지켜 내고 사회주의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온 세계에 높이 떨친것은 우리 당의 위대한 령도의 승리이며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온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투쟁의 승리입니다.≫

2000년이 장엄하게도 흘러 왔다.

희한한 사변으로 가득찬 2000년과 더불어 20세기 조선혁명이 긍지높이 총화되였다.

2000년은 20세기 조선혁명의 빛나는 절정을 장식하였다.

반만년민족사에서 2000년과 같이 력사적사변이 많은 해는 드물었다.

화를 복으로 만들어 놓은 2000년,역경을 순경으로 만들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놓은 2000년,봉쇄와 압력을 적들의 항복으로 만들어 놓은 승리와 영광의 2000년이였다.

2000년

20세기와 21세기 교차점에 선 이 해를 떠나서 흘러 온 20세기를 총화할수 없으며 걸어 갈 21세기를 내다 볼수 없다.

2000년을 어떻게 장식하는가 하는데 한세기의 업적을 빛내이는가 빛내이지 못하는가,새 세기의 승리를 기약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크게 달려 있었다.

2000년이 어떻게 결속되는가에 따라 우리의 지나온 100년과 앞으로의 100년이 결정되게 되였다.

사회주의냐 제국주의냐,통일이냐 분렬이냐,정의냐 부정의냐 하는 민족과 인류의 백년천년의 흥망문제를 걸고 2000년이 흘러 왔다.

우리는 사회주의승리자로서 시대와 세기앞에 2000년을 소리높이 자랑한다.

조선의 2000년은 력사앞에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을 떳떳이 하였으며 수천년력사가 이룩할수 없는것들을 기적적으로 해놓았다.

우리의 2000년은 망국으로 시작되였던 조선의 백년사를 사회주의의 존엄 높은 승리로 총화하고 미래의 통일강성대국의 궤도를 열어 놓은 2000년이였다.

2000년은 영웅적≪고난의 행군≫ 승리가 온 세상에 선언된 력사적인 해였다.

2000년은 장장 오랜 세월 얼어 붙었던 분렬의 장벽에 분화구를 터친 민족대경사의 해였다.2000년은 조선의 사회주의위력앞에 제국주의가 무릎을 꿇은 해였으며 온 세상이 조선을 향하여 20세기 승리자의 축하를 보내온 장쾌한 경사의 해였다.

온 세상에 대고 통장훈을 부를만한 2000년의 요란한 승리는 조선을 당할 자 이 세상에 없다는것을 세계에 보여 주는 20세기의 거대한 사변이였다.

2000년에 우리는 사회주의수호전에서의 력사적승리를 온 세상에 시위하였다.



20세기 력사는 수천수만일동안 아득하게 흘러 왔다.전쟁과 정화, 분쟁과 회담,크고작은 조약들과 선언들,로케트시대,콤퓨터시대,유전자공학의 시대를 열어 놓은 놀라운 발견발명들과 현대과학기술의 발전,정치,경제,문화,군사분야의 크고 작은 사변들과 사건들로 끝없이 이어 지면서 100년이라는 기나긴 력사가 쉬임없이 흘러 왔다.

세상은 넓고 력사는 길었지만 이 세기의 사변들중에서도 사회주의의 출현과 그 붕괴를 낳은 비극적사변 그리고 조선에서 사회주의가 고수된 기적적사변이 사람들을 크게 놀래웠다.사회주의출현과 함께 20세기가 밝아 오고 사회주의붕괴와 함께 20세기가 이어 졌으며 조선에서 사회주의수호와 함께 20세기가 총화되였다.

탄생의 진통도 겪어 보고 붕괴의 홍수에 잠겨 보기도 하고 삶과 죽음의 최후마당에서 별의별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사회주의는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목숨 걸고 지켜 주는 운명의 수호자가 누구였는가를 피눈물속에 검증하였다.

자주의 리념을 ≪ㅌ.ㄷ≫의 기발에 새겨 넣은 때부터 장장 70여성상 항일의 불바다를 헤치며,전쟁의 탄우속을 헤치면서,≪고난의 행군≫길을 걸어 오면서 자기가 선택한 사회주의의 길에서 단 한걸음도 물러 서지 않은 영웅적조선인민,우리 인민의 이 백절불굴의 투쟁사가 2000년과 더불어 빛나게 결속되였다.

력사적인 2000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창건 55돐을 경축하는 내 조국땅에서 승리의 축포가 하늘땅을 진감할 때 세계는 바로 그것이 사회주의수호전에서 끝끝내 이긴 조선의 자랑찬 뢰성이라는것을 커다란 격동속에 깨달았다. 우리의 승리를 축하하여 온 우주공간을 채우면서 날아 왔던 축전들과 축하편지들의 흥분된 글줄들이 지금도 눈앞에 삼삼하다.

영웅적≪고난의 행군≫의 승리이자 사회주의수호전에서의 승리를 의미하는 우리의 력사적인 승리를 온 세상에 알리는 10월의 축포를 우리는 얼마나 가슴 후련하게 쏘았던가.

언제나 침략과 략탈,예속과 지배를 노리는 제국주의는 사회주의가 출현한 후 자기의 주되는 사상적적수인 사회주의나라들을 소멸하든가 아니면 약화시켜 보려고 온갖 비렬한 수법을 다 써 왔다.그 결과로 이 지구상에서 평화의 기본담보로 되였던 사회주의체계를 허물어 버리는 천추에 용납 못할 행위를 저질렀다.그러나 자기의 모든 경제력과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는 사회주의의 길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 영웅적인 조선인민을 굴복시킬수 없었다.

수십년간 강화발전시켜 온 혁명무력이 있었고 거대한 령토와 인구,수십만의 당원들이 있었으나 붉은기를 지켜 내지 못했으며 자기의 당도 군대도 선렬들의 기념탑과 국가마저도 지켜 내지 못한 통절함으로 가슴을 치는 동유럽의 수많은 인민들은 사회주의의 유일한 수호자인 조선인민을 뜨거운 선망속에 우러러 보고 있다.

자기의 붉은 기발을 되찾고 국가의 선률을 다시 찾으려고 모지름쓰는 심각한 투쟁속에서 그들은 버리기 쉽고 잃기는 쉬워도 되찾기 힘든 사회주의승리자의 존엄에 대하여 피눈물을 삼키면서 체험하고 있다.

령토상 대비로 보면 미국땅의 78분의 1이고 인구상 대비로 보면 미국의 10분의 1이며 력량상 대비로 보면 제국주의련합세력과 단독으로 맞선 조선이였으나 그 싸움에서 승리자는 제국주의가 아니라 조선이였다.

우리는 승리하였다.

승리의 이 기쁨 너무도 커서 발목이 진하도록 걷고 또 걸으면서 승리의 회포를 한껏 터치고 싶다.내려 쌓이는 흰눈에 발목을 실컷 담그면서 승리의 희열속에 딩굴고 싶다.

승리는 이처럼 신성하고 위대한것이다.

장쾌한 승리를 이룩한 내 조국땅에서는 지금 이 시각도 사회주의 생활이 얼마나 가슴 벅차게 하나씩하나씩 풀려 나가고 있는가.

무수히 일떠세운 크고작은 발전소들의 덕을 보는 자강땅에서는 떵떵 얼어 터지는 이 한겨울에도 전기로 밥을 짓고 전기로 방을 덥히며 전기로 목욕물을 덥히고 한증을 하는 생활의 웃음 꽃이 활짝 피여나고 있다.

력사적인 토지정리로 천지개벽을 이룩한 조국의 협동벌을 바라보는 기쁨은 얼마나 크고 평양의 한복판에 흐뭇하게 들어 앉은 메기탕집에서 구수하고 뜨끈뜨끈한 별맛을 보는 즐거움 또한 얼마나 이채로운가.

동해바다기슭에 무연한 소금밭이 생겨 나 땅의 생김새가 또 달라지고 여기저기서 새 공장들이 일떠서 부흥번영의 새라새로운 징조가 마음을 흥분시킨다.

강성대국의 대통로인양 아득히 펼쳐 진 청년영웅도로는 그 이름처럼 떳떳하게 사회주의승리자의 존엄을 온 세상에 과시하고 있다.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우리 인민의 투쟁과 생활에서 이런 성과들은 우리의 미래를 얼마나 밝게 해주는것인가.

우리의 2000년은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연 거대한 승리의 해였다.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북남공동선언은 온 겨레가 바라고 소원하는 조국통일의 확고한 전망을 열어 놓은 민족의 대경사였다.

통일무지개가 온 북남삼천리에 비낀듯 7천만 겨레가 어깨춤을 추면서 맞고 보낸 2000년의 낮과 밤들,조선민족의 피를 안고 누구나 눈물을 흘리고 흥분으로 잠 못든 통일의 열기들,그 열기도 바로 사회주의승리자의 열기였다.

우리는 봄날의 눈석이처럼 분렬의 얼음장이 풀려 나가는 장쾌한 현실을 목격한 2000년 동시대인들이며 통일은 우리 손에 달려 있고 사회주의붉은기를 고수한 우리 눈앞에 있다는것을 확인한 2000년의 증견자들이다.

2000년의 이 통일대통운이 2001년에는 더 활짝 꽃 필것이고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김정일**장군님을 통일의 광장에 높이 모시고 온 겨레가 통일의 함성을 세상에 소리 높이 터칠 그날은 기어이 올것이다.

우리의 2000년은 승리한 사회주의조선이 세계의 면전에 떳떳이 나선 위대한 승리의 해였다.

우리를 그처럼 못 살게 굴던 제국주의가 항복해 나서고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조선이 련전련승하는 통쾌한 현실을 목격한 세계는 앞을 다투어 조선에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00년과 더불어 조선민족 5천년력사에 있어 보지 못한 외교정치의 일대 사변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 났다.조선이 여러 나라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소식,우리 나라와 국가관계수립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의 징조들이 눈에 띄게 나타나는 놀라운 현실앞에서 지금 온 세계가 벅적 끓고 있다.

이것은 제국주의가 그처럼 많은 공수를 들인 조선에 대한 봉쇄가 허물어 지고 있는 뚜렷한 표시였으며 조선의 사회주의승리를 과시하는 력사적인 쾌거였다.

우리는 이처럼 통쾌하게도 승리하였다.

희한하다 승리의 2000년이여

2

추억의 나날이 뜨겁게 흐른다.

무슨 힘으로 우리는 그렇게도 험난한 길을 웃으면서 걸어 왔던가. 그 무엇이 우리를 사회주의승리자로 만들어 주었는가.우리의 2000년을 그리도 희한하게 만들어 주신 력사의 주인공이 어느분이신가.



높이 들자 붉은기

선군혁명의 기발을 높이 추켜 드시고 20세기 령마루에로 이 세계를 이끌어 오신 위대한 령장의 전설 같은 이야기를 전해 주는 성스러운 2000년

밀림의 긴긴밤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눈이 내린다는 노래는 오늘의 위대한 백두산장군 이야기,사회주의수호장군이신 **김정일**장군님을 흠모하여 천만의 심장에서 끝없이 울리고 있다.

20세기 력사우에 가장 빛나는 업적을 쌓아 올리신 사회주의수호장군 **김정일**동지

그이는 백두산의 아들이시다.그이는 백두산의 기상을 안으시고 사회주의수호전에 나서신 백두의 천출명장이시다.

김정일장군의 2000년은 백두산에서 시작되였다.

백두산

이 나라 장군별의 력사가 시작된 조종의 산 백두산,아직 겨울의 맵짠 눈보라가 천지에 폭풍을 일구며 치솟는 백두산정에서 그이께서는 북남삼천리와 온 세상을 굽어 보시였다.

조선의 20세기는 어떻게 총화될것인가,사회주의수호전이 어떻게 결속되며 분렬의 력사가 어떻게 될것인가,조선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세계앞에 나서게 될것인가.

흘러 온 100년 력사가 남기는 민족적과제가 해답을 기다리고 앞으로의 새 세기가 또 그 해답을 기다리는 세기의 분수령에 거연히 서신 백두령장 **김정일**장군.

소리없이 흘러 간 장군님의 백두산의 항일전구행군이 력사에 준 충격은 얼마나 컸던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김정일**장군님께서 눈보라를 맞으시며 걸으신 백두산행군길에서 조국통일신념이 더 억세게 다지여 지고 **김정일**장군의 백두산의 행군길에서 사회주의수호전의 최종작전도가 완성되였으며 제국주의를 항복시키고 하늘땅이 차넘치게 승리의 만세를 터칠 경축의 사변이 준비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산에서 내리시는 길로 이 땅에는 4월의 통일격파가 천지를 뒤흔들고 장군님께서 또 한번 걸음을 내디디시니 6월의 통일파문이 또 한번 세계를 뒤흔들었다. 백두산선군바람을 안고 세기를 주름 잡으신 **김정일**장군님의 자욱자욱을 따라 이 땅에는 10월의 축포성이 요란하게 터졌으며 사회주의수호전의 만세소리가 세계를 뒤흔들었다.

제국주의와의 정치전에서도 **김정일**장군이 이겼고 군사전에서도 조선의 **김정일**장군이 이겼으며 외교전에서도 **김정일**장군이 이겼다는것을 대서특필한 외국의 출판보도물들,온 우주공간이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의 위대한 승리를 보도하는 전파로 차넘친 승리의 2000년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2000년을 빛나는 승리로 결속 지으신 20세기의 위대한 령장이시다.그이는 20세기 령마루 백두산에 올라 서시여 온 세상을 쥐락펴락하시며 2000년 대승리의 전과를 안아 오신 위대한 장군이시다.

온 세상에 백두산의 눈보라가 휘몰아 쳤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최고사령부 나팔소리를 더 높이 울리며 나아가신 선군혁명령도는 통채로 백두산의 총대바람이였다.

백두산눈보라의 도도한 열풍처럼 선군정치의 폭풍은 이 지구를 휩쓸며 정의와 부정의,불변과 배신,충신과 역적,순결한것과 잡다한것을 명백히 갈라 놓았으며 영웅적인 조선인민의 혁명투쟁의 진리성을 온 세상에 떳떳이 과시하였다.

온 세계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에 매혹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를 따라 2000년이 흘러 왔다.

민족의 운명과 사회주의운명을 한몸에 안으시고 우리의 **김정일**동지께서는 수십성상 얼마나 험난한 길을 걸어 오시였던가.얼마나 머나먼 길을 천신만고로 헤쳐 오시였던가.

주체혁명위업계승의 잊을수 없는 나날 위인께 매혹된 혁명전사들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목 메여 부르며 한품에 안길 때 동지애의 한 없는 정으로 심장을 불 태우신 열혈의 장군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계승해 갈 주체의 혁명대오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따라 영광 넘친 첫 기슭을 떠날 때 우리앞에 이렇게도 모진 광풍이 불어칠줄을 상상이나 해보았던가.

제국주의와의 평화적공존과 평화적경쟁을 떠들고 있던 어느 한 나라 당 및 정부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게 되였을 때였다.일부 사람들속에서는 대표단을 영접할 때 붉은 꽃이나 붉은기를 적게 내놓는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이 나왔다.이 사실을 아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 제일 좋아 하시는 색도 붉은색이고 내가 제일 좋아 하는 색도 붉은색이고 제일 사랑하는 기발도 붉은 기발이다,수령님의 신념이 비껴 있는 붉은기는 우리 혁명의 승리의 기발이다,비겁한 자들이 붉은기를 버리고 달아 나도 더 높이 휘날려야 하는것이 붉은기이며 죽으면서도 더 높이 들어야 하는것이 붉은기이다,붉은기는 수령님의 신념의 상징이자 나의 신념의 상징이라고 결연히 말씀하시였다.그래서 그때 평양시가 더욱 붉은색으로 단장되였으며 우리를 자본주의에로 안내해 보려던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준 이야기는 얼마나 깊은 사연을 남기고 있는가.

1980년대 중엽,다른 나라에서 대포를 녹여 보습을 만들자는 평화의 노래를 부르는데 ≪적기가≫ 노래를 계속 보급해도 되겠는가고 제기한 사람들이 있었다.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박쥐≫의 우화를 들려 주시면서 박쥐처럼 형편을 보아 가면서 새편에 붙었다 들쥐편에 붙었다하며 동요하고 변절하는 인간이 되여서는 안된다고 심각히 깨우쳐 주시였다.

외국출장을 떠나는 한 일군에게 일부 나라들에 사회주의를 저버리려는 경향이 나타나 진통을 겪고 있는데 홍역에 걸리지 않겠으면 ≪적기가≫를 부르라고 당부하시며 혁명전사를 배웅해 주신 그날에도 위대한 장군님의 심장에서는 사회주의수호자의 신념이 얼마나 뜨겁게 불 타고 있었던가.

사회주의수호전의 수십성상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붕괴의 홍수가 터지고 우리에게로 일시에 공격의 화살이 집중되는 그 엄혹한 시기에 제국주의원쑤와 맞서 단신으로 나서신 절세의 애국자,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김정일**장군,

사회주의만세를 부르던 ≪영웅≫도 ≪장군≫도 저 하나의 안락을 위해 원쑤들앞에 붉은 기발을 내놓고 뒤걸음 쳤을 때 이 세상 오직 한분 **김정일**동지만이 혁명의 기치,선군의 붉은 기발을 높이 들고 사회주의수호성전에 나서시였다.

사회주의수호성전에 나서신 **김정일**장군의 결사의 모습은 그대로 백두밀림에서 조국광복성전을 벌리시던 빨찌산장군 **김일성**장군의 모습이였다.

어버이수령님 열어 주신 조국광복의 길을 사회주의수호의 길로 이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

수령님 넘어 오신 백두의 행군길에 또다시 피어린 자욱을 남기시며,수령님 맞으시던 백두의 설한풍을 기꺼이 맞으시며 그이께서 걸어 오신 혁명의 길,고난의 사회주의수호전을 우리 어찌 천년만년세월이 흐른들 잊을수 있으랴.

성에 불린 밀영의 귀틀집 등잔불가에서 광복성전의 작전도를 구상하시던 20세기 위대한 백두산장군 **김일성**장군의 모습을 우리는 **김정일**장군님 계시는 오늘의 최고사령부에서 보았다.

지혜산과 철령 넘어 전방의 초소가 그이의 작전실이였고 동서해 섬초소와 중대병실이 그이의 선군혁명령도 마당이였으며 높고 험한



높이 들자 붉은기

이 나라 산발마다 안 가신데 없이 다 올라 보신 수천수만리 현지지도의 길이 **김정일**장군님의 성스러운 강성대국건설길이였다.

바로 그 길에서 사회주의는 과학이라는 위대한 사상이 세상에 나왔고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수 없다는 사회주의수호장군의 혁명적신념이 선언되였으며 혁명선배를 존대하는것은 혁명가의 숭고한 도덕의리라는 위대한 인간,위대한 동지,위대한 혁명가의 뜨거운 호소가 메아리쳐 울렸다.

사회주의수호전선에 계시는 그이의 발자국소리는 온 세계를 진감시켰다.

사상도 백두산사상,정신도 백두산정신,령도방식과 활동방식도 모두다 백두산식이였다.그이는 정녕 백두산장군위력으로 온 세계를 한손에 틀어 쥐신 전설적인 백두의 령장이시다.

백두산장군

이 세계에서 사회주의를 수호해 낼 절세의 위인은 오직 그이 한분이시였다.

사회주의의 위대한 수호자 백두의 천출명장 **김정일**장군

그이께서 몰아 가시는 혁명의 기관차는 력사의 험산준령들을 넘으며,파도 사나운 망망대해를 헤가르며 ≪고난의 행군≫승리의 기적소리높이 20세기의 높은 령마루에 올랐다.

우리의 ≪고난의 행군≫력사가 6년으로 기록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 ≪고난의 행군≫각오로 빨찌산행전을 마음속에 두르시고 사회주의수호전에 나서신것은 벌써 오래전이였다.

행복의 노래를 부르며 사회주의가 겪게 될 엄중한 시련을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고 있던 때의 오래전 어느 날 북방으로 달리는 렬차안에 앉으신 친근하신 **김정일**동지께서는 항일의 로투사에게서 빨찌산이야기를 듣고 계시였다.

한초한초가 천금처럼 귀중하신 장군님께서 시간을 아낌이 없이 백두산시절의 고난의 행군에 대하여 자꾸만 물으시는 그 사연을 로투사도 다는 알수 없었다.

생눈을 씹어 삼킬 때 마음이 어떠했는가,눈속에 빠져 들어 갔을 때 어떻게 헤여 나왔는가,행군길에서 쓰러졌다가 무슨 힘으로 일어 나서 대오를 따라갔는가....고난의 행군과정을 점점 더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 가시며 심오하게 새기시는 장군님의 온몸에서는 이 땅에 그 어떤 광풍이 휘몰아 친대도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가실 결심과 의지가 맥박치고 있었다.

≪고난의 행군≫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렇게 나서신 사회주의수호성전이였다.

백두산장군가문의 총대를 차고 사회주의승리에로 가는 혁명의 숫눈길우에 빨찌산장군의 군화자국을 찍으며 혁명의 천만대오를 이끌고 **김정일**장군님께서 걸어 오신 사회주의수호의 천만리길,

참으로 신비한 력사의 순간순간이 장쾌하게 흘러 갔다.

병사와 인민들을 찾아 가시는 전선길에서 혁명적군인정신,강계정신을 탄생시키시고 대홍단의 감자농사혁명,온 나라의 토지정리혁명을 일으키시며 동에 번쩍,서에 번쩍하시는 장군님의 현지지도활동은 얼마나 감동적이였던가.

동해기슭에 소금밭이 생겨 난 소식,수천개의 뙈기밭들이 없어 진 소식,이름도 처음 듣는 창조물들이 여기저기서 불쑥불쑥 솟아 났다.

멀지 않아 조국통일념원이 실현될것이라고 사람마다 환희로 들끓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의 선군혁명령도가 가져 온 열매는 이렇듯 풍만한것이였다.

엄혹한 자연과의 투쟁,혹심한 식량난과의 투쟁,무서운 추위와의 투쟁,간악한 적들과의 대결전이 하나로 엉켜 졌던 항일전의 고난의 행군에서 있었던 그 모든 시련을 다 겪어야 했던 준엄한 력사를 단신으로 헤쳐 오신 강철의 인간 **김정일**동지

천교령의 눈보라속에서 희생된 전우를 묻어 줄만한 포근한 땅이 없어 눈을 덮어 묘소를 만들며 피눈물을 흘리신 수령님처럼 혁명동지들의 희생앞에서,인민들의 고생앞에서 장군님아의 눈물을 대줄기처럼 흘리신 마음의 상처는 그 얼마인가.

가자 조국에로,나무껍질을 우려먹으면서라도 가자,희생도 있을수 있고 우여곡절도 있을수 있다,총검의 숲을 헤치고 가야 할 이 길에 간난신고가 왜 없겠는가,백두산쪽만 쳐다보는 인민들에게 빨찌산의 총소리를 높이 울려 주며 발자국을 크게 찍자 조국광복성전의 고난의 행군길에 울리던 **김일성**장군의 이 심장의 독백을 그대로 마음속에 안으시고 가자 강성대국에로,제국주의원쑤들을 물리치며 어서 가자고 선군정치의 나팔소리를 우렁차게 울리시며 사회주의승리의 력사를 용감하게 개척해 오신 위대한 장군이시여

력사가 드리는 다함 없는 축하의 인사를 받으시라,인민이 드리는 2000년 승리의 축하를 받으시라,만민이 드리는 20세기 영광의 꽃다발을 삼가 받으시라

3

2000년 마지막밤 **김일성**광장에서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선률을 담은 제야의 종소리 숭엄하게 울리면 저기 백두산정에서부터 21세기 새 아침이 바야흐로 밝아 올것이다.새 세기의 려명이 밝아 오는 그 아침 온 세계는 백두산을 우러러 21세기 태양을 맞이할것이다.

수령복을 받아 안은 조선의 21세기는 휘황찬란하다.

장군복을 지닌 **김일성**민족의 21세기는 영광으로 빛날것이다.

21세기 태양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신 조선인민은 강성대국에서 사회주의의 영원한 주인으로 자자손손 복락을 누릴것이다.

민족의 앞날은 수령복으로 결정된다.

찬란한 미래는 장군복을 지닌 인민의것이다.

추억의 돛을 달고 저 멀리 20세기 첫 기슭을 내려 가보면 망국의 슬픔으로 하늘땅을 쾅쾅 두드리던 조선민족의 통곡소리 가슴을 친다.

≪시일야방성대곡≫에서 울린 민족의 피 타는 절규는 오늘도 가슴을 치고 평양성에 울리던 망국의 종소리는 지금도 귀전을 두드려준다.

21세기를 맞이하는 오늘의 조선을 보라.

그 누구도 이제는 조선민족을 숙볼수 없으며 그 무엇으로써도 조선인민을 다시는 노예로 만들수 없다.오늘은 우리 조선이 온 세계에 자랑 떨치는 **김일성**조선,백전백승의 영광을 떨치는 주체의 강국으로 되였다.

대를 이어 가며 수령복,장군복을 누리는 우리 인민에게는 통일강성대국의 웅대한 설계도를 안으시고 광명한 미래에로 이끌어 주시는 전설적위인이신 백두령장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신다.21세기 태양을 모신 조선혁명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다.

외국의 한 신문은 ≪워싱톤은 끝내 평양을 굴복시키지 못하였다.북조선은 사회주의발전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제목으로 이런 글을 실었다.

≪서방의 정치가들은 북조선을 정치적고립에서 벗어 나도록 도와주는것이 나라를 보다 민주주의적인 나라로 만들수 있게 해줄것이라고 주장하여 왔다.그러나 일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즉 세계가 **김정일**령도자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김정일**령도자께서 전 세계에 영향을 주시고 있는것이다.≫



높이 들자 붉은기

온 세계를 비치는 승리의 태양 **김정일**장군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계시기에 조선의 미래는 휘황찬란하다.

함박눈을 펑펑 맞으며 제야의 종소리 울리던 광복년의 그 밤처럼 우리는 수령복을 안고 21세기를 맞는 민족의 영광을 온 세상에 자랑하는 제야의 종소리를 높이높이 울릴것이다.

위대한 장군님 모신 우리의 기쁨,장군님 모신 우리의 행복과 긍지가 그대로 종소리 되고 수령복,장군복속에 새 세기를 맞이하는 행복의 웃음,기쁨의 눈물도 종소리에 함께 실려 온 세계에 울려 퍼질 것이다.

승리의 태양 **김정일**동지를 모시여 사회주의승리는 확정적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승리할 래일을 내다보시고 눈보라치는 ≪고난의 행군≫길에서 가시는 곳마다 뿌려 놓으신 부흥번영의 씨앗들이 눈서리를 헤치며 움터나고 있다.장군님 그려 주신 강성대국의 휘황한 설계도를 안고 군대와 인민이 한덩어리 되여 가꾼 승리의 열매들이 나날이 무르익어 가고 있다.

대홍단벌에서의 감자수확도 기쁜일이지만 열대지방에서 살던 아프리카 타조가 우리에게 길들여 진것도 희한한 일이다.이제 또 어떤 과학발명소식이 세상을 깜짝 놀래울지,어떤 놀라운 경제특보가 터지겠는지 예측할수 없다.승리가 우리 편에 있다는것이 확고히 인정되자 세계는 정치,경제,군사,문화,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와 가까이 손을 잡으려 하고 있다.

승리를 마중 가는 우리의 행군길은 변함이 없다.

주체혁명위업은 개척도 숫눈길이고 계승도 숫눈길이며 완성도 숫눈길이다.

남들이 걸어 보지 못한 숫눈길우에 성스러운 행군자국을 찍으면서 정의를 위하여,승리를 위하여,아름다운 미래를 위하여 투쟁하는것이 사회주의승리자들이 가는길이다.

위대한 장군님 따라 혁명의 천만리길을 걸어 오면서 우리는 자기가 시작한 주체의 길이 천백번 옳았다는것을 확증하였고 제국주의는 반드시 멸망하며 사회주의가 승리하는것은 력사의 필연이며 조선혁명가들이 반드시 성취할 성스러운 혁명위업이라는것을 온 세상이 격동속에 깨달았다.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또 어떤 시련이 닥쳐 오든 우리가 가야 할 혁명의 길은 언제나 하나,백두의 행군길이다.

위대한 장군님 높이 드신 선군의 붉은 기발을 높이 추켜 들고 조선혁명의 최고사령부를 결사옹위하면서 우리는 백두의 행군길을 억세게 걸어 갈것이다.

사람들이여

승리의 이 언덕에서 다시한번 뒤돌아 보시라.

우리는 결코 헛되이 살지 않았다.

평범한 공장구내에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고 신념의 글발을 새기였던 우리의 락관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것이였던가.

구월산의 바위우에 고난의 마지막해라는 랑만의 글발을 새기였던 병사들의 그 신념은 얼마나 신성한것이였던가.

무거운 마대를 지고 달리면서 청년영웅도로건설자들이 눈앞에 그려 본 미래,파도치는 동해바다 물결우에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을 뜨겁게 실어 보내며 영웅전사들이 그려 본 조선의 앞날은 또한 얼마나 아름다운것이였으랴.

돌아 보고 또 돌아 보아도 잊을래야 잊을수 없는 혁명의 천만리길,위대한 장군님 따라 온 승리의 천만리길이 너무도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워서 고난의 천리를 가면 행복의 만리가 온다고 쓴 이 나라 시인의 마음속에는 정녕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소중하게 가득차 있는것인가.

수천만의 영웅인민이 피어린 투쟁속에 닦아 놓은 승리의 길

시련이 크다고 눈물 뿌리며 걸어 온 길이라면 우리의 추억 이렇게도 아름답지 못할것이다.

시련이 클수록 더 크게 웃으면서 걸어 온 길이기에 우리의 추억은 이렇게도 아름답고 신성한것이다.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걸어 온 우리의 발자국은 20세기 추억으로만 남아 있지 않을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과 생사운명을 함께 하면서 걸어 온 혁명의 천만리길에 찍혀 진 우리의 자욱자욱은 조선혁명의 21세기에도 그 다음세기에도 **김일성**민족이 걸어 갈 백두의 행군길에 언제나 함께 있을것이다.

승리의 앞길을 내다볼수록 우리가 걸어 온 길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산 우리의 삶이 참말로 값 높은것이였음을 뜨겁게 절감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2000년을 희한한 해였다고 뜨겁게 추억하시면서 승리와 영광이 기약된 조선의 21세기에 대하여 확신하시였다.

시련의 고비를 하나하나 넘을 때마다 혁명전사들과 함께 걸어 온 길을 추억하시면서 우리에게는 옛말할것도 많아 졌다고 긍지높이 말씀하시던 장군님의 혁명에 대한 사랑과 미래에 대한 락관의 감정이 언제나 우리 심장을 세차게 두드려 준다.

인민은 장군님을 하늘처럼 믿고 장군님은 인민을 하늘처럼 믿고 생사운명을 함께 하면서 걸어 온 잊지 못할 혁명의 천만리길이여,

장군님 따라 걸어 온 영광의 이 길을 우리는 영원히 웃으면서 추억하리라.

얼마전 2000년의 뜻 깊은 12월 24일,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이 부르는 노래가 또다시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고난을 헤치고 20세기 령마루에 올라 선 영웅조선인민의 기쁨과 행복을 대표하는 우렁찬 선률이 장내를 뒤흔들었다.

우리 앞길에 태양이 찬란하고 우리 앞길에 봄빛이 아름다와 조선은 영원히 승리할것이라는 병사들의 랑만의 노래는 희한한 2000년을 보내고 새 세기의 문을 열게 되는 **김일성**민족의 크나큰 영광의 감정을 뜨겁게 폭발시키였다.

태양과 봄빛이 찬란한 조선의 앞날은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차 있으리라.

수천만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는 백전백승에로 부르는 백두산장군별의 노래가 있고 백두광명성의 노래가 있으며 찬란한 조선의 미래를 기약하는 아름다운 새별의 노래가 있다.

백두산장군혈통으로 자손만대가 이어 질 우리 민족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승리의 앞길에 눈이 내린다.

사회주의강성대국이 소리치며 일떠설 내 조국의 앞길에 축복의 눈이 펄기펄기 내려 쌓인다.

천리수해 백두산발에서부터 저기저 한나산 끝까지,아침해 솟는 나라 아름다운 내 조국에서부터 지구의 위도와 경도를 넘어 이 세상 끝까지 햇솜 같은 흰눈으로 주단을 펴 놓고 21세기 태양을 맞이하고 싶어라.

송이송이 꽃다발을 아름답게 엮자.

온 세상을 다 덮게 꽃송이 엮어 우리의 백전백승의 영광의 기치이신 승리의 태양 **김정일**장군님께 삼가 드리자.

우리의 행복과 기쁨,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와 사회주의승리의 상징이신 21세기 태양 **김정일**장군님께 영광, 영광을 드리자.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

새 세기 들어 더욱 영광스런 조선노동당의 창당 56돌을 맞이하며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영도자이신 **김정일**장군님께 무한한 흠모의 마음을 담아 삼가 최대의 영예와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주체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님께서 항일의 혁명전통에 기초하여 창건하신 조선노동당은 21세기의 태양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세련된 향도 하에 백전백승하며 혁명청사에 길이 빛날 위훈을 쌓아왔습니다.

조선노동당이 경애하는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수위에 높이 모시고 전진하여온 지난 56성상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며 주체위업완성으로 나아가는 전인미답의 혁명노정이었으며 강철의 신념과 불굴의 의지로 전대미문의 난관을 돌파하여온 영광찬 승리의 나날이었습니다.

위대한 사상이론가이시며 혁명가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수령님께서는 조선노동당을 인류혁명사에 처음으로 되는 주체형의 혁명적 당, 근로민중의 대중적 당으로 창건하시었으며 이후 주체성이 강하고 광범한 대중지반을 갖추며 영도의 계승문제까지 완벽히 해결한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당역량을 강화하고 그 정치적 기능을 제고하는 주체의 원칙을 선행하시며 두 제국주의와의 준엄한 전쟁과 여러 단계의 간고한 혁명투쟁을 승리의 한길로 현명히 영도하시며 역사에 불멸할 위대한 업적을 이룩하시었습니다.

≪ㅌ.ㄷ≫이래 조선노동당의 모든 노선과 정책은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구현이었으며 조선노동당의 모든 영도업적은 수령님의 숭고한 혁명역사에 다름 아니었기에 이전처럼 앞으로도 수령님을 떠난 조선노동당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조선노동당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영원히 빛내이시고 조선노동당과 전체민중의 일심단결을 어버이수령님을 향한 충효의 결정체로 다져놓으신 것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당건설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업적이며 국제공산주의운동사에 전례 없는 불후의 대공적입니다.

천재적 사상가이시며 탁월한 영도자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의 당건설노선을 계승발전시키시고 혁명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시어 조선노동당을 전당에 유일적 영도체계가 확립되고 조직사상수준이 최상에 이른 강위력한 당으로, 온갖 시련과 난관 속에서도 승승장구하는 필승불패의 당으로, 민중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으로 더욱 발전시키시었습니다.

장군형의 정치가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당이자 군이며 군이자 당이라는 독창적인 혁명철학으로 군을 강화하여 당을 강화하고 혁명적 군풍으로 당풍을 세워나가심으로써 당건설과 군건설이 함께 진행되며 강성대국건설과 주체위업완성의 담보가 마련된 위대한 선군혁명의 역사를 창조하시었습니다.

당과 군을 혁명의 2대 기둥으로 삼으시고 선군정치로 혁명을 개척하여 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특출한 영도에 의하여 주체조선은 오늘 제국주의포위환속에서도 한치의 동요 없이 사회주의붉은기를 고수하는 혁명의 금성철벽으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최고수위에 이르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내다보는 주체의 강성대국으로, 진보적 인류의 다함없는 찬탄과 한결같은 지지를 받는 사회주의등대로 거연히 솟아 웅장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며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지난해에 21세기 통일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을 천명하시며 조국통일의 비약적 국면을 창조하시는 한편 조미공동코뮈니케를 발표하시며 90년대 총포성 없는 조미대결전의 결정적 승리를 이룩하심으로써 조선노동당 창당 55돌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성대히 기념하시었습니다.

탁월한 전략가이시며 노련한 정치외교가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올해에도 장장 20여일간의 러시아 5만리 대장정에 오르시어 역사적인 조러모스크바선언을 발표하심으로써 조미대결전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대미포위망을 완성하시었으며 더불어 조선노동당과 주체조선의 국제적 권위도 최상의 위치에 올려놓으시었습니다.

오늘 진보적 인류가 선군영도와 신묘한 전략으로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건설의 세계적 모범을 창조하시는 한편 유일초강대국이라고 하는 미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 연전연승하시는 **김정일**장군님을 우러르며 국제적인 수령, 향도의 태양으로 찬양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김정일장군님이시야말로 천재적인 사상과 비범한 전략, 고매한 덕망, 불멸의 위업으로 21세기 자주시대를 거침없이 개척하고 계시는 절세의 위인이시기에 장군님을 모시고 승리만을 거듭하는 조선노동당이야말로 가장 존엄 있고 위력한 당이요, 노동당시대야말로 가장 영광 넘치는 위대한 시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영도 하에 조선노동당이 이룩한 거대한 업적은 이남의 변혁투사들과 애국민중에게도 필승의 신심을 안겨주며 통일혁명투쟁을 추동하는 강력한 원동력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남 민중의 마음이 미 제국주의를 완전히 제압하시고 전당과 전민을 주체의 통일강성대국건설의 지름길로 영도하고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로 향하며 장군님의 권위가 날을 따라 비상히 고양되고 나아가 절대화되어 가는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입니다.

경사스런 당창건 56돌을 맞이하면서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들은 장군님의 위대성과 전위당의 불패성을 널리 선전하는 사업을 선행하는 한편 당면한 전술단계에 맞게 전략전술을 신축적으로 세련되게 구현하며 반미반이회창투쟁에서 전환적 국면을 창출하겠다는 열화 같은 투지에 넘쳐 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과 백전백승 전위당이 있고 주체의 당건설사상과 필승의 투쟁전략이 있기에 자주민주통일의 승리는 확정적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만수무강은 온 겨레와 인류의 가장 큰 염원입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부디 영원한 청춘으로 젊어 계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향도 따라 자주민주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청년주체주의자대오
통일여명 편집국 6.15주간 편집부 인터넷 구국의 소리 편집인
주체 90(2001)년 10월 10일
서울